E-Book



유성룡 지 | 구지현 역 명재상 서애 유성룡의 임진왜란 회고록, 국보 제132호, 임란 이전의 국내외 정세와 전쟁의 실상, 그 이후 정황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정비(懲拯)'란 《시경》 〈소비〉편의 "子其懲而遂後患(내가 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라는 구절에서 유래한다. 절절한 반성과 경계의 내용을 담기 위해 서애는 자신의 잘못과 지도층의 분란, 나아가 왕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까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



別則星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징비록》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구지현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t) 02)720-8278 (h) www.olje.or.kr (e) oljeclassics@olje.or.kr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해제
반성과 경계 ···· 6
역자 서문
지금도 《징비록》은 유효하다 · · · · · 14
자서(自序)
임진왜란의 서글픈 기록17
제1권
무방비 속 임진왜란의 발발18
제2권
명나라의 참전, 그리고 전쟁의 끝 ·····93
녹후잡기
지계하여 호화은 산가노라140

해제

반성과 경계

1. '징(懲)'과 '비(毖)'

《정비록》이 무슨 뜻인지는 필자 유성룡이 적어 놓은 책의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그가 지적한 대로, 지난 일을 징계(懲)하여 후환을 삼가(毖)는 것이다. 유성룡은 조선조의 대표적인 명재상으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불행하게도 임금을 모시고 피란을 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벼슬에서 물러나서는 스스로 죄인을 자처하며 이러한 책을 쓴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어서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 같은 분도 잘못이 있는데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 간단한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감당하기 힘든 큰일을 겪게 되면 상처가 커서 쉽사리 냉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의 경우, 섬나라 오랑캐에까지 유린당했다는 분노와 자괴감을 불러오거나 거꾸로 외적을 물리쳤다는 공허한 승리감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었다. 유성룡이 택한 길은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이었다. 조선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보자면 임진왜란은 불의의일격이겠지만 당시의 국제 정세로 보면 예고된 전란이나 마찬가지였다. 유성룡은 바로 그러한 점에 눈을 맞추고 있으며, 그 뻔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전란 후에 허둥대다 패배를 거듭한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징비록》이 책으로는 보기 드물게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오래되고 희귀한 책들도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책에는 단지 서지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시에 국정을 담당한 최고위층 관리였던 만큼 그가 취택한 정보는 상당히 정확하고 깊이가 있는 고급 정보여서 여느 사적인 기록물과는 달랐다. 그는 전란의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법을 찾은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벼슬을 물리고 나와 그 일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죄상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데에서 는 숙연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엇이 전란을 불러들였나?

이 책은 임진왜란의 일을 기록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기실은 그 6년 전 무술년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상황을 간략히 서술하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술하는데, 이 대목부터가 이 책의 깊이가 만만치 않음을 드러내 준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시작 지점부터 파고들지 않으면 결코 고수가될 수 없는 법이다. 《징비록》은 그 시작에서부터 일본의 상황과 그 상황에 대처하는 조선의 현실을 나란히 드러냄으로써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이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일러준다.

책의 첫머리에 신숙주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을 되새겨보면, 신숙주는 일본을 다녀와 일본에 대해 잘 아는 터라 조선이 일본을 함부로 대해서 분란의 씨앗이 될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양국의 친선을 주문한 것인데, 실제로 조선 조정의 대처는 미흡했다. 풍랑과 물길 때문에 병을 얻은 정도의 이유를 대며 양국의 사신들이 왕래하지 않게 되었다든지, 일본 사신들을 언제나 낮춰보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것이 그렇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사신들은 조선의 실정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도열한 조선 병사들을 보고 창이 짧다고 비웃는다거나 지방관의 수령이 기생이나 끼고 풍류를 즐기며 지내는 것을 조롱하였다. 이 비교만으로도 두 나라가 맞서 싸우기 어려운 상황을 짐작케 해 준다.

상황이 그랬음에도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1591년,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 예상치 못한 박대를 받으면서도 그 뒷일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다. 다행히 황윤길 등이 병란이 있을 것을 보고했지만, 김성일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함으로써 조선은 일대 혼전에 빠지고 만다. 적어도 병란에 대한 보고가 그렇게 다르게 나왔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병란을 대비하는편이 여러모로 나았을 터인데, 조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애써 전란의 위험을 외면한 인상이 짙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삽시간에 온 나라가 참패했다면 그 밖의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징비록》은 국내적 요인을 찾아내는 데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 첫째로 지적한 것이 축성의 문제였다. 성을 쌓기만 할 뿐 대체 어떻게 쌓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다. 그래서 지세와는 무관하게 넓고 큰 성만 쌓아서 방어를 하는 데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

둘째,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데 실패했다. 이순신 같은 훌륭한 장수도 조정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어 10여 년 동안 발탁되지 못하고 고작 작은 고을의 현감이되는 데 그쳤다.

셋째, 진관법의 체계가 엉망이어서 막상 전시에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유성룡이 나서서 바꾸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 어이없게도 오래 되어서 갑자기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성룡의 글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조리가 서 있다. 이미 외교 관계가 흩어져 틈이 벌어졌고, 일본에서는 전쟁을 해야 할 만한 국내 사정이 있으며, 조선은 외적을 막을 만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고서도 외침이 없기를 바라는 게 말이나 될 법한가.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군사를 책임진 장수들의 행태가 문제였다. 조

총이 있다고 다 맞힐 수 있겠느냐며 되묻는 장수가 있는가 하면 전란의 와중에도 아군끼리 군사기강을 문제 삼으며 반란군으로 몰아 몰살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고 만다. 이렇게 황당한 일은 《징비록》 전반에 걸쳐 두루 보인다. 유성룡은 이른바 총체적 난국을 마치 로드무비 찍듯이 펼쳐 보여 주었다.

3. 불행은 늘 한꺼번에 닥친다

전란 이후를 기록한 《징비록》은 한마디로 패전 기록부 같은 것이다. 변변히 싸워 본 전투가 한 차례라도 있었다면 적이 그렇게 걸어오듯이 한양까지 진격할 리는 만무하다고 했으니 그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없는 이유를 살핀다면 훗날 그와 유사한 전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는지 지침이 될 만하다. 《징비록》은 그 대책에 대해 잘 기술해 놓았다.

몇 대목만 예를 들어보자. 신립이 대신들을 만나고 내려갈 때 머리 위의 사모가 땅에 떨어지고 지방에서 올린 장계에는 서명이 빠져 있었다. 이는 온 백성이 철석같이 믿는 장수로서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표시다. 또 상주에서 머물던 이일은 환곡을 내어 허둥지둥 대오를 편성하기는 했지만 척후병이 없어서 적의 동태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적이 있다고 제대로 보고한 사람을 처형하였다. 그런가 하면 도성을 지키는 병사들도 다 도망칠 생각만 하고, 번을 서는 병사들 중에는 아전에게 뇌물을 주고 도망한 자가 많았다. 이러한 예들은 왜 조선군이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막상 외적의 침입을 받고 보니 수뇌부부터 흔들린 데다 아군에게 불리한 정보는 무시하면서, 그나마 있는 군사들도 요리조리 빠져나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전투에 임해서도 전법이라고는 전혀 없다시

피 했다. 명나라의 장수 이여송 같은 이는 조령을 지나면서 "이처럼 험한데 장수가 지킬 줄 몰랐으니 신립 총병도 지모가 없는 이로다"라고 했다. 방어를 하는 군대로 서는 적군보다 훨씬 익숙한 지세를 활용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이 전법의 기본임에도 무모하게 맞붙었을 뿐이었다. 또 3도의 순찰사가 합동으로 군대를 이 끌어 전투를 벌였지만 모두 문인이어서 군대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다고 했으니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징비록》은 군사 문제만을 거 론하지는 않는다. 가령 임금을 모시고 피란하던 도중 호위하던 사람들이 수라 음 식을 준비하던 부엌에 난입하는 일이 발생한다. 비록 전란 중이라고는 하나 기강 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또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종 묘사직의 신주를 길에 떨어뜨리는가 하면, 백성들이 대신들에게 "평소에는 나라의 녹을 도적질하더니 지금은 이처럼 나라를 그르치고 백성들을 속이는구나"라며 퍼 붓기도 한다. 이렇게 간간이 펼쳐지는 민심의 동향을 통해 문제의 핵심이 극명하 드러난다. 군대의 문제와 일반사회의 문제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유성룡의 《징비 록》을 읽다 보면 그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 군대가 흐트러진 것은 외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사회의 기강이 해이한 것도 전란 중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랬던 것이다. '유비 무화(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경우라면 도리어 '무비유화(無備有患)'이 더 어울릴 법하다. 아무 대비 없이 있다가 국난을 맞은 셈이며, 이것이 바로 유비무환 의 산 교훈이기도 하다.

4. 역사의 교훈을 찾아

임금의 피란 행렬이 의주에까지 이르자 조선으로서는 곧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자 명나라에 연이어 사신을 보냈는데, 이때 원병을 요청하면서 속국이 되겠다고 애걸하기에 이른다. 전란 전에 일본을 향하여 고압적 인 자세로 방만히 굴던 태도와 아주 대조된다. 어느 쪽이나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중국과 일본은 조선으로서는 좋으나 싫으나 배척할 수 없 는 나라였다. 그러나 태평할 때에는 고자세로 무심한 결과. 이렇게 저자세로 급변 하는 불상사를 연출하고 말았다. 이런 일은 국가 간의 외교문제에만 국한하지 않 는다. 《징비록》 곳곳에는 충절과 비분강개를 바탕으로 왜군을 물리치겠다고 나서 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변변한 승리를 거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의 기롭게 나선 사람들마저 대체로 책상물림이어서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었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경기 감사 심대는 병법에 문외한이면서도 손수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섰다. 유성룡이 "밭 가는 일은 종에게 물어야 한다"는 옛말까지 끌어들 이며 말렸지만 허사였고. 결과는 뻔했다. 공공연하게 군병을 모집하는 가운데 적 의 첩자가 있는 것도 몰랐다가 기습공격을 받아 죽고 만 것이다. 그런가 하면 원호 같은 장수는 몇 차례의 승리에 도취되어 적을 가벼이 여기다가 적의 매복에 걸려 살해당했다.

외교는 외교로, 무력은 무력으로 막아야 하는데 어느 하나도 신통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징비록》에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예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모범적인 사례를 교훈으로 제시한다. 그는 이미 녹둔도 같은 데에서 충분한 전술을 펼침으로써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전투에 성과를 올렸다. 나아가 중국의 오만한 장수까지 마음으로 감복하게 만듦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일궈낼 수 있

었다. 또, 유성룡 역시 명나라와 왜국 간의 부당한 물밑 교섭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애쓴 사례도 적혀 있다. 물론 거기에 얼마간은 저자 유성룡의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순신은 억울하게 하옥되고 이순신을 천거한 유성룡마저 조정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야말로 뒷일의 확실한 경계가 될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얻은 장수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하옥되는 신세라면 나라의 앞일이 너무도 암울하기 때문이다. 왜군과의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둔 부원수 신각이 모함을 받고 처형당하는 사실 역시 아프게 다가온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궐기한 의병들이나 충절에 죽은 곽준 일가 같은 가혹한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5. 《징비록》, 그 이후

그렇다면 《징비록》은 과연 성공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징비록》의 서문을 되짚어 보아야만 한다. 유성룡은 분명히 잘못된 과거를 징계하여,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반성과 경계로서 이 책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조목조목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경계를 잘 받아들여 적에 대비했더라면 임진왜란 이후 병자호란 같은 전란도 없었을 것이고, 치욕적인 일제의 강점 역시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후환을 없게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놀랍게도 《징비록》은 일본에서 출간되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이 조선에서 간행된 것이 대략 1647년경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1695년에 간행되었으니 그 신속성이 놀랍다.

1711년에 일본으로 갔던 조선의 통신사가 이 사실을 알고 조정에 보고하여 그 대책 논의에 골몰했던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유성룡이 걱정하던 상황은 그리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일본을 작은 나라로 얕잡아보면서 그 방비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전란을 맞은 것은 불행이지만 유성룡 같은 명재상이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러나 제2, 제3의 유성룡을 만나지 못하고 유성룡이 당부한 경계를 저버린 것은 애석한 일이다. 이 점이 바로 이 책을 다시 읽어야하는 이유다.

이강엽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역자 서문 지금도 《징비록》은 유효하다

안동 하회마을, 우리 전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고풍스러운 한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했다. 그러나 수려한 풍경과는 상관없이 400여 년 전 이곳에서는 한 인물이 회한의 눈물을 삼키며 임진왜란 때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기록이 바로 유성룡의 《징비록》이다.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고 아픈 기억을 곱씹으며 쓴 글이다.

1590년, 조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런데 귀국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사신마다 제각각이었다. 정사인 황윤길은 일본이 쳐들어올 테니 대비하자고 하고, 부사인 김성일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종사관인 허성은 다른 당파였는데도 황윤길의 의견에 동의했으니 일본 침략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선조는 김성일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 당시 제대로 권력을장악하지 못한 선조는 김성일의 말을 믿고 싶었을 것이다. 결국 2년 후 임진왜란이 터졌고, 김성일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듯 열심히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렇기에 같은 동인이었던 유성룡에게 더욱 뼈아픈 반성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하자고 쓴 글이건만 《징비록》은 일본에서 더 유행하였다. 1711년, 일본에 간 조선통신사는 해괴한 일을 목도했다. 한문을 한다는 웬만한 일본인은 다 《징비록》을 읽어보았다는 것이다. 1633년, 유성룡의 아들 유진이 처음 《서애집(西匡集》》을 간행하면서 실었던 기록이, 1695년에 이미 일본에서 《징비록》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심지어 《조선군기대전(朝鮮軍記大全)》이라고, 《징비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임진왜란을 자기네 식으로 재구성한 책까지 나와 있었다. 숙종은 깜짝 놀라 《징비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엄금하였다. 그런데도 에도시대 내내 《징비록》은 일본 식자층의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였다. 일본을 경계하고자 쓴책이 일본에서 더 인기가 있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식으로 《징비록》이라고 하면 유성룡의 문집인 《서애집》에 실린 16권 7책의 임진 왜란 기록을 가리킨다. 유성룡이 서문에 밝힌 대로 임금에게 올린 장계 및 공문서를 기록한 《근포집(芹曝集》》、《진사록(辰巳錄》》、《군문등록(軍門謄錄)》까지 다 합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공식문서를 제외하였다. 조선과 일본에서 널리 읽힌 구성대로 《징비록》상·하와 《녹후잡기》를 묶어 번역하였다. 이런 구성이 본래 유성룡이 첫 집필한 초본 《징비록》에 더 가깝기도 하다.

현대에 와서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사신을 보냈을 때는 우호라는 명목도 있었겠지만 상대국을 탐색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신이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진작 도요토미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침략에 적절한 방비를 했을 것이다. 혜안이 있는 인물이 사신이었다면 전쟁이 일어나 양국 국민이 다치기 전에 더 평화적인 방안을 강구했을지도 모른다.

1592년, 조선을 침략한 일본도 그전에는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이웃 나라였다. 가장 큰 실수는 침략의 싹을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이다. 400여 년이 지난지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징비록》에 보이는 참혹한 상황이전개되기 전에 대비하고, 싹이 보일 때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유성룡이 "징비(懲毖)"라는 두 글자를 선택한 이유도 후손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서교에서 구지현



자서(自序)

임진왜란의 서글픈 기록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왜란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왜란 전의 일도 군데 군데 기록한 것은 그 일의 시작을 밝히기 위해서다. 아아! 임진왜란의 재앙은 참혹하였다. 열흘 사이에 삼도가 방어선을 잃고 팔방으로 와해됐으며, 임금의 수레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그런데도 지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선대 임금님들의 인자하고 두터운 은택이 백성들 사이에 굳게 맺혀 있어 나라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임금께서 큰 나라를 섬기 신 정성이 천자를 감동시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명나라 군대를 자주 출동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것이다.

《시경》에 '여기징이비후환(子其懲而毖候患, 내가 징계하노니 후환을 삼갈 수 있을까?)'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징비록》을 쓴 까닭이다. 나같이 재주 없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에, 흩어져 떠돌던 혼란한 때, 위급해도 지탱하지 못하고 거꾸러지는데도 붙잡지 못했다. 용서받지 못할 죽을죄건만, 오히려 시골에 묻혀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너그러운 법이 아니겠는가? 근심과 두려움이 조금씩 진정되고 나니, 지난 일을 생각할 적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었다. 그래서 한가한 가운데,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대략 기록하였다. 임진년부터 무술년까지 얼마간의 이야기를 총괄하였고, 이어 장계(狀啓)', 소차(疏 剳)², 문이(文移)³와 잡록을 그 뒤에 붙였다. 볼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당시의 사적이라 버릴 수 없다. 한편으로는 민간에 있으면서 충성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한편 어리석은 신하가 나라에 보답하려고 형용치 못할 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서애 유성룡

1 장계(狀落) : 감사 또는 왕명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관원이 서면으로 보고하는 문서

2 소차(疏剳):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과 차자3 문이(文移): 같은 지위의 관아에 보내는 공문



무방비 속 임진왜란의 발발

일본의 조선통신사 요구

만력(萬曆) 무술 연간(1586)에 일본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橘廉廣)가 자기 나라 국왕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의 서신을 가지고 왔다.

우리나라는 일본 국왕 아시카가(足利) 막부(幕府)가 홍무(洪武)³ 연간 초에 나라를 세운 후 200년 가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일본에 경조사가 있으면 사신을 보내 예를 표하곤 했다. 신숙주(申叔舟)가 서장관(書狀官)⁴으로 다녀온 일도 그런 경우다. 나중에 신숙주가 세상을 떠날 무렵, 성종께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으셨다. 그는 우리 조정이 일본과 화목함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대답하였다. 성종께서 그 말에 감동하여 부제학(副提學) 이형원(李馨遠)과 서장관 김혼(金忻)에게 일본과 친목을 닦을 것을 명하셨다.

그런데 이들은 쓰시마(對馬島)⁵에 도착해, 풍랑과 물길에 놀라 병을 얻었다는 사정을 조정에 고하였고, 이에 성종께서는 가지고 간 서신과 예물을 쓰시마 도주(島主)에게 전하고 돌아오라 명하셨다. 그 뒤로는 사신을 보내지 못했지만 일본에서 사절이 오면 전례에 따라 접대했다. 그러다가 히데요시가 아시카가 막부를 대신하여왕이 된 때에 이른 것이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히데요시라는 자는 원래 중국인이라 한다. 왜국으로 흘러들어간 그는 나무를 하여 생계를 꾸렸는데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국왕과 마주쳤다. 그의 사람됨이 범상치 않음을 간파한 국왕은 그를 조정으로 불러 군대에 넣었다.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한 그는 여러 번 공을 세워 높은 자리에 올랐고, 권력을

- 1 만력(萬曆) : 명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 2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 일본을 통일하고 중국 대륙 침략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을 공격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 3 홍무(洪武) : 명(明)의 첫 번째 연호.
- 4 서장관(書狀官): 외국에 보내는 사신 벼슬의 하나. 정사, 부사와 함께 삼사신이라 일컫는다. 세 사신 가운데 지위는 가장 낮지만 외교실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 5 쓰시마(對馬島): 대마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예전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악하자 마침내 아시카가의 왕권을 빼앗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아시카가가 다른 사람에게 시해당하자 히데요시가 그 사람 을 죽인 다음 왕위에 올랐다고도 한다.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병사를 데리고 일본 전역을 평정해 66주를 통일했고, 마침내 외국을 침략할 야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우리는 조선에 자주 사신을 보냈는데도 조선의 사신은 오지 않으니 이는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치바나 야스히로(橘康廣)를 사신으로 보내 통신사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의 서신에 쓰인 글이 아주 거만했는데, "이제 천하는 짐의 손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구절까지 있었다.

아시카가 막부가 망한 지 10여 년이 됐다.

그동안 많은 왜인들이 우리나라를 드나들었지만 히데요시가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해 왜인들이 자기 나라의 사정을 발설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우리 조정에서는 일본의 사정을 알 수가 없었다.

당시 야스히로는 나이가 쉰 살쯤 되었는데, 용모가 뛰어나고 머리가 반백이었다. 그는 우리나라에 와 거치는 객관이나 역에서도 가장 좋은 방에만 묵었고,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그간 보아 온 일본 사신들과 매우 달라서 사람들이 아주 이 상하게 생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일본 사신을 맞이할 때 지나는 군읍(郡邑)에서 지역 장정들을 소집하여 창을 들고 양쪽 길가에 늘어서 군대의 위엄을 보여 주곤 했다. 야스히로가 인동읍(仁同邑)을 지날 때 창 든 자를 힐끗 보고는 "너희 나라 창은 아주짧구나"라며 비웃었다.

상주에 이르러 목사(牧使)⁶ 송응형(宋應河)이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기녀와 악공이 줄지어 있는 가운데 야스히로는 반백인 송응형의 모습을 보고 역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늙은이는 여러 해 싸움터에 있었기에 머리털이 다 희어졌소이다. 목사께서는

6 목사(牧使): 관찰사 밑에서 지방을 다스리던 정3품 외직 문관.

음악소리와 기녀들 사이에 있으니 아무 근심도 없을 텐데, 어쩌다가 머리가 희어 졌소?"

송응형을 조롱하는 말이었다.

그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예조판서(禮曹判書)가 연회를 주관하였다. 술에 취한 야스히로는 연회석상에서 후추를 꺼내 던졌다. 기녀와 악공이 달려들어 후추를 가져가느라 정신이 없었다. 숙소로 돌아온 야스히로는 탄식하며 역관에게 말하였다.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기강이 그러하니 어찌 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느냐?" 그가 돌아갈 때가 되자 조정에서는 답서만 보내고, 물길에 어둡다는 이유로 사신을 보내지 못한다고 했다. 야스히로는 제 나라로 돌아가 그대로 보고했다. 히데요시는 매우 화가 나 야스히로를 죽이고 그의 가족까지 죽여 버렸다. 야스히로와 그의 형 야스토시(橘康年)는 아시카가 막부 때부터 우리나라에 자주 사신으로 드나들었고, 우리나라에서 관직까지 받았었다. 그래서 그가 우리나라를 위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히데요시에게 해를 입었다고도 한다.

히데요시는 다치바나 야스히로를 죽이고 다시 일본국 사신으로 소 요시토시(宗義智)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통신사를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요시토시라는 자는 왜의 주병대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큰사위로 히데요시의 심복이었다. 당시 쓰시마 태수 소 모리나가(宗盛長)는 대를 이어 쓰시마를 지키며 우리나라를 섬겼다. 히데요시는 그를 제거하고 요시토시로 하여금 쓰시마를 다스리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물길에 어둡다는 이유로 통신사 파견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히데요시는 요시토시가 쓰시마 도주의 아들이라고 속여 물길에 익숙하니 그와 함께 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사신 파견을 거절할 구실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한편 요시토시는 우리나라의 실상을 살피기 위해 아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와 승려 게이테쓰 겐소(景轍太蘇)⁶를 대동하고 왔다

⁷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 일본 무사로 임진왜란 때 평양까지 침공한 선봉장이었다. 정유 재란 당시 다시 침략했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후퇴했다.

⁸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 1537~1611. 임제종(臨濟宗) 승려. 일본의 사신으로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 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조선과 강화 교섭을 진행했다.

소 요시토시는 젊어도 명석하고 성정이 사나워 왜인들도 두려워했다. 그의 앞에서는 앞드려 무릎으로 기어 다니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는 동평관(東平館)⁹에 머물면서 기어코 우리 통신사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조정에서는 좀 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몇 년 전 전라도 손죽도(異竹島)¹⁰에 왜인들이 쳐들어와 변방 장수 이태원(李太源)을 죽이고 포로들을 잡아간 일이 있었다. 요시토시는 당시 이 사건이 변방 백성인 사을배동(沙乙背同)이라는 자가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왜국으로 들어왔다가 왜인들을 인도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분노하였다. 일본에 명령해 배반한 백성을 데리고 오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진실한 지 살펴본 다음 통신사 문제를 의논하자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접대관을 시켜 슬쩍 떠보았다. 이 말을 들은 요시토시는 그건 어렵지 않다면서 즉시 시게노부를 제 나라에 보내 보고하였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자기 나라에 있는 우리 백성 10여 명을 다 잡아와 바쳤다.

임금께서는 인정전(仁政殿)¹¹에 나아가 군사들의 호위 아래 사을배동을 심문하신다음 성밖으로 끌고 나가 참수하도록 명하셨다. 요시토시에게는 내구마(內廢馬)¹²한 필을 상으로 내렸고, 왜의 사신 일행을 불러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요시토시, 겐소 등은 모두 인정전 안으로 들어가 차례로 술을 올렸다. 당시 나는 예조판서로서 그들을 접대했는데 통신사 파견 문제는 그때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대제학(大提學)¹³에 오른 나는 국서 쓰는 일을 맡게 되었다. 나는 임금께 통신사 문제를 빨리 결정하여 두 나라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지 말라고 간하였다. 다음 날

⁹ 동평관(東平館): 조선시대에 왜인들이 와서 머물던 객관.

¹⁰ 손죽도(巽竹島):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 딸린 섬.

¹¹ 인정전(仁政殿): 창덕궁의 정전으로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1611년에 재건했다.

¹² 내구마(內廏馬): 임금이 쓰는 궁중 마구간에서 기르는 말.

¹³ 대제학(大提學) : 홍문관과 예문관의 우두머리인 정2품 벼슬. 문장을 잘 하는 사람을 임명하였다.

아침 강연에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¹⁴ 변협(邊協) 등도 사신을 보내 회답하는 것이 마땅하고, 게다가 사신 일행이 저들의 동정을 살피고 오는 것이 잘못된 계책 은 아니라고 아뢰었다.

결국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되었고, 누구를 사신으로 보낼 것인지 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조정에서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황윤길(黃允吉)¹⁵을 정사로, 사성(司成) 김성일(金誠一)¹⁶을 부사로, 전적(典籍) 허성(許筬)¹⁷을 서장관으로 선발했다. 경인년(1590) 3월, 마침내 우리 사신 일행은 요시토시 등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요시토시는 돌아가기에 앞서 임금께 공작 두 마리와 조총(鳥銃)¹⁸, 창, 칼 등을 바쳤다. 임금께서 공작은 남양(南陽)의 해도(海島)에 놓아주고 조총은 군기시(軍器寺)¹⁹에 내리도록 명하셨다. 우리나라에 조총이 들어온 건 이때가 처음이다.

통신사의 엇갈린 보고

신묘년(1591) 봄, 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 등이 왜인 야나가와 시게노부, 승려 겐소와 함께 일본에서 돌아왔다. 그에 앞서 황윤길 일행은 경인년(1590) 4월 29일, 부산포에서 배를 타고 쓰시마에 내려서 한 달간 머물렀다. 다시 쓰시마에서 배를 타고 40여 리를 가서 잇키(壹岐) 섬에 도착해 하카다(博多)주, 나가토(長門)주, 나고야(郎古耶)를 거쳐 7월 22일에야 비로소. 교토(京都)에 도착했다. 왜인들이 일부

- 14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왕명의 출납을 맡은 중추원의 정2품 벼슬.
- 15 황윤길(黃允吉): 1536~?.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1590년에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히데요시를 접견하고 귀국해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6 김성일(金誠一): 1538~1593. 황윤길, 허성과 함께 1590년에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황윤길과 반대로 침략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
- 17 허성(許筬) : 1548~1612.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뒤 황윤길과 같이 왜인의 침략 가능성을 보고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병 모집에 힘썼다.
- 18 조총(鳥銃): 왜군의 무기로, 임진왜란 때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조선군은 대패했다.
- 19 군기시(軍器寺): 병기와 깃발 등 군대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러 길을 돌아간 데다 곳곳에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였기 때문에 몇 달 만에야 도착한 것이었다.

쓰시마에 있을 때 요시토시가 사신을 초청하여 산사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사신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는데, 요시토시는 뒤늦게 가마를 타고 들어와 계단에서 내렸다. 김성일이 노하여 말했다.

"쓰시마는 변방에서 우리나라를 섬기는 신하이다. 왕명을 받든 사신이 왔는데 어찌 이처럼 함부로 대한단 말이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는 김성일이 일어나 나가 버리자 허성도 따라 나왔다. 요시토시는 가마공에 게 죄를 뒤집어씌워 죽이고는 그 목을 받쳐 들고 와 사죄했다. 그 후 왜인들은 김성일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아주 예를 갖춰 접대하였고, 멀리서라도 김성일이 보이면 말에서 내렸다.

교토에 도착한 사신 일행은 큰 사찰에 묵었다. 마침 히데요시가 도산도(東山道)²⁰로 출전한 상태라 일행은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히데요시는 돌아와서도 궁을 수리한다며 곧바로 국서를 받지 않았다. 객관에 머문 지 다섯 달이 지난 다음 에야 비로소 왕명을 전할 수 있었다.

일본에는 천황이라는 자가 있는데 히데요시 이하 모두가 신하의 예로 그를 섬겼다. 그래서 히데요시가 수도에 있지만 왕이라 하지 않고 '관백(關白)' 혹은 '박륙후 (博陸侯)'라고 불렀다. '관백'이란 곽광(霍光)이 "모든 일을 황제에 앞서 자신에게 먼저 관백하게(아뢰게) 했다"는 말에서 따온 칭호다.

히데요시는 피리와 나팔을 앞세워 우리 사신 일행을 호위하게 했고, 가마를 타고 궁까지 들어가 당에 올라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그는 몸집이 왜소하고 비루하였으며, 얼굴색은 거무튀튀해 특별히 뛰어난 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번쩍 번쩍하여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삼중으로 자리를 설치하고 남쪽을 향해 앉았으며, 사모를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신하들이 몇 명씩 줄지어 앉아 있다가 우리 사신들이 자리에 앉도록

20 도산도(東山道): 일본 혼슈(本州)의 내륙 쪽을 동서로 잇는 주요 도로.

인도했다. 연회 도구는 마련하지 않은 채, 방에는 탁자 하나만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떡 한 접시가 있었다. 질그릇 사발에 술을 따라 돌리는데 술도 역시 도수가 낮았다. 그들의 예절은 지극히 간략하여 (술이) 몇 순배 돌자 곧 끝났다. 절이나 읍을 한다든지 술을 권하고 받는다든지 하는 예절이 없었다.

잠시 후 히데요시가 갑자기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 있다가 평상복 차림을 한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안고나와 대청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해서 보았더니 바로 히데요시였다. 좌중은 여전히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앉아 우리나라 악공을 불러 음악을 성대하게 연주하게 하였다. 그러다 어린아이가 옷에 오줌을 싸자 히데요시는 껄껄 웃으며 시중드는 자를 불렀다. 여인 하나가 대답하며 달려나와 그 아이를 받아들고옷을 갈아입히는데 그 모든 것이 제멋대로이고 안하무인이었다.

사신 일행이 인사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온 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정사와 부사에게 은 4백 냥을 주고 서장관과 통사 이하는 차등을 두어 주었다. 우리 사신 이 돌아가려 하는데 제때에 답서를 써 주지 않고 먼저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자 김 성일이 말했다.

"우리는 사신으로서 국서를 받들고 왔는데 답서가 없다면 왕명을 풀숲에 던져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일행을 억류할까 우려한 황윤길은 황급히 출발해 사카이하마(堺 浜)²¹에서 기다렸다. 드디어 답서가 도착했으나 그 내용이 도리에 어긋나고 오만하 여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니었다. 노한 김성일은 받지 않았고, 여러 번 다시 고치게 한 후에야 받아서 출발하였다. 사신 일행이 지나는 곳마다 왜인들이 선물을 주었 으나 김성일은 모두 물리쳤다.

부산에 도착한 황윤길은 사신 일행이 겪은 바를 기록한 글을 올리면서 곧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라고 일본의 정황을 보고했다. 복명(復命)을 한 후 임금께서 불러들여 묻자 황윤길은 전과 마찬가지로 보고했다. 그런데 김성일은 "저는 그런 정황

²¹ 사카이하마(堺浜): 오사카 남쪽에 있는 지역 이름.

을 보지 못했습니다"라며, 황윤길이 인심을 동요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정의 대신들도 둘로 나뉘어 어떤 이는 황윤길의 의견을 주장했다. 내가 김성일에게 물었다.

"그대의 생각이 황윤길과 크게 다르니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김성일은 이렇게 답하였다.

"나 역시 왜놈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황윤길의 말이 너무 중대하여 나라 안팎이 놀라고 의심할까 봐 그리 해명했을 따 름입니다."

당시 일본이 보낸 서신에는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로 쳐들어가겠다는 말이 있었다. 내가 즉시 연유를 진술하여 명나라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자 영의정은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가 왜국과 사통했다고 죄를 물을 것이니 숨기는 게 낫다고 하였다. 내가 말했다.

"일 때문에 이웃나라와 왕래하는 것은 나라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성화 연간 (1465~1487)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해 중국에 조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실에 의거해 명에 알려 칙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숨긴 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대의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적들이 정말로 쳐들어갈 의도가 있는데 다른 곳을 통해 보고된다면, 명나라 조정에서 도리어 우리를 의심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감추고 숨겼다가는 죄가 일본과 왕래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에는 내가 옳다고 하는 자가 많았다. 마침내 김응남(金應南)²² 등을 파견하여 명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당시 일본에 잡혀 있던 후젠성(福建省) 사람인 허의후(許儀後), 진신(陳申) 등은 왜의 상황을 은밀하게 보고하고 있었고, 류큐(琉球)국 세자 쇼네이(尚寧)도 명나라에

²² 김응남(金應南): 1546~1598,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피란하는 선조를 호종(扈 從)했다.

사신을 파견하여 소식을 보고하고 있었다. 우리 사신만 오지 않았으므로 명나라에서는 우리가 왜국 때문에 딴마음을 품었다고 의심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온 적이 있는 각로(閣老) 허국(許國)만이 명을 지성으로 섬기는 조선이 왜와 사통하여 배반할 리가 없다고, 일단 기다려보자고 말하였다. 얼마 후 김응남 등이 들어와 보고를 하니 허국이 매우 기뻐하였고, 명 조정의 의심이 비로소풀렸다.

이순신을 발탁하다



이순신(李舜臣) 초상

©현충사

조정에서는 왜적이 쳐들어올까 걱정하여 지변 사재상(知邊司宰相)²³을 뽑아 아래 삼도를 순찰 하고 방비토록 했다. 김수(金粹)를 경상 감사(慶 尚監司)로, 이광(李洸)을 전라(全羅) 감사로, 윤 선각(尹先覺)을 충청(忠淸) 감사로 삼아 병기를 준비하고 성곽과 해자(垓字)²⁴를 수리하도록 했 다. 경상도에서는 특히 더 많은 성을 쌓았다. 영 천(永川), 청도(淸道), 삼가(三嘉), 대구(大丘), 성주(星州), 부산(釜山), 동래(東萊), 진주(晉 州), 안동(安東), 상주(尙州)의 좌우 병영 같은 곳은 새로 성을 쌓거나 증축했다. 당시 나라가 태평한 지 오래되었고 안팎이 평안함에 젖어.

- 23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의 감사와 병사, 수사를 지내어 변방의 사정에 밝은 자 중에서 뽑아 의정부와 함께 순무를 의논하게 한 2품 이상인 관원.
- 24 해자(垓字): 수비를 위해 성곽 둘레에 깊게 파는 호(湖), 주로 물을 채워 두었다.

백성들이 부역하기를 꺼려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했다.

나와 동년배인 전(前) 전적(典籍)²⁵ 이로(李魯)는 본관이 합천인데 성을 쌓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는 편지를 내게 보내왔다.

"삼가 앞은 정암진(鼎巖津)이 가로막고 있으니, 왜적이 넘어올 수 있겠는가? 어찌 헛되이 성을 쌓아 백성을 힘들게 하는가?"

만 리나 되는 바다로도 왜적을 막을 수 없는데 한 줄기 띠 같은 강을 가지고 왜적이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허술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의견이 이러했고, 홍문관(弘文館)²⁶도 그와 같은 의견을 올렸다.

그뿐 아니라 호남과 영남에서 쌓은 성은 모두 산형과 지세를 살리지 못하였고, 넓고 크게 하여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만 힘썼다. 진주성 같은 경우본래 험한 지세를 이용해 쌓은 것이라 지킬 만했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는 작다고하면서 동쪽 평지로 옮겨서 아래쪽에 넓게 지었다. 그 후 적들이 이곳을 침입했을때 끝내 성을 지킬 수 없었다.

대개 성은 작더라도 견고한 게 중요하다. 그런데도 넓지 못할까 걱정하였으니, 시론이 그러했다. 군정의 근본, 장수 선발의 요건, 훈련 방법 등 백 가지 가운데 한가지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패전에까지 이른 것이다.

조정에서는 정읍(井邑) 현감(縣監) 이순신(李舜臣)²⁷을 발탁하여 전라좌도(全羅左道)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이순신은 담력과 지략이 있고 말타기와 활 쏘기에 능했다. 그가 조산(造山) 만호(萬戸)²⁸로 지낼 때의 일이다. 북쪽 변방에 사변(事變)이 많아 그는 계책을 세웠다. 배반한 오랑캐 우을기내(于乙其乃)를 유인하

²⁵ 전적(典籍): 성균관의 정6품 벼슬. 성균관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²⁶ 홍문관(弘文館) : 조선시대에 궁중의 경서, 사적 등을 관리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담당한 관 청.

²⁷ 이순신(李舜臣): 1545~1598, 1591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해 다음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노량해전까지 조선을 왜적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큰 공을 세웠다.

²⁸ 만호(萬戸) : 각 도에 딸린 종4품의 무관직.

여 병영으로 끌고 와 목을 벤 것이다. 이후 오랑캐에 대한 근심이 싹 사라졌다. 순찰사 정언신이 이순신에게 명하여 녹둔도의 둔전(屯田)²⁹을 지키게 했을 때 일이다. 안개가 짙게 낀 어느 날, 군인들은 모두 벼를 베러 나가고 진영에는 열 명 정도만 남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오랑캐의 기마가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이순신은 진영 문을 닫고 안에서 유엽전(柳葉箭)³¹을 쏘아 적 수십 명이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자 오랑캐들은 놀라 도망갔다. 이순신이 문을 열자 말을 탄 군인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다. 정신없이 달아나는 오랑캐 무리를 추격해 노략질해 간 것을 모두 찾아 돌아왔다. 그러나 조정에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어 급제하고도 10여 년 동안 선발되지 못했다가 겨우 정읍 현감이 된 것이다.

당시 왜적의 위세가 날로 거세지자 임금께서는 비변사(備邊司)³²에 명령을 내려 장수라 할 만한 인재를 추천하라고 하셨고, 나는 이순신을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정읍 현감에서 수군절도사로 등급을 뛰어넘어 임명되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승진 된다고 의아해하였다.

당시 조정의 무장 가운데 신립(申砬)³³과 이일(李鎰)³⁴이 가장 명망이 있었다.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 조대곤(曹大坤)은 늙고 용력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수문 지키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내가 경연 석상에서 조대곤 대신 이일을 임명하도록 임금께 청하자 병조판서(兵曹判書) 홍여순(洪汝諄)이 말하였다. "명장은 마땅히 서울에 있어야 하니 이일 장군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 29 둔전(屯田):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경작하는 밭.
- 30 사부유서(賜符論書) : 임금이 현지 군사 책입자에게 병부와 함께 내려주는 명령서로 선조 24년(1591) 2월 15일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될 때 받은 것이다.
- 31 유엽전(柳葉箭): 살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로 무과(武科) 시험에서 사용했다.
- 32 비변사(備邊司): 조선시대 군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
- 33 신립(申砬): 1546~1592, 북쪽 변방에 침입한 이탕개(尼湯介)를 무찌르고 두만강을 건너 야인을 격퇴하는 등 많은 무공을 세웠다. 임진왜란 때 충주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에 맞섰으나 패배하자 강물에 투신하였다.
- 34 이일(李鎰): 1538~1601, 두 차례 이탕개의 침입을 저지하여 함북병마절도사(咸北兵馬節度使)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병과 함께 평양을 수복하였다.



사부유서(賜符論書)30

② 현충사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순신에게 내리는 명령

너는 한 지역에 대하여 나의 위임을 받았으니 그 책임이 무겁다. 일반적으로 군대를 출동하여 사태에 적응하며 백성의 치안을 확보하고 적을 막아내는 데 있어 정상적인 사무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지만 간혹 나와 너만이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에 대하여는 비밀 병부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으며 또 뜻밖에 야기되는 사태도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일 비상사태에 의한 명령이었을 때에는 비밀 병부와 맞추어 보아 의심이 없다고 인정된 뒤에야 명령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29호의 비밀 병부를 찍어서 내려주려는 것이니 너는 이를 수령하라. 이상과 같이 명한다.

만력 19년(1951) 2월 15일

내가 다시 임금께 말씀을 올렸다

"모든 일은 여유를 가지고 대비해야 하는 법인데, 더욱이 군대를 다스려 적을 막는일이라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더더욱 갑작스럽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변이 생기면 이일 장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다렸다 보내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보내 미리 사변을 대비하면 아마 더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외지의 장수를 내려 보내면 그 도의 형편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군사가 얼마나 용맹한 지도 몰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병가에서 꺼리는 것이니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내가 또 비변사에 나가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임금께 선대의 진관법(鎭管法)³⁵으로 고치자고 청하였다.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35 진관법(鎭管法): 조선시대 전기, 지방의 군사 조직.

"국초에 각 도의 군병은 모두 진관에 나누어 소속시켰습니다. 일이 생기면 진관이속읍을 통솔하여 차례로 정돈하고 주관하는 장수가 호령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상도로 말할 것 같으면 김해(金海), 대구, 상주, 경주(慶州), 안동, 진주가 여섯 진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적병이 쳐들어와 한 진(鎭)의 군대가 유리한 위치를 잃더라도 다른 진이 차례로 군대를 정비하여 굳게 지켰으므로 초목이 스러지듯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을묘년(乙卯年) 변이 있은 후 김수문(金秀文)이 전라도에서 처음 분군 법(分軍法)³⁶으로 고쳐, 도내의 모든 읍을 분할하여 순변사(巡邊使)³⁷, 방어사(防禦使)³⁸, 조방장(助防將)³⁸, 도원수(都元帥)⁴⁰ 및 본도(本道) 병수사(兵水使)에 나누어 귀속시켰습니다. 이를 '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고 하는데 모든 도가 이를 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진관이라는 명칭만 남아 있지 실상은 서로 묶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원근(遠近)의 장수가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장수가 없는 군대는 먼저 들판에 모여 천 리 밖에서 오는 장수를 기다립니다.

장수가 때맞춰 오지 않고 적의 예봉(銳鋒)이 먼저 닥치면 군심이 동요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큰 무리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통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때 장수가 도착하더라도 누가 함께 싸우겠습니까? 선대의 진관법을 다시 고치느니만 못합니다. 평소에 훈련해서 익혀두어야 유사시 징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해야 앞뒤로 서로 응하고 안팎으로 서로 기대게 하여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 일에도 편리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경상도에 내려 보냈으나 경상 감사 김수가 제승방략을 시행한 지 오래되어 갑자기 바꿀 수 없다 하여, 진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³⁶ 분군법(分軍法): 중요한 요지에 군사를 분산시켜 주둔시키는 제도.

³⁷ 순변사(巡邊使): 조선시대 변방의 군사와 정무를 돌아보고 조사하기 위해 임금의 명을 받아 파견된 특사.

³⁸ 방어사(防禦使): 각 도 요지에 배치시킨 종2품의 무관직.

³⁹ 조방장(助防將): 중심 장수를 도와 적을 방어하는 부관 장수.

⁴⁰ 도원수(都元帥): 어떤 특정 지방의 병권을 맡은 장수.

임진년(1592) 봄, 신립과 이일을 변방에 파견하여 순시하도록 하였다. 이일은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가고, 신립은 경기도와 황해도 쪽으로 갔다. 한 달 동안 순시하고 돌아왔으나, 점검한 것은 활과 화살, 창칼뿐이었다. 군읍이 모두 법조문을들어 법망을 피할 뿐 달리 대비하는 좋은 계책이 없었다. 신립은 평소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이름이 나있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해쳐 위엄을 세웠다. 수령들이 두려워서 백성을 동원하여 길을 닦고 매우 사치스럽게 연회를 베풀었다. 대신의 행차도 이만 못했다. 복명하고 나서 4월 1일 신립이 집으로 나를 만나러 왔다. 내가 물었다.

"조만간 변이 생기면 공이 마땅히 책임을 맡아야 할 것이오. 공이 가늠하기에 적을 잘 막을 만하겠소?"

신립이 대단히 가볍게 여기며 걱정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내가 말했다.

"그렇지 않소. 예전에는 왜가 짧은 병기만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총과 긴 창을 함께 가지고 있소이다.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오."

신립이 황급히 말했다.

"조총이 있다 한들 어떻게 다 맞히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나라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 병사들은 겁이 많고 약하오. 끝내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를 지탱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오. 몇 년 뒤 사람들이 병술을 잘 익힌 상태를 생각하면 혹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면 정말로 걱정이오." 신립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갔다.

신립은 계미년(1583)에 온성 부사가 되었다. 반란을 일으킨 오랑캐가 종성을 포위하자 신립이 달려가 구원에 나섰다. 10여 기로 돌격하자 오랑캐는 포위를 풀고 가버렸다. 조정에서 신립의 재주가 대장을 감당할 만하다고 하여 북병사 평안 부사로 승진시켰다. 얼마 후 자헌대부(資惠大夫)⁴¹로 품계가 오르자 병조판서를 욕심낼

41 자헌대부(資惠大夫): 정2품 문무관의 품계.

정도가 되었다. 의기는 찌를 듯하여 조괄(趙括)⁴²이 진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과 꼭 같고, 일에 임해서도 경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므로 의식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였다.

경상우병사 조대곤을 승지(承旨) 김성일로 교체하라는 특지가 내렸다. 그러자 비변사에서는 김성일은 문신이므로 지금의 변방 장수 임무에 적당하지 않다고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김성일은 벼슬을 제수(除授)받아 떠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다

4월 13일, 왜병이 국경을 침범하였다. 부산포가 함락되고 첨사(僉便) 정발輿階)이 죽었다. 예전에 왜인 야나가와 시게노부, 겐소 등이 통신사와 함께 와 동평관에서 묵었을 때의 일이다. 비변사에서는 황윤길, 김성일 등에게 개인적으로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위로하러 가게 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의 형편을 캐어보고 방책을 준비하였다가 대응하자고 청하였으므로 허락한 것이다. 김성일이 동평관에 가자 겐소가 과연 비밀리에 말하였다.

"중국이 오랫동안 일본과 관계를 끊고 조공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히데요시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치욕스럽게 여겨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조선이 먼저 중국 에 보고하여 조공의 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 무사할 것입니다. 게다가 일 본 66주의 백성도 원정에 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김성일 등이 대의를 내세워 꾸짖자 겐소는 이렇게 말하였다.

42 조괄(趙括): ?~?, 조괄은 춘추전국시대 조(趙)나라 장수 조사(趙奢)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병서를 익혀 병법에 밝았다. 그러나 조사는 군대를 다스리는 일은 나라의 존망과 관련이 있는데 이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여 아들에게 병사를 맡기지 않았다. 조사가 죽고 얼마 후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조정에서는 마땅한 인물이 없어 조괄에게 병권을 맡겼다. 결국 아버지의 예상대로 대패하였고 조괄 자신도 전사하였다.



부산진 순절도 1592년 4월, 부산에 침입한 왜적에 맞서 항전하는 조선군의 모습



동래부 순절도 ©육군박물관 임진왜란 개전 초, 동래부성에 침입한 왜적에 맞서 항전하는 조선군의 모습.

"옛날 고려가 원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일본을 침략하려 한 적이 있지요.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이는 일본이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정세로 볼 때 어긋난 일은 아닐것입니다."

©육군박물관

그의 말이 점점 도리에 어긋나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게노부와 겐소는 돌아갔다. 신묘년(1591) 여름, 요시토시가 다시 부산포에 와서 변방 장수에게 말하였다.

"일본은 대명국과 통하려 한다. 만약 조선이 우리를 위해 이 뜻을 전해 준다면 매우 다행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두 나라 사이에 평화는 없을 것이다. 이 것은 중요한 일이라 와서 알린다."

변방 장수는 이를 보고했으나, 당시 조정은 통신사 보낸 것을 후회하고 그들의 도리에 어긋난 태도에 분노만 했을 뿐 회답을 보내지 않았다. 요시토시는 10여 일간 정박해 있다가 불만에 가득 차 가 버렸다. 이후로 왜인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부

산포(富山浦) 왜관(倭館)에 머무는 왜인이 항상 수십여 명이었는데 조금씩 귀국하더니 온 객관이 거의 텅 비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이날(4월 13일), 왜선이 쓰시마로부터 바다를 뒤덮으며 몰려왔다. 멀리서 바라보니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부산포 첨사(僉使) 정발(鄭發)이 절영도(絕影島)에 사냥을 나갔다가 이를 보고 몹시 놀라 성으로 돌아왔다. 왜병이 잇따라 상륙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얼마 되지 않아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좌수사(左水便) 박홍(朴泓)⁴⁸은 적의 세력이 큰 것을 보고 감히 출병하지 못하고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왜군이 군사를 나누어 서평포(西平浦)와 다대포(多大浦)를 공격해 함락시켰다. 다대포 첨사 윤흥신(尹興信)이 전력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전사하고 말았다.

좌병사(左兵使) 이각(李珏)은 이 소식을 듣고 병영을 나와 동래성(東萊城)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부산포(釜山浦)가 함락되었음을 알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양쪽으로 나뉘어 적을 치자면서 성을 나가 소산역(蘇山驛)⁴으로 물러나 진을 쳤다.

부사 송상현(宋象賢)⁴⁵이 같이 성을 지키자고 만류하였으나 이각은 따르지 않았다. 15일, 왜병은 동래로 진격했다. 송상현이 동래성 남문에 올라 전투를 지휘하였으나 한나절 만에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송상현은 꿋꿋이 앉아서 칼에 맞아 죽었다. 왜적은 목숨을 바쳐 성을 지킨 것을 가상하게 여겨 시신을 관에 수습해 성 밖에 묻고 표지를 세워 주었다.

각 군(郡)과 현(縣)이 바람 앞의 풀처럼 쓰러져 갔다. 밀양(密陽) 부사 박진(朴晉)은 동래성에서 나와서 작원(鵲院)의 요충지를 막고 방어하려 했다. 그러나 양산(梁山)

⁴³ 박홍(朴弘): 1534~1593.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선전관, 종성부사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로서 왜적과 맞섰으나 패했다.

⁴⁴ 소산역(蘇山驛) : 동래부 북쪽 20리에 있던 동래 교통의 요지. 현재 부산시 금정구 하정마을에 터가 남아 있다.

⁴⁵ 송상현(宋象賢): 1551~1592,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왜적이 동래성에 침입하자 맞서 싸웠으나 전사했다.

을 함락시키고 작원에 이른 적은 지키는 병사가 있는 것을 보고 산 뒤쪽 높은 곳을 타고 개미떼처럼 흩어져 몰려왔다. 좁은 길목을 지키던 우리 군사들은 밀려 내려 오는 적들을 보고 모두 흩어져버렸다. 박진은 말을 달려 밀양으로 돌아와 서둘러 병기와 창고를 불사른 다음 성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한편 병영으로 돌아온 이각은 먼저 제 첩부터 성 밖으로 피신시켰다. 성안의 인심이 흥흥해졌고, 군영이 하룻밤에도 네댓 번씩 동요하였다. 이각은 새벽을 틈타 몸을 빼 달아나 버렸다. 많은 군대가 대패하였다. 적들이 길을 나누어 먼 길을 달려연달아 읍을 함락시켰으나 한 사람도 감히 저지하지 못했다.

김해 부사 서예원(徐禮元)은 성문을 닫고 성을 지키고 있었다. 적들은 성 밖의 보리를 베어 해자를 메우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성과 높이가 같게 쌓고는 이를 타고쳐들어왔다. 초계(草溪) 군수(郡守) 이 아무개가 먼저 달아나고 서예원도 뒤따라도망쳤고 성은 결국 함락되었다. 순찰사 김수는 진주성에서 침략 소식을 듣고는동래성으로 달려갔다. 중도에 적병이 이미 가까이 있어 전진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길을 돌려 우도(右道)로 달려갔다. 어찌해야 할지 모른 그는 여러 고을에 격문을 띄웠는데 모두 도망치라는 것이었다. 결국 도내가 텅 비어버렸으니 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용궁현(龍宮縣)⁴⁶ 현감 우복룡(禹伏龍)⁴⁷이 읍의 군대를 거느리고 병영으로 가고 있었다. 영천 가는 길가에서 밥을 먹고 있을 무렵 하양(河陽)의 군대 수백 명이 방어사에게 가기 위해 소속된 도를 향하여 그의 앞을 지나갔다. 군사들이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지나가려 하자 우복룡은 반란군이라며 꾸짖었다. 하양 군이 병사의 공문을 꺼내 보여 주며 변명하였지만 우복룡은 무시한 채 자기 군대에 신호를 보냈다. 포위해서 모두 죽여 시체들이 들에 가득 쌓였다. 이를 들은 순찰사는 우복룡이

⁴⁶ 용궁현(龍宮縣): 경북 예천군에 병합된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⁴⁷ 우복룡(禹伏龍): 1547~1613.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용궁 현감으로 용궁을 끝까지 지켰다.

큰 공을 세웠다고 보고했고, 그리하여 우복룡은 통정대부(通政大夫)⁴⁸가 되었고 정희적(鄭熙績)을 대신해 안동 부사로 임명되었다. 나중에 하양 사람 가운데 고아와 과부들이 조정의 사신이 올 때마다 말 머리를 잡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으나 당시 우복룡이 명망이 있었으므로 힘써 이치를 따져주는 자가 없었다.

17일 이른 아침, 왜적의 침략 소식이 처음 조정에 도착했다. 경상 좌수사 박홍의 장계(狀啓)가 전해진 것이다. 대신들이 비변사 빈청에 모여 면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어 이일(李鎰)을 순변사로 삼아 중로(中路)로, 성응길(成應吉)을 좌방어사로 삼아 좌도(左道)로, 조경을 우방어사로 삼아 서로(西路)로 내려 보냈다. 또한, 유극량(劉克良)을 조방장으로 삼아 죽령(竹嶺)을 지키게 하고, 변기(邊璣)를 조방장으로 삼아 조령(鳥嶺)을 지키도록 하였다. 경주 부윤(府尹)윤인함(尹仁涵)은 문신이라 나약하고 겁이 많다 하여 상중에 있는 전 강계(江界)부사 변응성(邊應星)을 기용하여 경주 부윤으로 삼았다. 모두 직접 군관을 선발해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곧바로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당시 부산은 적에게 포위당해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었다. 박홍의 장계에는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니 붉은 기가 성안에 가득하여 이것으로 성이 함락된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일이 서울의 정예병 3백 명을 이끌고 떠나려고 병조에서 병사를 뽑은 명단을 보았더니 모두 훈련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한 여염(間間)과 시정(市井)의 장정들이었고, 서리(胥吏)와 유생(儒生)이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떠날 때 점검하는데, 유생은 관복을 갖추고 시권(試券)을 들고, 서리는 평정건(平頂巾) 생을 쓰고 징집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자가 뜰에 가득하였다. 내보낼 사람이 없으니, 이일은 명을 받고도 사흘이 지나도록 출발하지 못했다. 부득이 이일이 먼저 떠나고 별장 (別將) 유옥(柳氏)이 뒤따라 병사를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내가 병조판서 홍여순이 임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해 군사들이 많이 원망하니 바꾸

⁴⁸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 당상관의 품계.

⁴⁹ 평정건(平頂巾): 서리 계층이 쓰던 관모, 파리머리라고도 한다.

어야 한다고 장계를 올렸다. 이리하여 김응남이 병조판서가 되고 심충겸(沈忠謙)이 참판(參判)⁵⁰이 되었다. 사간원(司諫院)에서 마땅히 대신을 체찰사(體察使)로 삼아 여러 장수를 검사하고 감독하게 해야 한다고 청했다. 영의정이 나를 체찰사에 추천했다. 나는 김응남을 부체찰사로 삼아줄 것을 청하였고, 병술에 지략이 있는 전(前) 의주 목사(義州牧使) 김여물(金汝崎)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청하였다. 당시 김여물은 어떤 일에 연좌(連坐)되어 옥에 갇혀 있었는데 나의 청에 따라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었다. 또 무사를 모집하였는데, 비장(裨將)⁵¹이 될 만한 자 80여 명을 모았다.

그런 가운데 급보가 끊이지 않았다. 적의 선봉이 이미 밀양과 대구를 넘어 조령 아래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왔다. 나는 김응남과 신립에게 말했다.

"왜구가 깊숙이 들어왔으니 사태가 참으로 급박해졌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신립이 말했다.

"이일이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지원병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찰사가 내려가더라도 장수가 아니십니다. 어찌 용맹한 장수를 빨리 내려 보내 이일의 계책에 부응하지 않으십니까?"

신립이 직접 가서 이일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 나와 김응남은 임금께 면대하기를 청하고 이러한 사실을 아뢰었다. 임금께서 친히 신립을 불러 물으시고, 그를 도순변사(都巡邊使)⁵²로 삼았다. 신립이 궐 밖으로 나가 직접 다니며 무사를 모집하였지만 따르려는 자가 없었다. 이때 나는 중추부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신립이 내게 왔다가 계단과 뜰 사이에 지원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매우성난 얼굴로 김 판서를 가리키며 내게 말했다.

⁵⁰ 참판(參判) : 조선시대의 임시 군직으로 지방에 군란이 있을 때 임금을 대신해 그 지역에 내려가 일반 군무를 맡아보았다.

⁵¹ 비장(裨將): 감사, 유수, 병마사 등을 따라다니던 관원의 하나.

⁵² 도순변사(都巡邊使): 조선시대에 군무를 총괄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한 임금의 특사.

"대감께서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어찌 소인 같은 사람이 부사가 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는 그가 군사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아 화가 난 것을 알고 웃으면서 말했다.

"같은 나라 일인데 어찌 나니 너니를 나누겠소? 영공은 떠나기가 급박하니 내가 모은 군사들을 데리고 먼저 가시오. 나는 또 모집을 하여 따라갈 것이니."

이어서 군관의 명단을 주었다. 신립이 뜰 안 군사들을 돌아보고 "오너라"라고 말하고는 이끌고 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떠났다. 김여물도 함께 떠났는 데 표정이 몹시 좋지 않았다. 신립이 떠날 무렵 임금께서 그를 불러 보검(寶劍)을 하사하면서 말씀하셨다.

"이일 이하 명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이 검을 쓰라."

하직하고 나온 신립은 빈청에 들러 대신들을 만났다. 계단을 내려갈 즈음 머리 위의 사모가 갑자기 땅에 떨어져서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아연실색하였다. 그런데 용인에 도착한 신립이 올린 장계에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아 사람들이 그의 마음이 산란하지 않은가 의심하였다.

잇따라 각 지방의 성이 함락되다

경상우병사 김성일을 하옥시켜 압송하였으나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초유사(招諭使)⁵⁸로 삼았다. 그리고 함안(咸安) 군수 유숭인(柳崇仁)을 병마사로 삼았다. 김성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적이 국경을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성일은 밤낮으로 말을 달려 본 군영으로 가다가 조대곤을 만나 인장과 부절(符節)⁵⁴을 넘겨받았다. 이때 적은 이미 김해를 함락시키고 경상우도의 여러 읍을 침탈(侵奪)하였다. 김성일이 진격하여 적과 마주쳤다. 그런데 장수와 사졸들은 그저 달아나

53 초유사(招論使): 난리가 났을 때 백성들을 경계하고 타이르는 일을 맡은 벼슬.

54 부절(符節): 벼슬을 나타내는 도장과 임명받았음을 증명하는 증표.

려고만 했다. 이를 본 김성일이 말에서 내려 접의자에 걸터앉아 꼼짝도 하지 않더니 군관 이종인(李宗仁)을 불러 말했다.

"너는 용사이니 적을 보고 먼저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때 어떤 적병이 철가면을 쓰고 칼을 휘두르며 돌진해 왔다. 이종인이 달려나가 화살 하나로 적병을 고꾸라뜨렸다. 그러자 적병들이 퇴각하여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김성일이 흩어진 사람들을 수습하여 모으고 군현에 격문을 띄워 군사를 모으려고 도모하였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김성일이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와 적병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국사를 그르쳤다고 하여 의금부 도사를 보내 잡아오게 했다.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다. 감사 김수는 김성일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가에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김성일은 비분강개한 말투로, 자신의 일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다만 김수에게 힘을 다해 적을 토벌하라고만 격려하였다. 늙은 서리 하자용(河自溶)이 탄식하였다.

"자신의 죽음은 염두에 두지 않고 나랏일만을 걱정하니 참으로 충신이로다."

김성일 일행이 직산(稷山)에 이르렀을 무렵 임금의 노여움이 풀린 데다 김성일이 충청도 백성들의 인심을 얻고 있음을 알아 죄를 사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를 우도 초유사로 삼아 도내 백성들을 깨우치고 병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때 유숭인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등급을 뛰어넘어 병마사(兵馬使)에 임명되었다.

첨지(僉知) 김륵(金功)⁵⁵을 경상좌도 안집사(安集使)로 삼았다. 이때 감사 김수가 경상우도에 있었는데 적병이 중로를 가로막아 좌도와 소식이 통하지 않았다. 수령 들은 모두 관직을 버리고 도주하였고 민심은 해이해졌다. 이러한 사정을 조정에서 듣고 영천(榮川) 사람으로 그곳의 민정을 잘 아는 김륵을 안집사로 삼은 것이다.

⁵⁵ 김륵(金刧): 1540~1616,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안집사로 영남 지방의 민심을 수습했다.

그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병사를 모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내려 보냈다. 김륵이 도착하자 좌도의 백성들이 비로소 조정의 명령을 듣고 점점 모여들었다. 영천 (榮川)과 풍기(豊基) 두 읍은 다행히 적병이 이르지 않았고, 의병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상주가 적의 손에 떨어졌다. 순변사 이일은 패주하여 충주로 도망했다.

이전에 경상도 순찰사 김수는 적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제승방략(制勝方略)에 따라 군대를 나누고 여러 읍에 공문을 보냈다. 각기 소속 군사를 통솔하여 관할 지 역에 주둔하고 서울에서 장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문경(聞慶) 아래 지방 수령들은 모두 자기 군대를 이끌고 대구로 달려왔다. 개천가에 진을 치고 야영을 하며 순변사를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순변사는 오지 않았고, 적은 점점 가까이 오니, 군사들은 크게 동요했다. 게다가 큰비가 내려 의장이 젖어 축축하고 군량까지 떨어져 가자 군사들이 밤중에 모두 도망쳐버렸다. 수령들도 다 말을 타고 달아났다.

이즈음 순변사가 문경에 당도했으나 문경 현 안은 이미 텅 비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직접 창고 곡식을 내어 거느리고 간 사람들을 먹이고 함창(咸昌)을 거쳐 상주에 이르렀다. 상주 목사 김해(金癬)는 순변사를 맞으러 역참에 간다는 구실을 대고는 산속으로 숨어버렸다. 판관(判官) 권길(權吉)⁵⁶ 혼자서 읍을 지키고 있었다. 병사가 없는 걸 본 이일은 권길을 질책하며 그를 공청으로 끌고 가 참형에 처하려 하였다. 권길이 직접 나가 병사들을 모아 오겠다고 애걸하였다. 권길은 밤새 촌락을 돌아다닌 끝에 몇백 명을 모아 다음 날 새벽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들이 아니라 모두 농민들이었다.

이일은 상주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창고의 곡식을 꺼내어 흩어진 백성들이 나오도록 유도했다. 산골짜기로부터 하나둘 나온 사람이 또 수백 명이었다. 허둥지둥 대

⁵⁶ 권길(權吉): 1550~1592,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일과 함께 상주에 침입한 왜 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오를 편성하여 군대를 만들었으나 전쟁을 감당할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때 적은 이미 선산(善山)⁵⁷에 이르렀다. 저녁에 개령현(開寧縣) 사람 하나가 와적이 가까이 왔다고 알렸다. 그 말을 믿지 못한 이일은 민심을 미혹시키려 한다며그의 목을 베려 했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우선 나를 옥에 가두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적이 오지 않거든 그때 죽여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이날 밤 적은 상주에서 겨우 20리 떨어진 장천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이일의 군대는 척후병(斥候兵)⁸⁸이 없어 이 사실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이일은 개령 사람을 옥에서 끌어낸 후 적은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는 목을 베어 죽이고 조리를 돌렸다. 이어 그는 불러 모은 민간인 군사들과 서울에서 온 장수와 병사를 합쳐 겨우 팔구백 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상주 북부 천변에서 진법을 익혔다. 산을 등지고 진을 펼친 다음 진 가운데에 대장기(大將旗)⁵⁸를 세웠다. 갑옷을 입고 말에 앉은 이일이 대장기 아래 서고 종사관 윤섬(尹暹), 박지(朴篪) 및 판관 권길, 사근 찰방(沙斤察訪)⁶⁸ 김종무(金宗武) 등이 말에서 내려 이일 뒤에 섰다.

잠시 후 몇 사람이 숲 속에서 나와 어슬렁거리며 멀리서 바라보다가 돌아갔다. 이를 본 사람들은 적의 척후가 아닌가 의심하였으나 개령 사람을 징계한 것을 본 터라 감히 말하지 못했다. 이어 멀리 성안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제야 이일이 군관 한 사람을 보내 살펴보고 오게 했다. 군관은 말을 타고 두 역졸이 고삐를 잡고서 천천히 갔다. 그러나 다리 아래 매복해 있던 왜군들이 조총으로 군관을 쏘아 떨어뜨리고 목을 베고 떠났다. 이 광경을 본 우리 병사들은 사기가 꺾였다.

곧 적의 대군이 들이닥쳤다. 조총 10여 자루로 쏘아대는데 맞은 사람은 곧바로 쓰

⁵⁷ 선산(善山): 지금의 경상북도 선산군의 군청 소재지로 조선시대 때 도호부사(都護府使)가 있었다.

⁵⁸ 척후병(斥候兵): 적의 사정이나 지형 등을 탐색하는 일을 담당하는 병사.

⁵⁹ 대장기(大將旗): 대장이 군대를 지휘할 때 사용하던 군기로 파랑, 하양, 노랑 기를 각각 좌, 우, 중간 에 세웠다.

⁶⁰ 찰방(察訪): 조선시대에 각 도의 역참을 담당한 종6품 벼슬.

러져 죽었다. 이일이 급히 군사들에게 소리쳐 화살을 쏘도록 했으나 수십 보 날아 가다 떨어져 적을 다치게 하지 못하였다. 적은 좌우로 나뉘어 깃발을 들고 우리 군 대를 포위하며 다가왔다.

이일이 사태가 급박해진 것을 알고 말을 돌려 북쪽으로 달아났다. 병사들 역시 크게 혼란에 빠졌고 각자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쳤으나 벗어날 수 있었던 지는 몇 되지 않았다. 종사관 이하 말을 타지 못한 자들은 대부분 적에게 당했다. 적들이 이일을 계속 추격하자, 이일은 말을 버리고 의복도 벗은 채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맨몸으로 도주하였다. 문경에 도착한 그는 종이와 붓을 구하여 패배하였다는 장계를 올렸다. 물러나 조령을 지키고자 하다가 신립이 충주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충주로 달려갔다.

조정에서는 우의정(右議政) 이양원(李陽元)을 수성대장으로, 이전(李戩)과 변언수 (卞延壽)를 서울 경성 좌우위장으로, 상산군(商山君) 박충간(朴忠侃)을 경성 순검 사로 임명해 도성을 지키게 하였다. 상중인 김명원(金命元)을 복직시켜 도원수(都元帥)로 삼고 한강을 지키게 했다. 이 무렵 이일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인심이 흉흉해졌다. 왕실 안에서는 몽진(蒙塵)을 할 생각이었으나 바깥에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였다. 이마(理馬) 김응수(金應壽)가 빈청에 와서 영의정과 귓속말을 하고 왔다 갔다 하자 이를 본 자들이 의아해 했다. 아마도 영의정이 이때 사복시(司僕寺)⁶¹ 제조(提調)⁶²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도승지(都承旨) 이항복(李恒福)⁶⁸이 내게 와 손바닥에 '영강문 안에 말을 세우라(立 馬永康門內)'라고 써 보였다. 사간원에서는 영의정이 국정을 그르쳤다고 탄핵하며 파직시키기를 청했으나 임금께서는 윤허하지 않으셨다.

⁶¹ 사복시(司僕寺):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련된 일을 맡아보던 관청.

⁶² 제조(提調) : 관청의 우두머리.

⁶³ 이항복(李恒福): 1556~1618. 조선시대 문신으로 정의정, 영의정을 지냈다. 임진왜란 후 전쟁 수습에 힘썼다.

종친들 역시 궁궐 밖에 모여 통곡하며 도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였다. 영부 사(領府事) 김귀영(金貴榮)은 크게 분개하여 여러 대신들과 함께 서울을 굳게 지키 자고 청하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도성을 버리자고 의견을 내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임금께서 교지를 내렸다.

"종사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제야 사람들이 물러났다. 그러나 상황은 어려워지기만 했다. 도성 내 백성과 공사노비, 서리, 삼의사⁶⁴를 징발하여 성가퀴⁶⁵를 나누어 지키도록 하였다. 계산해 보니 성가퀴가 3만여 개인데 성을 지키는 사람 수는 고작 7천 명이었다. 그것도 모두 오합지졸이고, 다 성을 타고 내려가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다. 번을 서는 군사들은 병조에 속해 있었지만, 말단 아전들과 함께 간계를 부려 뇌물을 주고 도망친 자가 아주 많았다. 관원들조차 그들을 모른 체했으니 위급함이 닥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군정의 해이가 마침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대신들이 세자를 세워 인심을 붙잡자고 청하자 임금도 그들의 말을 따랐다.

동지사(同知事) 이덕형(李德馨)⁶⁶을 왜군에 사신으로 보냈다. 이일의 군대가 상주에서 패배할 무렵 역관 경응순(景應舜)이 적에게 사로잡혔다.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히데요시의 서계와 예조에 보내는 글을 경응순에게 주면서 이렇게 전하라 했다.

"동래에 있을 때 울산 군수를 생포하여 서계(書契)⁶⁷를 들려 보냈으나 지금까지도 답신이 없다.⁶⁸ 조선이 우리와 강화할 생각이 있다면 이덕형을 28일 충주로 보내

- 64 삼의사 : 내의원 · 전의감 · 혜민서 등 세 의료기관.
- 65 성가퀴:성 위에 낮게 쌓은 담. 몸을 숨기고 적을 쏠 수 있게 만든 것.
- 66 이덕형(李德馨): 1561~1613, 조선시대의 문인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일본 사신과 회의를 교섭했으나 실패했다. 전쟁 후 민심수습과 군대 정비에 노력했다.
- 67 서계(書契): 일본과 주고받던 공식 문서.
- 68 원주: 군수는 곧 이언함(李彦涵)인데 적중에서 돌아왔으나 죄를 받을까 두려워 도망쳤다고 하면서 서



이원익(李元翼)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라." 아마도 이덕형이 예전에 선위사(宣慰使)로 왜의 사신을 접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니시가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경응순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사태가 너무 급박해 계책을 세울 수도 없었다. 다만 이를 통해 적의 공격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이덕형 또한 가겠다고 자청했다. 예조에서는 답서를 작성하여 경응순을 데리고 떠나게 했다.

형혹성(熒惑星)⁷⁰이 남두(南斗)⁷¹를 침범하였다. 이는 재앙의 조짐이었다. 조정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의 군사를 서울로 불러들였다. 이조판서 이원익(李元翼)⁷²을 평안도 순찰사로 삼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최흥원(崔興源)을 황

해도 순찰사로 임명하고는 바로 떠나도록 하였다. 서쪽으로 몽진하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원익은 안주(安州) 목사로, 최흥원은 황해(黃海) 감사로 모두 선정을 펼쳐 그쪽 지방 민심을 얻은 터라 먼저 가서 군민을 잘 깨우쳐서 순행에 대비하게 한 것이다.

적병이 충주에 침입했다. 신립이 맞아 싸웠으나 대패하여 죽었고, 군사들은 모두

계를 감춘 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 69 원주: 이덕형이 도중에 충주가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응순에게 먼저 가 탐색하게 했는데 경응순은 적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에게 잡혀 살해되었다. 이덕형은 되돌아와 평양에서 복명하였 다.
- 70 형혹성(熒惑星): 재앙의 조짐을 보이는 별.
- 71 남두(南斗): 제왕의 수명을 상징하는 별자리.
- 72 이원의(李元翼): 1547~163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우의정, 영의정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왕의 피 란길을 이끌고 평양 탈환작전에 공을 세워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변무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영 의정이 되었으나, 유성룡을 변호하다가 사직했다.

뿔뿔이 흩어졌다. 충주에 들어선 신립은 충청도 군영의 군사를 모았다. 그렇게 모 은 군사가 8천여 명이었다. 신립은 조령을 지키려 하였으나 이일이 패배했다는 소 식을 듣고 낙담하여 충주로 돌아왔고, 이일과 변기 등도 충주로 불러들였다. 조령 처럼 험한 곳을 버려둔 채 지키지 않았고, 명령체계는 복잡하고 기강이 없었다. 이 를 지켜본 사람들은 적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가까이 지내는 군관이 신립에게 적군이 조령을 넘었다고 비밀리에 보고한 것이 27 일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신립이 갑자기 성을 뛰쳐나가자 군사들은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 소란스러웠다. 깊은 밤 객사로 돌아온 그는 다음 날 아침 그 군관이 망언을 했다며 끌어내어 목을 베고. 장계에는 여전히 "적이 아직 상주를 떠나지 않 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적병이 이미 10리 안에 와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신립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탄금대(彈琴臺) 앞 두 강 사이에 진을 쳤다. 그 땅은 좌 우에 논이 많고 물풀이 얽혀 있어서 말을 움직이기에 불편했다. 잠시 후 적이 단월 역(丹月驛)에서 길을 나누어 풍우 같은 기세로 쳐들어왔다. 한쪽은 산을 따라 동쪽 으로 향했고. 한쪽은 강을 따라 내려왔다. 대포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고 먼지가 하 늘까지 닿았다. 신립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을 채찍질하여 두 번이나 직접 돌진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도리어 강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를 본 군사 들도 다 강으로 뛰어들어 시체가 강을 덮은 채 떠내려갔다. 김여물도 혼란스러운 군사들 사이에서 죽었다. 이일은 동쪽에 있는 산 계곡 사이를 통해 탈주하였다. 그전에 조정에서는 적병이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이일이 혼자 힘으로는 버티기 어 려울까 걱정하였다. 신립은 당시 이름난 장군으로 사졸들이 두려워하며 복종하였 다. 신립에게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일의 뒤를 따르도록 하여 두 장군이 연합하 면 적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 잘못된 계책은 아니었다. 불행히도 경상도 의 수군과 육군의 장수들이 모두 나약하였다. 바다에 있는 군대 중 좌수사 박홍은 군사 한 명도 내보지 않았고. 우수사 원균(元均)은 뱃길이 좀 멀기는 하나 이끄는 함선은 무척 많았는데도 지원하지 않았다. 게다가 적병이 한꺼번에 오고 우리 군

사도 다 전진시켜 군대의 위력을 과시하며 서로 맞서는 상황도 아니었다. 우리 측이 한 번이라도 나아가 이겼다면, 적은 당연히 후방을 고려하여 단번에 깊숙이 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사는 멀찌감치 피해 바라보기만 할 뿐 한 번도 교전하지 않았다.

적이 상륙했을 때 좌우병마사 이각과 조대곤은 도망치거나 체직(遞職)되었다. 그러니 적병은 북을 울리며 사람 없는 수백 리 땅을 짓밟으며 밤낮으로 북상한 것이다. 그사이 어느 한 곳에서도 적을 맞아 제대로 싸우지 않아 적의 기세를 늦추지못했다. 열흘도 안 되어 적은 이미 상주에 닿았다. 이일은 외부에서 온 장군으로휘하 병사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 갑자기 싸우게 되었으니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했다. 신립이 충주에 도착하기 전 이일이 먼저 패하였다. 앞뒤로 의지할 곳을 잃었으니 이 때문에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 아아, 슬프도다!

후방에서 들으니 적들은 상주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험한 곳을 지나길 꺼린 다고 하였다. 문경현(聞慶縣) 남쪽 10리쯤 되는 곳에 고모(姑母)라는 오래된 성이 있는데, 좌도와 우도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곳으로 양쪽 골짜기는 한데 묶어 놓은 듯하고 중간에 큰 개천이 흐르고 길은 그 아래로 나 있었다. 적은 매복이 있을 거라 보고 사람을 시켜 두세 번 살폈다. 그러나 군사가 없는 것을 알자 노래하고 춤추며 지나갔다고 한다.

후에 명나라 장수인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적을 추격하는 길에 조령을 지나다가 "이처럼 험한데 장수가 지킬 줄 몰랐으니 신립 총병(總兵)도 지모(智謀)가 없는 이로다"라며 탄식했다. 신립이 비록 날렵하고 용맹스러워 당시 명망을 얻고 있었지만 책략은 그의 장기가 아니었다. 옛사람이 "장수가 병법을 모르면 제 나라를적에게 넘겨준다"고 하였다. 이제 후회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지만 훗날의 경계가될 만하기에 모두 기록한다.

임금의 피란

4월 30일 새벽, 임금의 가마가 서쪽으로 이동했다. 신립이 떠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승리했다는 보고가 오길 기다렸다. 전날 저녁 전립을 쓴 세 사람이 말을 달려 숭인문(崇仁門)에 들어왔다. 성안의 사람들이 다투어 전방의 소식을 문자 대답하였다.

"저는 순변사 군관의 노복입니다. 순변사께서는 어제 충주에서 패하여 돌아가셨고, 군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희들만 몸을 빼내 돌아온 것은 가족들에게 피란 가라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듣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지나는 곳마다 전하고 알려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성안이 다 들썩거렸다. 땅거미가 질 무렵임금께서 중신들을 소집하여 도성을 나가 피란할 것을 의논하였다. 임금께서 동쪽 바깥채로 나와 바닥에 앉으셨고, 등불과 촛불을 켜놓은 채 종실(宗室)인 하원군(河原君), 하릉군(河陵君) 등이 임금을 뫼시고 앉았다. 대신들이 사태가 여기까지이르렀으니 어가(御駕)를 잠시 평양으로 행차했다가 명나라 조정에 군대를 청하여수복하기를 도모하자고 계를 올렸다. 장령(掌令) 권협(權俠)⁷³이 면대하기를 청하고는 무릎을 바짝 들이댄 채 서울을 굳게 지키자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사뭇 거칠었다. 내가 말했다.

"아무리 위험하고 어지러운 때에 있다지만 군신 사이의 예가 이 같아서는 안 되네. 조금 물러나서 말씀 올리게."

권협이 연이어 외쳤다.

"좌상께서도 그리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서울을 버려도 된다는 겁니까?" 내가 임금께 아뢰었다.

"권협의 말은 매우 충성스럽습니다만 사태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왕자들을 여러 도(道)로 나누어 보내 나랏일을 돕도록 호소하게 하고, 세자

⁷³ 권협(權俠): 1553~1618,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서울을 사수하자고 주장했다. 정유재란 이 일어나자 명나라에 가 원병을 요청했고 이에 성공했다.

는 어가를 따르게 하자고 청하였다. 논의를 정하자 대신들은 궁궐문 밖으로 나가 성지를 받들었다. 임해군(臨海君)은 영부사(領府事) 김귀영(金貴榮), 칠계군(漆溪君) 윤탁연(尹卓然)과 함께 함경도로 가고, 순화군(順和君)은 장계군(長溪郡) 황정욱(黃廷彧), 호군(護軍) 황혁(黃赫), 동지중추부사 이기(李堅)와 함께 강원도로 가기로 했다. 황혁의 딸이 순화군의 부인이었고 이기는 원주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한편 우의정이 유도대장(留都大將)이 되어 서울을 지키고, 영의정(領議政)과 당상관(堂上官) 수십 명이 임금의 수레를 따르라고 지시받았다. 나는 명령 받은 게 없었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 수레를 따르는 데 내가 없으면 안된다고 아뢰어 함께 떠나라는 명이 내렸다.

내의원(內醫院) 조영선(趙英璇), 승정원(承政院) 아전(衙前) 신덕린(申德獜) 등 10 여 명은 서울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갑자기 이일의 장계가 도착했으나 궁중의 위사들은 모두 흩어져 경루(更漏)⁷⁴조차 울리지 않았다. 선전관청(宣傳官廳)에서 횃불을 얻어 장계를 읽어보니, 적이 오늘내일 도성에 당도할 것이라 하였다.

장계를 올린 지 한참 후 가마가 나왔다. 삼청 75 의 금군이 분주히 나아가느라 어두 침침한 가운데 서로 부딪쳤다.

마침 우림위 지귀수(池貴壽)가 앞을 지나가기에 내가 알아보고 꾸짖으며 임금의 가마를 따르라고 명하였다. 지귀수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며 자기 부하 두 사람을 데려와 뒤를 따랐다. 경복궁 앞을 지날 때 시가지 양쪽에서 곡성이 계속 들 렸다. 승문원(承文院) 서원(書員) 이수겸(李守謙)이 내 말고삐를 잡고 승정원(承政院)의 문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중요한 것들을 수습해서 따라오라고 하자 이수겸이 울면서 갔다. 돈의문(敦義門)을 나와 사현(沙峴)에 도착할 즈음 동이 텄다.

성안을 돌아보니 남대문 안 큰 창고에 불길이 일어나 연기와 화염이 공중으로 치

74 경루(更漏) : 조선시대에 시간을 알리는데 쓰던 물시계.

75 삼청 :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우림위(羽林衛).

솟고 있었다. 사현을 넘어 석교에 이르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기 감사 권장 (權徵)이 뒤따라와 임금 수레를 호위하였다. 벽제역(碧蹄驛)에 이르러서는 비가 거세져 일행은 흠뻑 젖었다. 임금께서 역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셨다. 이때부터 도성으로 돌아가는 관리들이 많아졌고, 시종하는 대간들도 자꾸 뒤처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혜음령(惠陰嶺)을 지날 무렵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궁인들이 약한 말을 탄 채 물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으면서 지나갔다. 마산역 (馬山驛)을 지날 때 어떤 사람이 밭 가운데 있다가 멀리서 바라보고 통곡하며 말했다.

"나라가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임진강에 이르도록 비가 그치지 않았다. 임금께서 배 안에서 영의정과 나를 불러입대(入對)하셨다. 강을 건넜을 때는 날이 어두워져 모습을 분별할 수 없었다. 임진강 남쪽 언덕에 옛날부터 승청(丞廳)⁷⁶이 있었는데 적이 나무를 가져다가 뗏목을 만들어 건너지 않을까 걱정되어 불태우라고 명했다. 불빛이 강 북쪽을 비쳐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초경에 동파역(東坡驛)에 도착했다. 파주 목사 허진(許晉), 장단 부사 구효연(具孝淵)이 접대를 위해 파견되어 와 그곳에 부엌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굶주린 호위병들이 부엌에 난입하여 마구 먹어치웠다.

임금께 바칠 음식마저 없어지려 하자 허진과 구효연은 도망가 버렸다.

5월 1일 아침, 임금께서 대신들을 불러들였다. 남쪽 지방 순찰사 중에 나랏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자가 있는지를 물으셨다. 해가 저물어 임금의 수레가 개성을 향해 출발하려는데 경기도의 아전과 군졸들이 뿔뿔이 도망쳐 호위할 사람이 없었다. 마침 황해 감사 조인득(趙仁得)이 황해도 군사들을 이끌고 와 도우려 하였다. 서흥(瑞興) 부사 남의(南嶷)가 먼저 도착했는데 군졸 수백 명에 말이 5, 60필이 되었다. 길을 떠나려 할 즈음 사약(司鑰)™ 최언준(崔彦俊)이 나와 말했다.

76 승청(丞廳): 나루터를 관리하는 관청.

77 사약(司鑰): 궁중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는 직책.

"궁중 사람들이 어제도 먹지 못했고 오늘도 먹지를 못하였습니다. 쌀을 조금이라 도 구해 허기를 달래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의 군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찾아서 대미(大米)와 소미(小米)가 섞인 쌀 두세 되를 들였다.

정오에 초현참(招賢站)에 이르렀다. 조인득이 조회하러 왔다. 그는 길에 장막을 치고 일행을 맞이하였다. 따라온 관원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저녁 무렵 개성부(開城府)에 이르러 임금께서 남문 밖 공서(公署)에 납시었다. 대간들이 번갈아 상소를 올려 영의정이 외교 관계에서 나라의 일을 그르친 죄를 탄핵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다음 날 대간들은 영의정이 물러났다고 아뢰었고, 내가 영의정으로 임명되었으며, 좌의정에는 최흥원(崔興源)이, 우의정에는 윤두수(尹斗壽)⁷⁸가 임명 되었다. 함경 북도(咸鏡北道) 병마사(兵馬使) 신할(申硈)은 교체되었다. 이날 낮에 임금께서 남 성문(南城門) 문루에 납시어 백성들을 위로하셨다. 각기 가슴에 품은 생각을 말하라고 하시자 한 사람이 나와 엎드렸다. 무슨 일인지 묻자 대답하였다.

"정 정승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정철(鄭祐)[™]은 강계에 귀양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다. 임금께서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정철을 행재소(行在所)[®]에 불러오도록 명하시고, 저녁에 궁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는 내 죄를 물어 파직하고 유홍을 우의정에, 최흥원과 윤두수를 차례로 승진시켰다. 적군이 아직 서울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 들려오자 몽진이 잘못된 거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승지(承旨) 신잡(申磼)을 서울로 들여보내 형세를 살피도록 하였다.

그러나 3일, 적은 서울에 들어섰다. 유도대장 이양원, 원수(元帥) 김명원 모두 달

⁷⁸ 윤두수(尹斗壽): 1533~1601.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했다.

⁷⁹ 정철(鄭斌): 1534~1602,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금의 부름을 받아 임금을 호 중했다.

⁸⁰ 행재소(行在所): 임금의 임시 거처.

아나 버렸다. 처음에 적군은 동래에서 세 갈래로 나누어 진격하였다. 한 갈래는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인동, 선산을 거쳐 상주에 이르러 이일의 군대를 패배시켰다. 한 갈래는 좌도의 장기, 기장을 거쳐 좌병영의 울산, 경주, 영천, 신녕, 의흥, 군위, 비안을 함락시키고 용궁과 하풍진을 건너 문경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가운데 길로 올라 온 부대와 합친 후 조령을 넘어 충주로 들어갔다. 충주에서 다시 두길로 나누어 하나는 여주로 달려 강을 건너고 양근에서 용진을 건너 서울 동부로들어왔다. 다른 하나는 죽산, 용인으로 달려 한강 남부로 들어왔다. 남은 한 갈래는 김해를 거쳐 성주, 무계현에서 강을 건너 지례, 금산을 지나 충청도 영동으로나와 진격하여 청주를 함락시키고 경기도로 향했다.

적의 깃발과 창칼이 천 리에 이어졌고 포성이 그치지 않았다. 어떤 때는 10리마다 어떤 때는 5, 60리마다 모두 험한 지세를 이용해 군영의 울짱을 치고 군사를 남겨 지키게 하였고, 밤이면 횃불로 서로 연락하였다.

도원수 김명원(金命元)⁸¹은 제천정(濟川亭)에서 적이 오는 것을 바라보았으나 감히 싸우지 못하고, 군기와 화포 등 군 장비를 모두 강에 던져 넣고 옷을 바꾸어 입고 도망쳤다. 종사관(從事官) 심우정(沈友正)이 말렸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양원은 한 양성(漢陽城)에 있다가 한강의 군대가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역시 양주로 도망쳤다.

이에 앞서 강원도 조방장 원호(元豪)는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여주(驪州)의 북쪽 언덕을 지키면서 적과 대치하였다. 며칠이 지나도 적은 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런 데 강원도 순찰사 유영길(柳永吉)이 격문을 띄워 원호를 강원도로 돌아오게 했다. 적은 마을의 민가와 관사를 부수어 가옥의 재목을 거두어다 긴 뗏목을 만들어 강 을 건넜다. 건너다가 물길에 휩쓸려 죽은 자가 매우 많았으나 원호는 이미 떠났고 강가에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며칠에 걸쳐 적들은 강을 건넜다. 그 리하여 세 갈래로 나뉘어 진격하던 적병이 모두 서울에 입성하였다. 서울에는 백

⁸¹ 김명원(金命元): 1534~1602.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진강 방어전을 펼쳐 왜적의 침략을 지연시켰다.

성이 모두 흩어져 떠났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

김명원은 한강을 잃은 후 행재소를 향하였다. 임진강에 이르러 상황을 알리는 장계를 올렸다. 임금께서는 다시 경기도와 황해도의 군대를 징발하여 임진강을 수비하도록 명령하였다. 또 신할에게도 적이 서쪽으로 향하는 길을 막으라 명하셨다. 이날 임금의 수레는 개성(開城)을 떠나 금교역(金郊驛)에 당도하였다. 내 비록 파직(罷職)당했으나 감히 뒤처질 수는 없어 나흘을 따라 움직였다. 수레가 흥의(興義), 금암(金巖), 평산부(平山府)를 지나 보산역(寶山驛)에 멈추었다.

앞서 개성을 떠날 무렵 급하게 서두른 바람에 종묘(宗廟)의 신주(神主)를 목청전 (穆淸殿)에 남겨둔 채 떠났다. 종실(宗室) 가운데 한 사람이 울부짖으며 적의 수중에 신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밤새 말을 달려 개성으로 가 봉환(封還)하였다.

5일, 임금의 수레가 안성(安城)과 용천(龍泉), 검수역(劍水驛)을 지나 봉산군(鳳山那)에서 멈추었다.

6일, 전진하여 황주(黃州)에서 멈추었다.

7일, 중화(中和)를 지나 평양성에 입성했다.

삼도 순찰사의 대패

삼도 순찰사의 군대가 용인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다.

앞서 전라도 순찰사 이광(李洸)이 전라도 군사들을 이끌고 구원하러 오다가 임금의 수레가 서쪽으로 떠났고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거두어 전라도로 돌아갔다. 도내 사람들 가운데 이광이 싸우지도 않고 돌아왔다고 비난하며 불평하는 자가 많았다. 이광이 마음이 편치 않아 다시 군대를 징발해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尹國馨)과 합병하여 진격하였다. 경상도 순찰사 김수 역시 경상도에서 군관 수십여 명을 이끌고 함께하러 왔다.

군사 총 5만여 명이 용인에 이르러서 북두문산(北斗門山)을 바라보니 위에 적의

작은 보루가 있었다. 이광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먼저 용사 백광언(白光彦)과 이시 례(李時禮) 등을 시켜 한번 싸워보게 하였다. 백광언 등이 선봉대를 이끌고 산에 올라 적의 보루에서 10여 보 떨어진 곳에서 말에서 내려 활을 쏘았다. 적군이 나오지 않은 채 날이 저물었다. 그러나 적은 백광언 등이 조금 해이해진 것을 보고 날 카로운 칼을 빼어들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돌격해 왔다. 백광언 등은 급히 말을 찾아 도망치려다 모두 적에게 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군사들은 크게 놀랐다. 당시 세 순찰사가 모두 문인이라 병무에 익숙하지 못해 군사 수는 많았지만 명령이 통일되지 않았다. 게다가 험한 곳에 의지하여 방비를 하지 않았다. 진실로 옛사람들이 말한 "군대의 항오가 봄놀이 같으니 어찌 패하지 않으라?"였다.

다음 날 아군이 겁먹은 것을 안 적군 중 몇 사람이 용력(勇力)을 과시하려 칼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왔다. 삼도의 군사들은 그저 도망하기에 바빴는데, 그 소리에 산이 무너질 듯했다. 버려진 군수품과 군 장비가 길을 막아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였고, 적이 다 가져가거나 불태웠다. 이광은 전라도로 돌아가고 윤국형은 공주로 돌아가고 김수는 경상우도로 돌아갔다.

부원수(副元帥) 신각(申恪)이 양주에서 적과 싸워 적 60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선전관(宣傳官)⁸²을 보내 군영에서 그를 참수하였다. 신각은 원래 김명원의 부관이었다. 한강에서 패배하고 난 후 신각은 김명원을 따르지 않고이양원을 따라 양주로 갔다. 마침 함경남도 병마사 이혼(李渾)의 군대가 그곳에 와군대를 합쳤다. 서울에서 흩어져 여염집을 노략질하는 적들과 마주쳐 격파하였다. 왜군이 우리나라에 침입한 이후 처음으로 거둔 승리라 사람들이 모두 기뻐서 펄쩍 펄쩍 뛰었다.

한편 김명원은 임진에 있으면서 신각이 제멋대로 다른 곳으로 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장계하였다. 우의정 유홍(俞泓)이 신각을 죽이기를 청하여 선전관이 떠났는데 승전보가 당도한 것이다. 조정에서 선전관을 따라잡아 저지하려 했으나 놓

82 선전관(宣傳官) : 왕의 시위(侍衛), 전령(傳令), 부신(符信)의 출납 등을 맡아보던 무관.

쳤다. 신각이 무인이기는 하나 평소 청렴하고 신중하였다. 연안 부사였을 때 성을 수축하고 해자를 팠으며 군 장비를 많이 갖추어 놓았다. 나중에 이정암(李廷麓)이 연안을 수비했을 때 온 성의 사람들이 신각의 공로라고 하였다. 죽음이 정당한 벌이 아니었고, 또 구십 노모가 있었으니 듣는 자마다 통탄해 마지않았다.

그 후 조정에서는 지사 한응인(韓應寅)⁸⁸에게 평안도 강변의 정병 3천 명을 이끌고 임진으로 가 적을 치도록 하였는데 김명원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당시 한응 인은 명나라에 갔다가 막 돌아왔는데, 좌의정 윤두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 생김새에 복스러운 기운이 있으니 분명 일을 잘 수행할 것이오."

한응인과 김명원의 군대는 임진강에서 패했고 적은 강을 건넜다.

앞서 김명원은 임진강 북쪽에 있으면서 군사들에게 강가에 줄지어 방비하라 분부하고 강에 있는 배를 거두어 북쪽 강기슭에 매어두었다. 이러하니 임진강 남쪽에 진영을 짠 적은 건널 배가 없었다. 다만 유격대를 내보내 강 너머에서 교전하였다. 서로 대치한 지 10여 일이 되었으나 적은 끝내 강을 건널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적이 강가의 여막을 불태우고 군막을 철거하고 군기를 싣는 등 퇴각하는 모양을 꾸며 아군을 유인하였다. 본래 무예는 뛰어났으나 지모가 없는 신할은 적이 정말로 도망가는 줄 알고 강을 건너 추격하려고 하였다. 경기 감사 권징이 신할과 뜻이 맞아 김명원이 말릴 수 없었다.

이날 한응인 또한 군사를 다 이끌고 적을 추격하려 하였다. 한응인이 거느린 군사는 모두 북쪽 오랑캐와 싸움을 많이 해 본 강변의 건아들로 전쟁의 진영과 지리적 인 상황에 다 익숙하였다. 그들이 한응인에게 말했다.

"군사들이 먼 곳에서 오느라 많이 지쳤습니다. 아직 밥도 먹지 않았고 군 장비가 정리되지도 않은 데다 후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의 상황이 진

⁸³ 한응인(韓應寅): 1554~1614,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의 출발을 요청하고 접빈 관으로 이여송(李如松)을 맞았다.

짜인지 거짓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내일 형편을 보아서 싸웁시다." 한응인이 군사들이 게으름을 부린다고 생각해 몇 사람 목을 베었다. 한응인이 새로 조정에서 왔고 자기의 지휘를 받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김명원은 안된다는 것을 알아도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별장 유극량(劉克良)⁸⁴은 연로하고 전쟁에 익숙하였다. 가볍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극구 말하자 신할이 베어 죽이려 하였다. 유극량이 말했다.

"제가 상투를 올린 뒤로 군대를 따라다녔는데 어찌 죽음을 피하려 하겠습니까? 이 러저러한 말씀을 드린 까닭은 나랏일을 그르칠까 두려워서일 뿌입니다."

신할이 화를 내며 나가더니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먼저 건넜다. 아군이 험한 곳에 들어서고 나니 적들은 과연 산배미에 정예병을 매복해 두었다가 동시에 기습을 해 왔다. 우리 군사들은 모두 도망쳤다. 말에서 내린 유극량은 땅바닥에 앉더니 "여기가 내 죽을 곳이로구나!" 하며 활을 당겨 적 몇 명을 쏘아 맞히고는 적에게 살해당했다. 신할도 죽었다. 달아난 군사들은 강기슭으로 달려갔으나 건널 수 없었다. 바위 위에서 강으로 뛰어내렸는데, 마치 바람에 낙엽이 어지럽게 날리는 것같았다. 미처 강에 뛰어들지 못한 자는 적이 뒤에서 휘두르는 긴 칼을 맞고 죽었다. 모두 엎드린 채 칼을 맞아 감히 저항하는 자가 없었다.

강 건너 북쪽에서 이를 바라본 김명원과 한응인은 사기를 잃고 말았다. 이때 상산 군(商山君) 박충간(朴忠侃)이 군중 속에 있다 말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를 본 군사들은 도망하는 이가 김명원이라 여겨 모두 "원수께서 도망간다"라고 소리쳤다. 물가를 지키던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흩어졌다. 김명원과 한응인이 행재소에 돌아왔으나 조정에서는 문책도 하지 않았다. 경기 감사 권징 역시 가평군으로 피해 들어가 버렸다. 마침내 적이 승승장구 서쪽으로 밀려왔으나 다시 막을 수는 없었다.

⁸⁴ 유극량(劉克良): ?~1592, 조선시대의 무장으로 임진왜란 때 임진강을 침입한 왜적을 방어하다 전사 했다.

적병이 함경도로 들어오면서 두 왕자는 적에게 잡혔다. 이들을 수행한 신하 김귀영, 황정욱, 황혁과 함경도(咸鏡道) 감사 유영립(柳永立), 북병마사(北兵馬司) 한극함(韓克誠)⁸⁵ 등도 모두 잡혔다. 남병마사 이혼은 도주했다가 갑산(甲山)에서 우리백성들 손에 죽었다. 함경도 군현이 모두 적에게 함락되었다.

왜어 통역하는 사람 중에 함정호(咸廷虎)라는 자가 있는데 서울에 있다가 적장(敵將) 가토 기요마사의 포로가 되어 함경북도까지 다녀왔다. 그러다 적이 물러날 때서울로 도망쳐 돌아온 그는 나를 만나 함경북도의 일에 관해 자세히 말해 주었다. 가토 기요마사는 적장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사나우며 싸움을 잘했다. 그는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임진강을 건너 황해도 안성역(安城驛)에 도착했는데 양계(兩界)를 나누어 빼앗기로 계획했지만 어느 곳으로 향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두 적장이 제비뽑기를 해 고니시는 평안도로, 기요마사는 함경도로 가기로 했다.

기요마사는 안성의 거주민 두 사람을 길잡이로 삼으려 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북쪽 길에 익숙지 못하다고 사양하자 기요마사는 곧바로 한 사람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두려워서 앞장서기를 청하였다. 그들은 곡산에서 노리현(老里峴)을 넘어 철령(鐵嶺) 북쪽으로 나섰다. 하루에 수백리씩 가는데 그 기세가 폭풍우 같았다.

북도 병마사 한극함이 6진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다가 해정창(海汀倉)에서 적과 마주쳤다. 북쪽 군사인 6진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데 마침 그 지역이 평탄하고 넓었다. 좌우에서 번갈아 나서며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대니 적은 버티지 못하고 창고로 퇴각해 들어갔다. 해가 이미 저물 때라 군사들은 잠시 쉬며 적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날 다시 싸우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한극함은 이를 들어주지 않고 군사를 지휘하여 창고를 포위했다.

적군은 창고의 곡식을 꺼내 빙 둘러 성처럼 쌓은 다음 그 안에서 화살과 돌을 피하면서 조총을 마구 쏘아댔다. 겹겹이 늘어서 포위하고 있던 우리 병사들은 조총에

⁸⁵ 한극함(韓克誠): ?~1593,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마절도사로 해정창(海汀倉) 에서 왜적과 싸우던 중 도주했으나 포로가 됐다.

맞았고, 어떤 경우에는 탄환 하나가 서너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다. 우리 군대는 마침내 대패하고 말았다. 그제야 한극함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고개 위에 물러나 진을 쳤다. 날이 밝으면 다시 싸울 생각이었다.

그러나 적은 밤중에 몰래 와서 아군을 포위한 채 수풀 사이에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안개가 짙었다. 아군은 여전히 적들이 산 아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포성 소리가 한 번 들리더니 적병들이 사방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불쑥 일어나는 것이었다. 우리 병사들은 깜짝 놀라 뿔뿔이 흩어져버렸다. 장수와 군사들은 적이 없는 곳을 향해 달아나다 늪에 빠졌고, 적들이 몰려와서 베어버리 니 죽은 자가 셀 수 없었다. 한극함은 경성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끝내 적에게 사로 잡히고 말았다.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은 함께 회령부에 도착했다. 순화군은 처음에 강원도에 있었는데 적병이 강원도를 침입해서 함경북도로 피해 간 것이다. 당시 적은 왕자를 끝까지 추격하였다. 그런데 회령부 아전 국경인(鞠景仁)이라는 자가 자기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왕자와 수행하는 신하들을 포박해 적에게 넘겼다. 적장 기요마사는 그들의 결박을 풀어 군영에 두고 함흥으로 돌아와 진을 쳤다. 칠계군 윤탁연만이 도중에 병을 핑계로 다른 길로 가 별해보(別害堡) 깊숙이들어갔다. 동지중추부사 이기는 왕자를 따라가지 않고 강원도에 남아 있었기에 잡히지 않았다. 유영립이 적중에 억류된 지 며칠째, 적군은 그가 문관이라 감시를 조금 소홀히 하였다. 그는 기회를 틈타 탈주하여 행재소로 돌아왔다.

이일이 평양에 도착했다. 그는 충주에서 패한 후 강을 건너 강원도 경계를 지나 전전하다가 행재소로 왔다. 당시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장수들은 도주하거나 죽어서 어가를 호위할 사람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곧 적이 올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모두들 두려워했다. 이일은 무장 가운데 평소 명망이 두터웠다. 비록 패주하여 왔으나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싸움에서 여러 번패해 고초를 겪고 도망을 다니다 온 이일은 패랭이를 쓰고 흰 베적삼에 짚신을 신었는데 모습이 초췌하여 보는 사람마다 탄식하였다. 내가 말했다.



철릭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이곳 사람들이 그대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위었으니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겠소?" 배낭을 뒤져 남색 비단 철 릭⁸⁶을 주었다. 그러자 다른 이들이 말총 모자를 주기도 하고 은정자(銀頂子), 채색 갓끈을 주기도 하여 옷차림을 새롭게 갖

추었다. 신을 벗어 주는 사람만은 없어 여전히 짚신을 신은 채였다. 내가 웃으며 "비단옷에 짚신이라 어울리지 않는구려"라고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그때 벽동(碧潼)의 현지 군사 임욱경(任旭景)이 적군이 봉산에 이르렀음을 고했다. 내가 좌의정에게 말했다.

"적의 척후병이 이미 강 밖까지 왔소. 여기 영귀루(詠歸樓) 아래 강물이 두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데, 한쪽은 물이 얕아 건널 만하오. 만일 적이 우리 백성 중에 길잡이를 구해 몰래 건너 갑자기 닥치면 성이 위험하오. 어서 빨리 이일 장군을 파견해 얕은 개울을 지켜 만일의 사태를 방비하도록 하시오."

윤공이 "그렇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이일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이일이 거느리고 온 강원도 군사가 겨우 수십 명에 불과해 다른 군사를 보냈다. 이일은 함구문(含毬 門)에 앉아 군사를 점호하느라 즉시 떠나지 않았다. 내가 급박한 사태를 걱정하여 사람을 보내 살펴보았더니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연이어 윤공에게 재촉해서야 이일은 비로소 출발하여 성을 나섰다. 길잡이가 없어서 강 서쪽 길로 잘못 가다가 우연히 밖에서 오는 평양 좌수 김내윤(金乃胤)을 만나 그를 앞장세웠다. 그의 안내로 만경대(萬景臺) 아래 이르렀는데 그곳은 성에서 겨우 10 여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멀리 대동강 남쪽 기슭을 바라보니 적병 수백 명

86 철릭: 무관이 입던 공복으로 당상관은 남색, 당하관은 홍색.

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다. 강 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놀라 소리 지르며 뿔뿔이 도망쳤다. 이일이 무사 10여 명에게 서둘러 섬으로 들어가 활을 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군사들은 겁을 먹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일이 검을 빼어들고 베려고 한 후에야 섬으로 들어갔다. 적은 이미 강을 건너고 있었다. 아군이 급히 강궁(强弓)을 쏘아 연이어 예닐곱 명을 쓰러뜨렸다. 이를 본 적군은 물러가고 이일은 남아서 나루 입구를 지켰다.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다

임금께서는 임세록(林世錄)을 대동관(大同館)에서 접견하셨다. 5월에 파직되었다가 6월 초에 등용된 나는 이날 명을 받들어 중국의 장수를 접대하였다. 당시 요동에서는 왜군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이서울을 지키지 못하고 서쪽으로 피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는 또 왜병이이미 평양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매우 의심스러워했다. 왜가 아무리강해도 이처럼 빠르게 올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왜병을 앞에서 인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월이선유도(김홍도 작) ©국립중앙박물관 대동강에서 벌어진 평양감사 환영잔치를 그린 그림이다. 왼쪽에 있는 대동문, 연광정, 성문, 부벽루 등의 풍경은 평양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임세록과 나는 연광정(練光亭)⁸⁷에 올라 멀리서 형세를 관찰하였다. 어떤 왜병 하나가 강 동쪽의 숲 사이에서 별안간 나타났다가 숨고, 이윽고 두세 명의 왜군이 다시 나와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데 태도가 편안하고 한가하여 마치 길 가다가 휴식하는 모습 같았다. 내가 가리키며 임세록에게 말했다.

"저들이 왜의 척후병입니다."

그는 기둥에 기대 바라보다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왜병이 어찌 저리 적소?"

내가 말했다.

"왜병이 교활하고 간사하여 많은 군사가 뒤에 있어도 정탐하러 보내는 자는 몇 명이 안 됩니다. 저들이 적은 것을 보고 소홀히 하다가는 적의 술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임세록이 "그렇군, 그렇군" 하면서 자꾸 물어보더니 말을 달려 떠나갔다. 조정에서는 좌의정 윤두수에게 명하여 도원수 김명원, 순찰사 이원익 등을 거느리고 평양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며칠 전 어가가 다시 피란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성안 백성들이 뿔뿔이 도망쳐 골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자 임금께서는 세자에게 명해 대동관 문밖으로 나가 성안의 연장자들에게 성을 굳건히 지키자고 말하게하였다. 연장자들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세자 저하의 말씀만으로는 백성들이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야 믿을 것입니다."

다음 날 임금께서 부득이 대동관 문으로 행차하셨다. 승지에게 명령하여 전날과 같은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연장자 수십 명이 절하며 엎드려 통곡했다. 명을 받들 고 물러나가 각각 사람들을 부르러 나섰다. 산골짜기에 숨어있던 백성들을 다 데 리고 들어오니 성이 가득 찼다. 적이 대동강 강변에 모습을 드러내자 재신(宰臣)인 노직(盧稷) 등이 종묘사직의 위패를 받들고 궁을 지키는 사람들과 먼저 나갔다.

그러자 성안의 아전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다. 칼을 휘두르며 길을 막아서기도

⁸⁷ 연광정(練光亭) : 평양의 대동강에 있는 누각으로 대동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바위 위에 있다.

했다. 함부로 내려쳐 종묘사직의 신주를 길에 떨어뜨리고 따르는 재신들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희들이 평소에는 나라의 녹을 도둑질하더니 이제는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속이 는구나."

내가 연광정에서 행궁으로 가는 길에 보니,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성을 버릴 것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속여 성으로 끌어들였느냐? 적의 수중에 먹이로 던져주려는 것이냐?"

궁문에 이르니 난을 일으킨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모두 어깨를 드러낸 채 병장기를 들고서 사람을 보는 대로 내려쳤다. 어지럽게 뒤섞여 소란스러웠으므로 그만두게 할 수 없었다. 문 안 묘당에 있던 여러 재신은 파랗게 질린 채 뜰에 서 있었다. 나는 난을 일으킨 백성들이 궁 안으로 들어올까 걱정되어 문밖 계단에 나가 서 있었다. 그중에서 나이가 든 수염이 많은 자를 보고서 손짓하여 불렀다. 그가 곧바로 왔는데, 그 지방 관리였다. 내가 타일렀다.

"너희들이 힘을 다해 성을 지킨다면 어가도 성을 나가길 원치 않을 것이다. 나라를 위하는 충성이 지극하다만 이 때문에 난을 일으켜서, 궁문에서 소란을 피우기까지하니 사태가 너무 놀랍구나. 그리고 조정에서 방금 굳건히 지키자고 청을 올려 임금께서 이미 허락하셨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이같이 구는 것이냐? 네 모습을 보니사리를 아는 사람 같구나. 이런 뜻을 여러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그 사람이 곧 병장기를 버리고 손을 모으며 말했다.

"소인이 성을 버리려 한다는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하여 이렇게 함부로 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 소인이 비록 멍청하기는 하여도 속이 확 트입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을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조정의 신료들은 적병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가서 피하자고 청하였다. 양사와 홍문관이 연일 문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했다. 특히 인 성부원군(寅城府院君) 정철(鄭澈)은 누구보다도 피란을 주장하였다. 내가 말했다.

"지금 형편은 전에 서울을 떠날 때와는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군인과 백성들이 모두 도주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앞에 강물이 막고 있고 민심은 매우 굳건합니다. 더욱이 명나라와 가깝습니다. 며칠만 굳게지킨다면 명나라 군대가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니 도움을 받아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의주로 간다면 더욱 의지할 곳이 없어 일이 분명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좌의정 윤두수가 나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내가 또 정철에게 청하였다.

"평소 공이 의기가 있어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소. 오늘 이런 의견을 내다니 정말 뜻밖이오."

윤두수가 문산(文山)8의 시 한 구절을 읊었다.

"내 검을 빌려 아첨하는 신하를 베려 하노라."

인성부원군(寅城府院君)이 크게 노해 소매를 펼치고 일어났다. 평양 사람들도 이러한 나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날 내 말을 듣고서 순종하여 물러난 것이다. 저녁 무렵 나는 감사 송언신(宋言慎)⁸⁸을 불러 난민을 진정시키지 못한 것을 질책하였다. 송언신이 주모자 세 사람을 적발하여 대동문(大同門) 안에서 참수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흩어져 떠났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성을 떠나기로 결정했으나 어디로 갈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함경북도가 땅이 궁벽하고 길이 험하여 적병을 피할 만하다고 말하는 조정 신료가 많았다. 당시 함경도는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갔지만, 도로가 통하지 않았고 변고를 보고하는 자가 없어 조정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동지중추부사 이희득(李希得)이 영흥(永興) 부사로 있을 때 선정을 펼쳐 민심을 얻었다고 하여 그를 함경도 순찰사로 삼고, 함경북도에 있는 병조좌랑 김의원(金義元)을 종사관으로 삼았다. 왕비 및 궁빈 이하가 앞서 북쪽을 향해 떠났다. 나는 강하게 간연

⁸⁸ 문산(文山): 남송(南末) 말기의 충신 문천상(文天祥)의 호.

⁸⁹ 송언신(宋言慎): 1542~1612,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명종 때 불교를 배척했다. 정여립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1589년에 파직됐다.

하였다.

"어가가 서쪽으로 온 것은 본래 명의 군대에 기대어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명나라 조정에 지원병을 청해 놓고 함경북도 깊숙이 들어가셔 버리면 중간에 적병이 가로막아 명나라 조정과 연락할 길이 없는데 어찌 수도를 되찾을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적병이 여러 도에 흩어져 출몰하고 있는데 북도에 적병이 없으리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불행히 그곳에 들어갔다가 적병이 추격해 오면 다른 갈 길은 없고 북쪽 오랑캐밖에 없으니 어디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위급함이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정 신료의 가속(家屬)이 북도로 많이 피란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사사로운 생각으로 모두 북쪽으로 가는 것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노모가 계신데 역시 동쪽으로 피란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계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강원도, 함경도 사이에 흘러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사로운 계획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찌 북쪽으로 향해야 하는 사정이 없겠습니까? 단지 국가의 대계를 말씀드린다면 다른 신하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임금께서 측은하게 여기며 말씀하셨다.

"경의 어미는 어디에 있는가? 내 탓이로다."

내가 물러나온 뒤 지사 한준(韓準)이 임금을 면대하기를 청하여 북쪽으로 가면 편리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중전께서 함경도를 향해 떠난 것이다.

그때는 적병이 대동강에 이른 지 사흘이 되었을 때다. 우리들이 연광정에서 강 너머를 바라보니 어떤 왜병 하나가 나무 끝에 작은 종이를 매달아 강의 모래 위에 꽂았다. 화포장(火砲匠) 김생려(金生麗)에게 명해 조각배를 타고 가서 주워 오게 하였다. 왜병은 무기도 지니지 않은 채 김생려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며 등을 두드리면서 친근하게 굴더니 서신을 주어 전송하였다. 서신을 가져왔으나 좌의정 윤두수가 열어 보려 하지 않았다. 내가 "열어본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펴보니 서면에 '조선국 예조판서 이공 합하께,'라고 씌어 있었다. 이덕형에게 보내는 편지로 야나가와 시게노부와 겐소가 쓴 듯 하였다. 이덕형을 만나 강화를 의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덕형은 조각배를 타고 야나가와 시게노부와 겐소를 강

한가운데에서 만났는데 편하게 서로 안부를 물었다. 겐소가 말했다.

"일본이 본래 길을 빌려 중국에 조공하고자 한 것인데 조선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여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길을 열어 일본이 명나라에 닿을 수 있게 한다면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이덕형은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질책한 다음 군대가 물러간 후에 강화를 의논 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시게노부의 말이 너무 무례하여 더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헤어졌다. 저녁에 적 수천 명이 강의 동쪽 기슭에 진을 쳤다.

평양성의 함락

6월 11일, 어가가 평양을 나와 영변(寧邊)을 향했다. 대신 최흥원, 유홍, 정철 등이임금을 호위하여 따랐다. 좌의정은 원수 김명원, 순찰사 이원익과 남아서 평양을지켰다. 나도 명나라 장수를 접대하기 위해 남았다.

이날 적은 성을 공격했다. 좌의정, 김 원수, 이 순찰사, 그리고 나는 연광정(練光 亨)에 있었고, 평안도(平安道) 감사 송언신(宋言愼)은 대동성루(大同城樓)를 지켰다. 병마사 이윤덕(李澗德)은 부벽루(浮碧樓)로부터 위쪽 강까지 수비하였고, 지산 군수 유유후(尹裕後) 등은 장경문(長慶門)을 지켰다.

그때 성안에는 사졸과 백성들 도합 삼사천 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성가퀴에 배치했다. 부곡과 항오가 분명하지 않아 성 위에 사람이 드문드문 있기도 하고 빽빽하게 있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 어깨와 등이 서로 부딪쳤고 어떤 경우는 연이은 몇 개의 타(垛)⁹⁰에 한 사람도 없었다. 을밀대(乙密臺) 근처 솔숲에 옷가지를 여기저기 걸어 놓았는데 이를 '허수아비 군사'라고 불렀다

강 너머 적병을 바라보니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았다. 동대원(東大院) 언덕 위에 일자로 진을 치고 홍백기를 줄지어 세워놓았는데, 우리나라 만장(挽章)과 비슷

90 타(垛): 성벽의 튀어나온 부분.

했다. 기병 10여 기가 나와 양각도(羊角島)를 향해 강으로 들어섰다. 강물이 말의 배까지 차는데도 모두 고삐를 잡고 줄지어 서서 강을 건너려는 듯했다. 나머지 적들은 한두 명씩 또는 서너 명씩 강가를 왔다 갔다 했는데 등에 큰 검을 지고 있었다. 검이 햇빛을 반사하여 번쩍거렸다. 이를 본 어떤 사람은 진짜 검이 아니라 나무 검에 백랍으로 광택을 내어 속이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멀어서 단정할 수는 없었다. 또 적병 예닐곱이 조총을 들고 강변에 와서 성을 향해 쏘았는데 소리가 매우 컸고 탄환이 강을 지나 성으로 날아왔다. 어떤 것은 대동관까지 날아와 기와 위에 흩어져 떨어지기도 했다. 수천 보를 날아온 것이다. 어떤 것은 성루 기둥을 맞혔는데 깊이가 몇 치나 되었다. 붉은 옷을 입은 적군 하나가 연광정 위에 여러 공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장수로 알았는지 조총을 겨누고 모래사장까지 와 탄환을 쏘았다. 연광정 위에 있던 두 사람이 조총에 맞았으나 멀었기 때문인지 중상을 입지는 않았다.

내가 군관 강사익(姜士益)에게 명령하여 방패 뒤에서 편전(片箭)⁹¹을 쏘게 했다. 화살이 모래 위까지 날아가자 적이 머뭇거리다가 퇴각했다. 원수 김명원은 활을 잘 쏘는 자를 선발하여 쾌속선에 태우고 적에게 화살을 쏘게 하였다. 배가 점점 동쪽 기슭에 가까워지자 적군도 물러나 피하였다. 아군이 배 위에서 현자총(玄字銃)⁹²을 발사하였다. 서까래 같은 불화살(火箭)⁹³이 강을 지났다. 왜병 무리가 올려다보고는 모두 소리를 지르며 흩어졌다. 화살이 땅에 떨어지자 앞을 다투어 구경하였다. 이날 병선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이유로 공방(工房) 아전 한 사람을 참수하였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강물이 나날이 줄어들었다. 재신을 단군묘(檀君墓), 기자묘(箕子墓), 동명왕묘(東明王廟)에 나누어 보내 기우제를 지냈으나 여전히 비는 오

⁹¹ 편전(片籍): 총통에 넣어 쏘는 하나로 된 짧은 화살.

⁹² 현자총(玄字銃) : 불씨를 손으로 점화해 발사하는 유통식 화기. 그 크기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중화기이다.

⁹³ 불화살(火箭) : 화약통에 화약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인 뒤 시위를 당겨 적선을 불태우는 데 사용했다.

지 않았다. 내가 좌의정 윤두수에게 말했다.

"이곳은 물이 깊고 배가 없어 적이 끝내 건널 수 없을 것이오. 강 상류에 얕은 개천이 많으니 조만간 적은 그곳으로 건널 것이오. 건너면 성을 지킬 수 없소. 삼엄하게 경비해야 할 것이오."

김 원수가 성격이 느긋하여 "이미 이윤덕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라고만 말했다. 내가 이윤덕 무리에 어찌 의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는 이 순찰사에게 지시하였다.

"공들이 한곳에 잔치 자리처럼 모여 앉아 있으면 일에 도움이 안 되오. 가서 강여 울을 지켜야 하지 않겠소?"

이 순찰사가 말했다.

"가서 지켜보라고 명령하시면 감히 힘을 다하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 좌의정이 이 순찰사에게 말했다.

"공은 가도 좋소."

이 순찰사가 일어나 나갔다.

나는 명을 받들어 명나라 장수 접대하는 것뿐 군사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패할 것만 같았다. 명나라 장수를 중도에 맞이하는 것이 나을 듯했다.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지원하면 가능성이 있었다.

날이 저물자 나는 종사관 홍종록(洪宗禄), 신경진(辛慶晉)과 함께 성을 나서 깊은 밤에 순안(順安)에 도착했다. 도중에 회양(淮陽)에서 오는 이양원과 종사관 김정목 (金庭睦)을 만나 적병이 철령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 날 숙천(肅川)을 지나 안주에 도착해 요동 진무사(遼東鎭撫使) 임세록을 만났다. 그의 자문을 받아





©국립중앙박물관



©현충사

화전

작성한 글을 행재소에 보냈다. 이튿날 어가가 영변(寧邊)을 떠나 박천(博川)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말을 달려 박천(博川)으로 갔다. 임금께서 동현 (東軒)에 나오셔서 나를 맞이하였다. 평양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으셔서 내가 대답했다.

"민심이 매우 굳건하여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원군이 서둘러 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명나라 원군을 맞이하여 서둘러 구원해 달라고 청하려 합니다. 아직도 군대가 오지 않으니 걱정스럽습니다."

임금께서는 손수 유두수의 장계를 들어 나에게 보이셨다.

"어제 노약자는 성을 나가도록 명령을 했다는구나. 민심이 반드시 동요할 터인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했다.

"참으로 전하의 염려와 같습니다. 제가 그곳에 머물 때만 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처한 형편을 보면 적이 반드시 얕은 개울을 통해 건널 것입니다. 물속에 마름 쇠^월를 많이 깔아 대비해야 합니다."

임금께서 이곳 현에도 마름쇠가 있는지 물으시니 수천 개가 있다고 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서둘러 그것을 평양으로 보내라."

내가 또 아뢰었다.

"평양 서쪽 강서(江西), 용강(龍岡), 증산(甑山), 함종(咸從) 등의 고을에는 곡식이 많고 백성도 많습니다. 적병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말이 들리면 백성들은 놀라서 흩어질 것입니다. 급히 시종 한 사람을 파견하여 민심을 달래고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거두어 평양을 지원하도록 하시옵소서."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94 마름쇠: 적을 막기 위해 뿌리는 마름 모양의 쇳덩이.



마름쇠

©국립중앙박물관

"병조정랑(兵曹正郎) 이유정(李幼澄) 이 사려가 깊으니 보낼만 합니다." 그러고 아뢰었다.

"제 일이 급하여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밤을 새워 달려가서 명나라 장수를 약속한 대로 만나겠습니다."

물러나온 나는 이유징을 만나 임금과 나눈 얘기를 하였다. 이유징이 깜짝 놀라 말했다.

"그곳은 적의 구렁텅이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꾸짖었다.

"나라의 녹을 먹으면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도리네. 지금 나랏일이 이처럼 위급하니 끓는 물이라도 마다해서는 안 되네. 그런데도 이번에 한 번 가는 길을 어렵다고 하는가?"

이유징은 잠자코 있었으나 얼굴에 원망하는 빛이 역력했다.

나는 절을 하고 나왔다. 대정강(大定江) 강변에 도착하자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다. 광통원(廣通院)을 돌아보니 들판에 뿔뿔이 흩어진 군사들이 끊임없이 오고있었다. 평양을 빼앗겼는지 걱정스러워 군관 몇 명을 시켜 그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19명을 데려왔는데 의주, 용천 등지에서 온 군사들로 평양에서 강여울을 지키던 자들이었다. 어제 적이 이미 왕성탄(王城灘)에서 강을 건넜고, 강가에 있던 군대는 패했으며 군사 이윤덕은 도망쳤다고 말하였다. 깜짝 놀란 나는 즉시 길가에서 편지를 쓰고 군관 최윤원(崔允元)이 말을 달려 행재소에 보고하였다.

밤에 가산군(嘉山郡)에 들어섰다. 이날 저녁 중전께서는 박천에 도착했다. 도중에 적병이 이미 북도에 침입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가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다. 통천(通川) 군수 정구(鄭逑)가 사람을 보내 음식물을 바쳤다.

평양이 함락되었다. 어가는 가산에 머물렀다. 동궁께서는 종묘사직(宗廟社稷)의 신주를 받들고 박천에서 가산군으로 들어왔다. 그에 앞서 적병은 대동강 모래사장 에 주둔했다. 영지를 10여 개 만들고 풀을 엮어 군막을 쳤다. 며칠째 강을 건너지 못하자 경비가 매우 해이해졌다.

성 위에서 이를 바라보던 김명원 등은 밤을 이용해 기습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정예병을 뽑고 고언백(高彦伯) 등을 시켜 통솔하게 한 다음 부벽루 아래 능라도(綾羅島)에서 몰래 배를 타고 군사를 건너게 했다. 원래는 삼경에 공격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시간을 놓쳤다. 강을 건넜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행히 군막 안에 있는 적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제1진이 돌격하자 적들은 놀라 동요하였다. 우리 군사들은 많은 적병을 사살하였고 적군의 말 3백여 필을 빼앗았다. 현지군 임욱경이 앞장서서 힘껏 싸우다 죽었다.

그런데 갑자기 줄지어 주둔해 있던 적들이 일어나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아군은 퇴각하여 배를 향해 달렸다. 그런데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적이 바싹 따라오는 것 을 보고 배를 대지 않았고, 그 탓에 배를 기다리다 물에 빠져 죽은 우리 군사가 매 우 많았다. 남은 군사들은 왕성탄에서 강을 가로질러 건넜다. 이로써 적은 왕성탄 부근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얕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날 저녁 모두 왕 성탄을 통해 강을 건넜다. 왕성탄을 지키던 아군은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모두 도 망쳤다. 적은 강을 다 건너고도 성안에 대비가 있을까 의심해 머뭇거리며 전진하 지 않았다.

이날 밤 윤두수, 김명원은 성문을 열고 성안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병기와 화포는 풍월루(風月樓) 못에 던져버렸다. 윤두수 등은 보통문(普通門)으로 나가 순안으로 갔다. 추격해 오는 적은 없었다. 종사관 김신원(金信元)은 홀로 대동문을 빠져나와 배를 타고 강서로 향했다. 다음 날 성 앞까지 온 적군은 모란봉(牡丹峰)에 올라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성이 비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는 입성하였다. 한편 어가가 평양에 도착했을 무렵 양식이 부족할 것을 근심한 조정에서는 각 고을에서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평양으로 옮겨왔다. 성이 함락되어 10여 만 석이나 되는 평양 창고의 곡식이 모두 적의 손에 들어가 버렸다.

이즈음 내가 보낸 보고문이 박천에 이르렀다. 또 순찰사 이원익, 종사관 이호민(李 好閔)도 평양에서 와서 적이 강을 건넌 상황을 고했다. 그 밤에 임금과 중전이 함 께 가산을 향해 떠났다. 세자에게는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다른 길로 가면서 군사를 모아 나라 땅을 되찾을 것을 도모하라 명하셨다. 신료들은 나누어 따라가게 했다. 영의정 최흥원이 세자를 따르도록 명을 받았다. 우의정 유홍도 세자를 따르겠다고 자청했으나 임금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가마가 출발하자 유홍이 길가에 엎드려 하직하고 떠났다. 내관(內官)이 우의정 유홍이 하직하기를 청한다고 여러 번 아뢰었으나 임금께서는 끝내 대답하지 않으셨다. 유홍이 끝내 세자를 따라 갔다. 윤두수는 평양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였다. 행재소에 대신이 없었고 정철만 전직 정승으로 어가를 따라 가산에 이르렀는데 이미 오경이었다.

민심이 흥흥해지다

어가는 정주(定州)에 머물렀다. 임금께서 평양을 떠난 후 인심이 무너졌다. 곳곳에서 난민이 창고에 침입하여 곡물을 노략질했다. 순안, 숙천, 안주, 영변, 박천이 차례로 당했다. 어가가 가산(嘉山)을 출발할 무렵 군수 심신겸(沈信謙)이 내게 말했다.

"이곳에는 양식이 매우 넉넉합니다. 관청에도 백미가 천 석이 있습니다. 명나라 군 사에게 제공하려던 것인데 불행히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께서 잠시 머 물러 진정시키신다면 읍민이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인도 여기에 머무르지 못할 테니 해변으로 가 숨을 것입 니다."

이미 심신겸은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처지였다. 당시 내게는 데리고 있는 군관 여섯 명과 길 가다가 거둔 도망친 군사 19명뿐이었다. 내가 단속해서 따라오게 했기 때문에 각기 활과 화살을 지니고 내 옆에 있었다. 심신겸이 이들에게 의지해 보호받으려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차마 그냥 떠날 수가 없었다. 잠시 대문에 앉아 있었다. 해는 이미 정 오를 넘겼다. 생각해 보니 임금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남아 떠나지 않는 것이 도의 상 편치 않았다. 그래서 심신겸과 작별하고 길을 나섰다. 효성령(曉星嶺)에 올라 가산(嘉山)을 바라보니 군 안이 이미 혼란스러웠다. 심신겸은 창고의 곡식을 다 잃 자 도주하였다.

이튿날 어가는 정주를 나서서 선천(宣川)으로 향했다. 내게는 정주에 남아 있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정주 사람들은 이미 사방으로 뿔뿔이 피란한 상태였다. 늙은 아전 백학송(白鶴松) 등 몇 사람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길가에 엎드려 성을 나가는 어가를 전송하였다. 눈물을 훔치며 연훈루(延薰樓) 아래 앉아 있는데, 군관 몇 사람이 좌우 계단 아래 있었다. 내가 거둔 병졸 19명 역시 떠나지 않은 채길가 버드나무에 말을 매어두고 둘러앉아 있었다.

저녁 무렵 남문을 바라보니 몽둥이를 든 자들이 밖에서 계속 들어와 왼쪽으로 가는 게 보였다. 군관을 시켜 살펴보게 했다. 창고 아래 모여 있는 자가 벌써 수백 명이라 했다. 내가 거느린 군사들은 수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난민이 더 많아진 후 싸우게라도 되면 제어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약한 자를 공격해서놀라 흩어지게 하는 편이 더 나을 듯했다.

성문을 살펴보니 10여 명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급히 군관을 불러 병졸 19명을 데리고 가 그들을 체포하라 했다. 멀리서 군관과 병졸들이 보이자 그들은 황급히 도망갔다. 뒤쫓아 가서 아홉 명을 잡아왔다. 즉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손을 뒤로 결박했다. 옷을 벗겨 창고 주변 길에 조리를 돌리고 10여 명의 병졸은 그 뒤를 따르며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

"창고를 노략질하는 자들은 잡아다가 효수(梟首)형에 처할 것이다."

성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다. 창고에 모여 있던 자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다 서문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해서 정주의 창고 곡식이 온전할 수있었다. 용천, 선천, 철산(鐵山) 등 주변 고을에서도 창고를 위협하는 자가 없어졌다.

정주 판관 김영일(金榮一)은 무인(武人)이 었는데, 평양에서 도망쳐 돌아온 후 처자를 해변에 피란시켰다. 그리고는 창고 곡식을 몰래 꺼내어 보내주려 하였다. 이일을 들은 내가 그를 붙잡아 죄목을 들어 꾸짖었다.

"네가 무장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패한 채 죽지 않았으니 그 죄만으로도 주륙(誅戮) 할 만한 것인데 게다가 감히 관곡을 빼내려 했단 말이냐? 이 곡식은 명나라 군사 들에게 먹일 것이지 네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다음 곤장 60대를 때렸다. 이윽고 윤 좌상, 김 원수, 무장 이빈(李贇)이 평양을 떠나 모두 정주로 왔다. 임금께서 정주를 떠나실 때 좌의정이 오면 정주에 머무르게 하라 명하셨다. 윤두수가 오자 내가 임금의 명을 전하였다. 그러나 윤두수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재소로 향했다. 김명원과 이빈 등에게 정주를 지키라일러놓고, 나도 어가가 있는 용천으로 갔다.

평양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들은 백성들은 적이 곧 뒤따라오리라 생각해 모두 산골짜기로 숨어버렸다. 길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강계 같은 강변 쪽 마을들도 다 그렇다고 하였다. 곽산(郭山) 산성 아래 도착하자 갈림길이 나타났다. 나는 아래 병졸에게 물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길은 귀성(龜城)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말을 세우고 종사관 홍종록을 불렀다.

"길가에 있던 창고가 하나같이 텅 비어 있구나. 명나라 군사가 오면 무엇으로 접 대하겠느냐? 그나마 귀성의 창고는 약탈당하지 않아 비축해 둔 것이 넉넉하다. 하지만 아전과 백성들이 다 흩어졌다니 옮길 방법이 없다는구나. 자네는 귀성에 오래 있었으니 서둘러 귀성으로 가게나. 그곳 사람들이 자네 왔다는 말을 들으면 산골짜기에 숨어 있더라도 적의 동태를 듣고 싶어 보러 오는 자가 분명 있을 것이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적이 평양에는 들어갔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고 명나라군대가 곧 대대적으로 올 것이니 수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일은 군량이 부족한 것뿐이다. 너희들 관리나 아전은 물론이고 모두 힘을 다하여 군량을 옮겨서 군용으로 사용될 식량이 모자라지 않게 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큰 상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일세. 그러면 아마 한마음으로 협력해 정주와 가산으로 군량미를 옮길 수 있을 것이네."

홍종록이 비장한 표정으로 응낙하고는 길을 떠났다. 나는 용천으로 향했다. 홍종

록은 기축옥사(己丑獄事)⁵⁵에 연좌되어 귀성에 귀양가 있었다. 어가가 평양에 들어오신 후에 비로소 등용되어 사용정(司饗正)이 되었다. 위인이 충실하여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잊고 험한 일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어가가 의주에 이르렀다. 명나라 장수 가운데 참장(參將) 대 아무개와 유격장군 사유(史儒)가 각각 부대를 이끌고 평양을 향하던 중 임반역(林畔驛)에서 평양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주로 돌아와 주둔하고 있었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군 사들에게 은 2만 냥을 하사하였는데, 명 관리가 이것을 가지고 의주에 도착했다. 앞서 요동에서는 우리나라에 왜적이 침략한 변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조정에 아뢰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일치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적을 인도하였다고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병부상서 석성(石星)만이 우리나라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시 우리나라 사신 신점(申點)이 옥하관(玉河館)⁵⁶에 머물고 있었는데 병부상서가 그를 불렀다. 신점이 가니 그는 요동에서 보낸 변란을 보고한 문서를 꺼내 보여 주었다. 이를 본 신점은 울부짖었다. 그는 일행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며 구원 병을 청했다. 병부상서는 두 부대를 보내 국왕을 호위하도록 하자는 표문을 올리고 은을 하사하도록 청하였다. 신점이 통주(通州)로 돌아올 무렵, 고급사(告急使)⁵⁷ 정곤수(鄭崑壽)가 이어 도착했다. 병부상서가 내실로 불러서 일의 상황을 직접 물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 뒤로도 연달아 사신을 파견했다. 요동에 도착해 급한 상황을 알리고 원병을 청하면서, 속국이 되겠다고 애걸까지 하였다. 적이 이미 평양을 함락했으니, 그 기세가 병을 거꾸로 들고 물을 쏟아 붓듯이 거셌다. 조만간 압록강에 닥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의 위급함이 이러하니 속국이 되려고까지 한 것이다. 다행히 적은

⁹⁵ 기축옥사(己丑獄事): 1589년에 일어난 정여립(鄭汝立) 모반에 관련된 옥사.

⁹⁶ 옥하관(玉河館) : 중국 북경에 있던 조선 사신이 머물던 집.

⁹⁷ 고급사(告急使): 변고를 알리러 파견된 사신.

평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성안에 몇 개월째 머문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순안, 영유(永柔)가 평양에서 지척에 있었지만 침범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민심도 점점 안정을 찾았고, 나머지 군사들을 정비해 명나라 군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라를 회복할 기틀을 갖춘 것인데 이는 진실로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7월에 요동 부총병(副摠兵) 조승훈(祖承訓)이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온다는 보고가 먼저 도착했다. 당시 나는 치질 때문에 힘들어 누운 채 일어나지도 못했다. 임금께 서 좌의정에게 명하여 마중을 나가 군량을 지원하라고 했다. 내가 종사관인 신경 진을 시켜 아뢰었다.

"행재소에 현직 대신은 윤두수 한 사람밖에 없으니 그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이미 명나라 장수를 접대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병이 깊으나 제 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임금께서 허락하셨다.

7일, 병든 몸을 억지로 끌고 행궁(行宮)⁸⁸에 나가 하직했다. 임금께서 불러들여 대면하셨다. 엎드려 들어가 아뢰었다.

"바곶에서 남쪽으로 정주, 가산까지는 군사 5천 명이 지나는 동안 하루 이틀 먹을 거리는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안주, 숙천, 순안 세 읍은 비축해 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명나라 군대가 이 곳을 지날 때 쓰일 사흘치 양식을 가지고 가야만 안주 이남에서의 먹을거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가 평양에 도착해 그날로 수복한다면 성안에 곡식이 많으니 그것으로 접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성을 며칠 동안 포위하더라도 평양 서쪽에 있는 세 현의 곡식을 힘을 다해 옮긴다면 양식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여기에 있는 신하들과 명나라 장수가 상의하여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고 편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98 행궁(行宮): 임금이 나들이 때 머물던 별궁.

임금께서 "그렇구나"라고 말씀하셨다. 물러나오자 임금께서는 웅담(熊膽)을 말린약을 하사하셨다. 내의원복(內醫院僕) 용운(龍雲)이라는 사람은 통곡을 하며 나를성문 밖 5리까지 전송하였다. 내가 전문령(箭門嶺)에 올라설 때까지도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저녁에 바곶역에 도착했다. 아전과 군졸들이 도망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군관을 시켜 촌락 사이를 수색하게 하였더니 몇 사람을 찾아내왔다. 내가 힘써 설득했다.

"나라가 평소 너희들을 보살피고 길러왔는데 오늘 같은 때에 어찌 도피하느냐?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곧 이를 터이니 나랏일이 화급하다. 지금이 바로 너희들이 전력을 다해 공을 세워야 할 때다."

그리고는 빈 책자 한 권을 꺼내 만나러 온 자들의 성명을 써서 보여 주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공로를 매겨 상을 주도록 임금께 아뢸 것이다. 여기에 기록 되지 않은 자들은 일이 끝나면 하나하나 사실을 밝혀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자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두 말했다.

"소인이 일 때문에 잠시 나간 것입니다. 어찌 감히 부역을 피하겠습니까? 책자에 서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여러 고을에 공적을 심사하는 책자를 비치하여 공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 것에 따라 시행하도록 전하였다. 그러자 명령을 들은 자들이 다투어 나서서 땔감 을 운반하고 집을 짓고 솥을 설치하고 하여 며칠 사이에 모든 일이 점점 안정되었 다. 나는 전쟁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후로 는 한 사람도 채찍질한 적이 없다.

정주에 도착해서 보니 홍종록이 귀성의 백성들을 모두 동원하여 정주, 가산에 옮겨놓은 것이 말먹이 콩과 쌀을 합해 2천 석이나 되었다. 나는 여전히 안주의 다음 여정이 걱정되었다. 그때 마침 충청도 아산의 창고에 있던 세미 1천 2백 석이 배에 실려 행재소로 옮겨오던 중 정주 입암(立巖)에 머무르고 있었다. 나는 즉시 달려가 임금께 아뢰었다.

"멀리에서 오는 곡식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도착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중흥(中

興)의 운을 돕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가져다가 군량에 보태도록 해 주십시오." 수문장 강사웅(姜士雄)에게 명하여 입암으로 달려가서 2백 석은 정주로, 2백 석은 가산으로, 8백 석은 안주로 나누어 운반하도록 하였다. 안주는 적이 가까이 있으므로 우선 강 위에서 배를 멈추고 기다리도록 명령하였다. 선사포 첨사(宣沙浦 僉使) 장우성(張佑成)이 대정강(大定江)에 부교를 놓고, 노강(老江) 첨사 민계중(閔繼仲)은 청천강(淸川江)에 부교를 만들어 명나라 군대가 건널 수 있도록 준비 하였다. 내가 미리 안주에 가서 상황을 살폈다. 당시 적은 평양에 들어간 지 오래도록 나오지 않고 있었다. 순찰사 이원익과 병마사 이빈이 순안에 주둔하였고, 도원수 김명원은 숙천에, 나는 안주에 있었다.

19일, 조승훈 총병군이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불리하여 후퇴하였으며, 유격장군 사유는 전사하였다. 앞서 조승훈이 의주에 이르렀을 때 사유는 자기 군대의 선봉이되었다. 조승훈은 요수 동쪽의 용장(勇將)으로 여러 차례 북쪽 오랑캐와 전쟁을 하여 공을 세웠다. 그는 이번 행군에서도 왜군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가산에 도착한 그는 우리 쪽 사람에게 물었다.

"평양성에 있는 적들이 이미 도망한 것은 아닐까?"

조승훈은 하늘에 기원하였다.

"적이 아직도 있다니, 하늘이 내게 큰 공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날 삼경에 조승훈은 순안에서 군대를 일으켜 평양으로 진격하였다. 마침 큰비가 내려 성 위에는 지키는 군사가 없었다. 명나라 군대는 칠성문(七星門)⁹⁹을 통해 들어갔다. 성안은 길이 좁고 골목이 많아 말이 제대로 달리기 힘들었다. 적군은 험하고 좁은 지세에 의지하여 조총을 어지럽게 발사하였다. 사유 유격장군이 총탄에 맞아 고꾸라졌고, 군마가 많이 죽었다. 조승훈은 결국 군대를 후퇴시켰는데, 적은 서둘러 추격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후방에 있던 군사들은 진흙 구덩이에 빠졌

[&]quot;후퇴하지 않았습니다."

⁹⁹ 칠성문(七星門): 옛 평양성의 북문으로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에 있다.

고, 이 가운데 몸을 빼내지 못한 자들은 모두 적에게 죽고 말았다. 조승훈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순안과 숙천을 거쳐 밤중에 안주에 도착했다. 그는 성 밖에 말을 세우고 통역관(通譯官) 박의검(朴義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대가 오늘 적에게 많이 살해당했다. 불행히도 유격대장이 전사하였다. 날 씨마저 좋지 않아 큰비가 내렸고 진창이 되어서 적을 섬멸할 수가 없었다. 군사를 더 보태어 다시 진격할 것이다. 너희 재상에게 움직이지 말라 하고 부교도 철거하지 말라 해라"

말을 마친 그는 말을 달려 두 강을 건너서 공강정(控江亭)에 군대를 주둔하였다. 싸움에 패하자 적이 추격해 올까 두려웠던 것 같다. 앞에 두 강을 방패로 삼으려고 서둘러 후퇴한 것이다. 나는 신 종사관을 보내 위로하고 군량을 실어 보냈다.

조승훈은 공강정에 이틀을 머물렀다. 밤마다 큰비가 내렸다. 군대가 들판에서 노숙했기 때문에 병사들의 옷과 갑옷이 다 젖었다. 모두들 조승훈을 원망하였다. 이윽고 그는 퇴각하여 요동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로 인해 사람들 마음이 동요할까 걱정스러웠다. 안주에 계속 머물러 후속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겠다고 청하였다.

이순신. 거제 앞바다를 지켜내다

전라도 수군절도사(全羅道水軍節度使) 이순신(李舜臣)이 경상우수사(慶尙右水師) 원균(元均), 전라우수사(全羅右水師) 이억기(李億祺)¹⁰⁰ 등과 적병을 거제(巨濟) 바다에서 격파하였다. 이에 앞서 적이 육지에 상륙했을 때 원균은 적의 기세가 대단한 것을 보고 감히 출격하지 못했다. 전함 1백 척과 화포, 군기를 바다에 다 빠뜨리고 수하 비장 이영남(李英男), 이유룡(李雲龍)¹⁰¹ 등 하고만 배 네 척에 나눠 타고

100 이억기(李億祺) : 1561~1597.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당황포해전, 옥포해전에서 승전했다. 101 이운룡(李雲龍) : 1562~1610.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지휘 아래에서 전 곤양(昆陽) 해구로 도망쳤다. 육지에 내려 적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되니 원균의 수하 수군 1만여 명이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이영남이 간언하였다.

"공께서는 명을 받아 수군절도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버리고 육지에 내리면 나중에 조정에서 죄를 물을 때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전라도에 군사를 청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적과 한 번이라도 싸워보고,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때 도망쳐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원균은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각기 경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조정의 명령도 없이 어찌 내 마음대로 경계를 넘나들 수 있겠는가?"라며 거절하였다. 원균이 다시 이영남을 보내 청하였다. 대여섯 번을 청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영남이 돌아올 때마다 원균은 뱃머리에 앉아 멀리서 보고 통곡하였다. 얼마 후 이순신은 판옥선(板屋船) 40척을 거느리고 이억기와 함께 거제로 와서 원균과 합세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격하여 견내량(見乃梁)에서 적과 마주쳤다. 이순신이 말했다.

"이곳은 바다가 좁고 수심이 얕아 배를 돌리기 어렵다. 후퇴하는 척하여 적을 유인 해 넓은 바다에 가서 싸우는 것이 낫겠다."

원균이 화가 나서 곧바로 나아가 맞붙어 싸우려 했다. 이순신이 말했다.

"공께서 병술을 모르십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집니다."

그리고는 깃발로 자기 배들을 지휘하여 후퇴하였다. 이를 본 적이 매우 좋아라하며 앞을 다투어 배를 달렸다. 좁은 데를 벗어나 넓은 바다에 이르자 이순신이 북을한 번 울렸다. 모든 배들이 일제히 방향을 돌려 열을 지어 벌려 섰는데 적선과의거리가 수십 보도 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순신은 거북선¹⁰²을 창건했다. 널빤지로 배 위를 덮었는데, 그 모습이 거북처럼 등이 솟아 있었다. 전사와 노잡이는 모두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좌우전 후에 화포를 많이 실어두었다. 베틀의 북처럼 종횡으로 움직이며 적선과 마주치면

공을 세웠다.

102 거북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이순신이 만든 철갑전선, 목조였다는 설도 있다.

연달아 대포를 쏘아댔다.

모든 배가 대포를 쏘며 일시에 협공을 하자 연기가 하늘에 가득했고 불에 탄 적선은 셀 수도 없었다. 적장 하나가 누선(棲船)¹⁰³에 타고 있었는데 높이가 몇 길이나되었고, 위에 설치해 놓은 망루는 붉은 비단과 채색 모포로 둘러놓았다. 그것 역시대포에 맞아 부서졌다. 적병들은 다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그 후에도 적은 잇따른전투에서 모두 패하였다. 그러자 부산, 거제에 숨어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이순신이 전투를 지휘하던 때 일이다.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이순신의 왼쪽 어깨에 박혔다. 피가 발뒤꿈치까지 흘러내렸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칼로 살을 갈라 탄환을 꺼냈다. 몇 치나 깊숙이 박혀 있어보는 사람의 얼굴색이 검게 변했지만 이순신은 태연히 말하고 웃었다.

조정에 승전보가 전해졌다. 임금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이순신을 일품으로 올려주려고 하셨는데, 너무 지나치다는 간언이 있어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올려주었다. 원균과 이억기는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올렸다.

그에 앞서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에 들어온 다음 이런 글을 보냈다.

"일본 해군 10만여 명이 또 서해에서 오고 있으니 대왕의 어가가 이제 어디로 가실 지 모르겠군요."

원래 적들은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올라오려고 했다. 이 한 번의 전투에 힘입어 마침내 적의 한 팔을 잘라낸 셈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은 얻었어도 고립된 형편이라 더 전진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전라도, 충청도에서 황해도, 평안도까지 연해 일대를 지키게 돼 군량을 조달하고 호령을 전하여 중흥을 꾀할 수 있었고, 또 요동 금복해(金復海), 천진(天津) 등지가 영향을 입지 않아 중국의 구원병이 육로를 따라 이동해 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한 번의 전투가 가져온 공로였으니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삼도의 수군을 통솔하여 적이 서쪽으로 올라오는 길을 막았다.

103 누선(樓船): 층루가 있는 큰 배, 주로 전쟁 때 사용하였다.

전(前)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조호익(曹好益)¹⁰⁴이 군사를 모집하여 강동(江東)에서 적을 토벌하였다. 그는 본관이 창원(昌原)으로 심지가 굳고 품행이 훌륭했지만 남의 무고(誣告)를 입어 온 집안이 강동으로 이사하였다. 빈곤하여 훈장 노릇을하며 밥벌이를 한 지 20여 년이 되었으나 반듯한 지조는 변함이 없었다. 임금께서 평양에 당도했을 때 그의 죄를 사면하고 의금부 도사에 임명하였다. 평양이 포위되자 조호익은 강동으로 가 군사를 모집해 평양을 구하려 했으나 평양성은 함락되고 군민은 모두 흩어져버렸다. 나는 조호익이 행재소로 돌아오는 길에 양책역(良策驛)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명나라 군사가 올 것이네. 자네는 의주로 가지 말고 강동으로 돌아가 군사를 모집 하였다가 명나라 군사가 평양에 오면 함께 싸우는 것이 좋겠네."

조호익은 내 말을 따랐다. 나는 그 내용을 써 장계를 올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공문을 조호익에게 주었다. 그리고 군 장비도 보태주었다. 조호익이 강동으로 가 모은 군사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 상원에 가서 진을 치고 적과 맞서 많은 적을 잡아 죽였다. 조호익은 서생이라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지 못했지만 오직 충의로써 선비의 마음을 갈고 닦았다. 동짓날 사졸들을 이끌고 행재소를 바라보며 네 번 절하고 밤새도록 통곡하자 온 군사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

왜적이 전라도를 침범했다. 김제 군수(金堤郡守) 정담(鄭湛), 해남 현감(海南縣監) 변응정(邊應井)¹⁰⁵이 힘껏 싸우다 전사했다. 당시 적은 경상우도에서 전주 경계 쪽으로 들어왔다. 정담과 변응정 등은 응령(熊嶺)에서 방어했다. 목책을 만들어 산길을 가로막고 장수와 군사를 독려하였다. 온종일 크게 싸워 쏘아 죽인 적을 셀 수가 없었다. 적병이 후퇴하려던 차에 저물녘이 됐고 우리 군은 화살도 떨어져버렸다. 적이 다시 공격해 와서 우리 군사들은 끝내 패했고, 두 장수 또한 죽고 말았다. 다음 날 적이 전주에 들어서자. 관리들은 대부분 도망쳐버렸다. 그러나 전주 사람

104 조호익(曺好益): 1545~1609.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웠다.

105 변응정(邊應井): 1557~1592. 조선시대의 무장으로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우고 수군절도사가 됐다.

인 전적(典籍) 이정란(李廷鸞)은 성으로 들어가 아전과 백성들을 독려해 성을 굳게 지켰다. 적의 정예병이 웅령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적 또한 사기가 이미 꺾인 상 태였다.

게다가 감사 이광이 성 밖에 허수아비 군사를 설치해 놓고 낮에는 깃발을 많이 벌여놓고 밤에는 횃불을 산 가득히 늘어 놓았다. 적군이 성 아래 도착해서 주위를 두루 살펴보더니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가 버렸다. 물러간 적들은 웅령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 길가에 묻고는 몇 개의 큰 무덤을 만들었다. 그 무덤가에 나무를 세우고 '조선국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얼을 기리노라'라고 써놓았다. 힘써 싸운 우리 군사들의 모습에 그들도 감동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라도 하나만이 온전하였다.

8월 초하루, 순찰사 이원익, 순변사 이빈 등이 군사를 이끌고 평양을 공격했으나 불리하여 후퇴했다. 당시 이원익과 이빈은 군사 수천 명을 데리고 순안에 있었다. 별장(別將) 김응서(金應瑞) 등은 용강(龍岡), 삼화(三和), 증산(甑山), 강서(江西) 등 네 고을의 군사를 통솔하여 평양 서쪽에 20여 개의 진지를 세웠다. 김억추(金億秋)는 대동강 하류에서 수군을 통솔하여 한쪽 뿔을 잡는 형세를 만들었다. 이날 이원익 등은 평양성 북쪽으로 진격하여 적의 선봉대와 마주쳐 20여 명의 적을 물리쳤다. 그런데 잠시 후 적병이 대대적으로 몰려왔고 놀란 우리 군사들은 뿔뿔이흩어졌다. 강변의 용감하고 힘센 군사가 많이 다쳤다. 우리 군은 결국 순안으로 돌아와 주둔하였다.

명 · 일 강화를 꾀한 심유경

9월 명나라 유격장군 심유경(沈惟敬)¹⁰⁶이 왔다. 앞서 조승훈이 패하였기 때문에 적은 아주 의기양양한 상태였다. 적은 양의 무리가 호랑이 한 마리를 공격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오기도 했다. 명나라 군대를 양에 비유하고, 자신들은 호랑이라 뽐낸 것이었다. 조만간 서쪽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였으므로 의주 사람들이 모두 짐을 싸고 떠났다. 심유경은 원래 절강(浙江) 사람이다. 석성(石星) 상서가 평소 왜국 사정에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유격대장으로 임시 임명해 보낸 것이었다. 순안에 도착한 심유경은 왜장에게 서신을 보내, 조선이 일본을 부당하게 대우한 점이 무엇이며, 어째서 제멋대로 군대를 일으켰는지를 묻는 황제의 뜻을 전했다. 당시 왜가갑자기 난리를 일으킨 데다 그들이 매우 잔인하고 악독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겁내고 무서워하였다. 그러니 그들의 군영에 발을 디디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 심유경은 황색 보자기에 서신을 싸서 자기 하인에게 등에 지고 말을 곧장 달려 보통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 편지를 보고서 즉시 직접만나 의논하자고 회답을 보냈다. 심유경이 가려고 하는데 위험하게 여겨 말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저들이 감히 나를 해치기야 하겠느냐?"

그는 하인 서너 명을 데리고 갔다. 고니시 유키나가, 소 요시토시, 겐소 등이 군대의 위용을 성대하게 내보이며 성에서 북쪽으로 10리나 떨어진 강복산(降福山) 아래까지 나와 맞이하였다. 우리 군사들은 대흥산(大興山) 정상에 올라 그 모습을 보았는데 수많은 왜군이 들고 있는 칼과 창이 서릿발 같았다. 심유경이 말에서 내려 왜군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왜의 무리가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어 잡히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날이 저물자 심유경이 돌아왔는데 왜적은 아주 공손하게 그를 전송하였다. 이튿날 고니시 유키나가가 서신을 보내와 안부를 물었다.

¹⁰⁶ 심유경(沈惟敬): ?~1597.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활약한 명나라의 사신, 평양성에서 고니시 유키나가 와 화평을 협상했다.

"재인께서는 수많은 칼날 가운데에서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본인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심유경이 답장을 보냈다.

"너희는 당나라 조정에 곽영공(郭令公)이 계시다는 말을 못 들었느냐? 단독으로 말을 타고 회흘(回紇)의 만군 가운데 들어갔으나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내가 어찌 너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리고는 왜군과 약속하였다.

"내가 돌아가 황제께 보고하면 당연히 처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50일을 기한으로 하자. 왜군은 평양 서북쪽 10리 밖으로 나가 있되 노략질을 해서는 안 되고, 조선인은 10리 안으로 들어와 왜군과 싸우면 안 된다."

이리하여 경계에 나무를 세워 금표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헤아리지 못했다.

경기 감사 심대(沈岱)가 적의 습격을 받아 삭령(朔寧)에서 죽었다. 그는 사람됨이 강직하여 변란이 발생한 후 크게 분개하였다. 명을 받들어 출전할 때마다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그는 권징을 대신하여 경기 감사가 되었다. 행재소에서 임지로 가던 길에 안주의 백상루(百祥樓)¹⁰⁷로 나를 찾아와 나라가 어려워 한 탄스럽다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 그는 곧바로 직접 활과 돌을 들고 적과 겨루려는 심산이었다. 내가 타일렀다.

"옛사람이 "밭을 가는 일은 종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자네는 서생이라 전투에 나서는 것은 어쨌든 장기가 될 수 없네. 그곳에 용감하고 힘도 세 싸움을 잘하는 양주 목사 고언백(高彦伯)이라는 사람이 있네. 그대는 군병 수습만 하고 고 언백이 통솔하면 공을 세울 수 있을 걸세. 군대를 직접 이끌려고 하지 말고 자중하게 "

107 백상루(百祥樓):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누각으로 진주 촉석루와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누각이다.

심대는 네네 하며 대답은 하였으나 썩 내켜 하지 않은 듯했다. 홀로 적중으로 들어 가는 그가 염려되어 군관 중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나누어서, 의주 사람 장 아무 개와 함께 가도록 하였다. 그가 떠나고 나서 몇 달 동안 안주를 통과해 행재소로 일을 아뢰러 오는 경기도 사람이 있으면 꼭 나에게 안부를 묻는 글을 보냈다. 나는 전하러 온 사람을 직접 만나 경기도에서 적의 형세가 어떤지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경기도는 다른 도보다 그 피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적병이 날마다 나와 불태우고 노략질하여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전에는 감사와 수령 이하가 모두 깊숙이 외진 곳으로 숨어 지내거나 따르는 의장도 줄이거나 버렸습니다. 평복을 입고 몰래 다니거나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거처를 정하지 않아 적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감사는 적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순행할 때마다 가는 길을 미리 공문으로 통지하고 평시처럼 가는 길마다 깃발을 세우고 뿔피리를 불며 다닙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그가 심히 걱정됐다. 글을 써서 보내 부디 경계를 늦추지 말라 하였으나 심대는 바뀌지 않았다. 이미 군병을 모집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서 서울을 수복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날마다 성안으로 사람을 보내 사람들을 모집하고 내응하도록 단속했다. 성안 사람들은 난리가 평정된 후에 적에게 붙었다고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연명장에 서명하여 감사에게 내보냈다. 그러니 스스로 내응할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날마다 수천 수백을 헤아렸다. '타일러 단속한다', '군기를 옮긴다', '적의 실정을 보고한다'는 명목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다. 그중에는 적의 눈과 귀도 있어 동정을 관찰하러 오는 자도 많았다. 들고나는 데 섞여 있어도 심대는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심대가 삭령군에 있을 때 사정을 훤히 파악한 적군은 밤중에 은밀히 큰 내를 건너기습하였다. 심대가 놀라 일어나 옷을 걸치고 달려나왔으나 적이 추격하여 그를 죽였다. 군관 장 아무개도 함께 죽었다. 적이 떠나자 경기도 사람들이 삭녕군 안에임시로 빈소를 마련했다. 며칠 후 적이 다시 나타나 그의 머리를 가져다가 종로 거리에 달아 놓았다. 5, 60일이 지나도 얼굴빛이 살아 있는 것 같았다. 서울 사람들

이 그의 충의를 애도하여 재물을 걷었다. 왜적에게 뇌물을 주고 수습한 다음 상자에 넣어 강화로 보냈다. 적이 물러난 후 몸체와 함께 고향 산에 돌려보내 장사지냈다. 심대는 본관이 청송(靑松)이고 자는 공망(公望)이다. 조정에서 심대의 공적을 기리어 아들 대복(大復)에게 벼슬을 주어 현감에 임명했다.

강원도(江原道) 조방장(助防將) 원호(元豪)¹⁰⁸는 구미포(龜尾浦)에서 적을 쳐 섬멸했으나 춘천에서 싸우다 패하여 죽었다. 당시 적은 충주와 원주에 크게 진을 쳐서 진영이 줄지어 서울까지 이어져 있었다. 충주에 있는 자들은 죽산(竹山), 양지(陽智), 용인(龍仁) 쪽 길로 왕래하였고, 원주에 있는 자들은 지평(砥平), 양근(楊根), 광주(廣州)를 통해 서울에 가려고 하였다. 원호가 여주 구미포에서 적을 섬멸하였고, 이천 부사 변응성은 배에 사수들을 태워 안개를 이용해 여주의 마탄(馬攤)에서 아주 많은 적을 죽였다. 이 때문에 원주에 있는 적들의 길이 끊겨, 모두 충주 쪽 길로 다녔다. 그래서 이천, 여주, 양근, 지평의 백성들은 왜적의 침탈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다 원호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순찰사 유영길이 원호에게 춘천의 적도 치도록 재촉하였다. 원호 역시 승리하고 나니 적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 적은 원호가 올 것을 알아 매복을 하고 기다렸다. 원호가 이를 모르고 전진하다가 매복병에게 살해당했다. 그리하여 강원도 전체에 적을 막을 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되었다.

훈련부 봉사(訓鍊副奉事) 권응수(權應鉄)¹⁰⁹, 정대임(鄭大任) 등이 지방 군대를 이끌고 영천의 적을 격파해 영천을 수복했다. 권응수는 영천 사람으로 담력과 용기가 있었다. 그는 정대임과 함께 지방군인 1천여 명을 이끌고 영천에서 적을 포위했다. 그런데 군사들이 적을 두려워하여 전진하지 않았다. 이에 권응수가 몇 명을 참

¹⁰⁸ 원호(元豪): 1533~1592.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구미포 등지에서 왜적을 무찔렀다.

¹⁰⁹ 권응수(權應銖): 1546~1608.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해 염천성을 탈 환했다.

수하자 모든 병사가 앞장서 공격에 나섰다. 성을 넘어들어가서 적과 거리전을 벌였다. 적은 창고 안으로 도망치거나 명원루(明遠樓)로 피했다. 우리 군은 불로 공격해서 다 태워 죽여 냄새가 몇 리까지 진동했다. 남은 적병 수십 명은 경주로 도망갔다. 이로부터 신녕(新寧), 의흥(義興), 의성(義城), 안동(安東) 등에 있던 적이모두 한 길로 모였다. 좌도의 군읍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영천에서 치른 이 한 번의 전투 덕이었다.

좌병마사 박진(朴晋)¹¹⁰은 경주를 수복했다. 박진은 밀양에서 산중으로 도망쳐 숨어 있었다. 조정에서는 전 병마사 이각이 성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하여 즉시 그를 참수하고, 박진을 대신 병마사로 임명했다. 당시에는 적병이 들끓어 조정의 소식이 남쪽 지방으로 전해지지 않은 지 오래였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박진이 병마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흩어졌던 백성들이 조금씩 모여들었고, 수령들이 여기저기 산골짜기에서 나와 다시 일을 보자 비로소 조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권응수가 영천을 수복하자 박진도 좌도의 군사 1만여 명을 이끌고 경주의 성 아래로 진격했다. 그런데 적이 몰래 북문으로 나가 군대의 후방을 습격해 안강(安康)으로 후퇴했다. 그날 밤에 박진은 사람을 성 아래에 매복시킨 다음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¹¹¹를 발사했다. 성안으로 날아가 객사의 뜰 가운데 떨어졌는데 비격진천뢰를 처음 본 적병들은 가져다가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서로 돌려보며 자세히 관찰하는데 갑자기 화약이 가운데에서 폭발하였다. 소리가 천지를 울리고 쇳조각이 별처럼 쏟아졌다. 맞아서 즉사한 자가 30여 명이었다. 맞지 않은 자도 고꾸라져 있다가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다. 너무 놀라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 장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 모두 신묘하게 여겼다.

¹¹⁰ 박진(朴晋): ?~1597.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워 가선대부에 봉해졌다.

¹¹¹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방어용 화기의 하나, 인마살상용으로 임진왜란 때 화포장 이장손이 만든 포 탄이다. 표면은 무쇠로 둥근 박과 같고 내부는 화약 등을 장전하게 되어 있다.

다음 날 적병들은 성을 버린 채 서생포(西生浦)로 퇴각해 돌아갔다. 박진이 마침내 경주성에 입성하여 남은 곡식 1만여 석을 얻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께서는 박진은 가선대부로 올리고, 권응수는 통정대부에 임명했다. 정대임은 예천(醴泉) 군수로 승진시켰다.



대완구

©국립중앙박물관

비격진천뢰는 예전에는 없던 병기로 군기시(軍器寺) 화포장(火砲匠) 이 장손(李長孫)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것이다. 비격진천뢰를 대완구(大碗 口)¹¹²에 넣어 발사하면 오륙백 보를 날아갔다. 땅에 떨어진 지 한참 지 난 후에 화약이 안에서 폭발했으므 로 적이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전국에서 의병이 일다

이 무렵 각 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전라도에서는 전 판결사 김천일(金千鎰), 첨지(僉知) 고경명(高敬命), 전 영해(寧海) 부사 최경회(崔慶會)가 의병을 일으켰다.

자가 사중(士重)인 김천일은 군사를 이끌고 가장 먼저 경기도에 이르렀다. 조정에 서는 이를 가상히 여겨 그의 군대에 '창의군'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하지만 더 진격할 수 없자 강화로 들어갔다. 고경명은 자가 이순(而順)이다. 고맹영(高孟英) 의 아들로 문재(文才)가 있었다. 그 역시 지방 군대를 이끌고 군현에 격문(檄文)을 돌리면서 적에 대항하였고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자 그의 아들 고종후(高從厚) 가 아비를 대신해 군대를 이끌었는데. 군대 이름을 '복수군'이라고 하였다. 최경회

112 대완구(大碗口): 불씨를 손으로 점화해 발사하는 유통식 청동제 화기이다.

는 나중에 경상우군사가 되었으나 진주 싸움에서 죽었다.

경상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현풍(玄風)의 곽재우(郭再祐)¹¹³, 고령(高靈)의 전 좌랑(佐郎) 김면(金河), 합천(陝川)의 전 장령(掌令) 정인홍(鄭仁弘), 예안(禮安)의 전 한림(翰林) 김해(金垓),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 유종개(柳宗介), 초계(草溪)의 이대기(李大期), 군위(軍威) 교생(校生) 장사진(張士珍) 등이었다. 곽재우는 곽월(郭越)의 아들로 재략(才略)이 있었다. 여러 번 적과 싸웠는데 적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정진을 굳게 지켜 적군이 의령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를 곽재우의 공로라고 했다. 김면은 무장(武將) 고(故) 김세문(金世文)의 아들이다. 거창(居昌) 우척현(牛脊峴)에서 적을 방어하여 여러 번 적을 물리 쳤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그를 우군사로 삼았다. 후에 병들어 군대 진영에서 죽었다. 유종개는 의병을 일으킨 지 얼마 안 되어 적과 싸우다 죽었다. 조정에서 그의 뜻을 가상히 여겨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추증했다.

장사진은 전쟁 동안 사살한 적병이 매우 많아 적병이 장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감히 군위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적은 매복을 한 채 그를 유인했다. 장사진은 끝까지 쫓다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소리치며 힘껏 싸우던 중 화살이 떨어졌다. 적이 장사진의 한쪽 팔을 쳐서 잘랐다. 장사진은 한 팔만 가지고 펼쳐 일어나 멈추지 않고 싸웠으나 끝내 죽고 말았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그에게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추증하였다.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승려(僧侶) 영규(靈圭), 전 제독관(提督官) 조현 (趙憲), 전 청주 목사 김홍민(金弘敏), 서얼 이산겸(李山謙), 선비 박춘무(朴春茂), 충주(忠州) 출신 조덕공(趙德恭), 내금위(內禁衛) 조응(趙熊), 청주(淸州) 출신 이 봉(李逢) 등이었다. 영규는 용감하고 힘이 셌으며 싸움을 잘하였는데, 조헌과 함께 청주를 수복하였다. 후에 적에 패해 두 사람 모두 죽었다. 조응은 말 위에 서서 달릴 만큼 용맹이 뛰어났다. 수많은 적을 죽였으나 후에 그도 전사했다.

¹¹³ 곽재우(郭再祐): 1552~1617. 조선시대 의병장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다. 진주 목사, 합경도 관사 등을 지냈다.

경기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전 사간(司諫) 우성전(禹性傳), 전 정랑 정숙하(鄭淑夏), 수원(水原)의 최흘(崔屹), 고양 출신의 진사(進士) 이로(李魯), 이산휘(李山輝), 전 목사 남언경(南彦經), 유학(幼學) 김탁(金琢), 전 정랑 유대진(俞大進), 충의위(忠義衛) 이일(李鎰), 서얼 홍계남(洪季男), 선비 왕옥(王玉) 등이었다. 그 가운데 홍계남이 특히 날쌔고 용감했다. 나머지는 각기 자기 고향에서 수십 혹은 수백 명의 군사를 모아 싸움에 나섰다.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은 셀 수가 없으나 기록할 만한 공은 세우지 못하고 모두 옮겨 다니다가 하루를 마칠 뿐이었다.

금강산 표혼사(表訓寺)에는 유정(惟政)¹¹⁴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왜적이 산중에 들어오자 절의 승려들은 모두 도주했다. 그러나 유정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니적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어떤 이는 합장하면서 공경을 다 하고 떠나갔다. 나는 안주에서 사방으로 공문을 보냈다. 모두들 의병을 일으켜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이었다. 공문이 산중에 이르자 유정은 공문을 불탁(佛卓) 위에놓고 승려들을 불러 모은 다음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 그는 승군(僧軍)을 일으켜서쪽으로 임금을 도우러 달려왔다. 평양 가까이 왔을 무렵에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으며, 평양성 동쪽에 주둔하여 순안군과 함께 군진을 쳤다. 또 종실 가운데 호성감(湖城監) (이주(李柱))이란 이도 의병 백여 명을 이끌고 행재소로 달려왔다. 조정에서는 그의 관직을 올려 호성 도정(湖城都正)으로 삼고 순안에 주둔하여 관군과합세하게 하였다.

북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 중에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와 훈융 첨사(訓戎僉使) 고경민(高敬民)의 공이 가장 컸다고 한다.

이일을 순변사로 삼고 이빈은 행재소로 불러들였다. 이일이 앞서 대동강 기슭을 지킬 적에 평양성이 합락되자 그는 강을 건너 남쪽 황해도로 들어가 안악(安东)을

¹¹⁴ 유정(惟政) : 1544~1610, 조선시대의 승려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모집해 휴정(休靜)의 휘하로 들어갔다. 평양을 수복하고 권율과 왜적을 격파했다. 일본과 강화를 맺고 조선인 3천 5백여 명을 인솔해 귀국했다.

거쳐 해주(海州)로 갔다. 그곳에서 강원도 이천으로 가 세자를 수행하면서 수백 명의 군사를 모았다. 적이 평양성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과 명나라 군사가 곧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평양으로 향했다. 그는 평양 동북쪽으로 10여리 떨어진 임원평(林原坪)에 진을 쳤다. 의병장 고충경(高忠敬) 등과 함께베고 사로잡은 적이 매우 많았다. 그러나 당시 이빈은 순안에 있었는데 군사를 출격시키기만 하면 패하여 무군사(撫軍司)¹¹⁵ 종사관들이 모두 이빈 대신 이일을 임명했으면 했다. 도원수 김명원만이 이빈을 밀었는데 무군사와 타협하지 못하여 서로충돌할 소지가 다분하였다. 조정에서는 나를 순안의 군영으로 보내 진정시키고 조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조정의 의견은 모두 이일이 이빈보다 낫다고 하였다. 게다가 명나라 군대가 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빈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까 걱정스러웠다. 나는 이일을 순변사에 임명하고 박명현(朴名賢)이 이일의 군대를 대신 지휘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빈은 행재소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적의 첩자 김순량(金順良)을 사로잡았다. 나는 안주에서 군관 성남에게 전령을 가지고 수군장 김억추(金億秋)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공격 내용이 담긴 전령이었다. 이때가 12월 2일이었다. 내가 6일 안에 전령을 돌려보내도록 명시하였는데 기한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성남에게 어찌 된 것인지 꾸짖었더니, 성남은 벌써 강서군 사람 김순량에게 반납하도록 시켰다고 하였다. 즉시 김순량을 잡아들여 전령이 어디 있는지 추궁하니 일부러 정신이 나간 척하며 말을 피하였다. 성남이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전령을 가지고 나간 지 며칠 후에 군영에 돌아왔는데 소 한 마리를 끌고 와 같이 있는 사람들과 잡아먹었습니다. 어디서 난 소냐고 물으니까 순량이 내소인데 친척 집에 맡겨 키우던 것을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의 행적이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비로소 매질을 하여 엄하게 국문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곧 사실을 실토하였다.

115 무군사(撫軍司): 세자를 따라다니며 보호하는 관사.

"소인은 적의 첩자입니다. 그날 전령과 비밀 공문을 받아서 곧바로 평양성으로 들어가 적에게 전했습니다. 적장이 전령을 책상 위에 두었고, 공문은 보자마자 찢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상으로 받았고, 함께 첩자질을 한 서한룡(徐漢龍)은 명주 다섯 필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바깥일을 정탐하여 15일에 와서 보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락받아 나왔습니다."

내가 물었다.

"첩자질을 한 자가 너뿐이냐? 아니면 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두 40여 명입니다. 매번 순안, 강서의 여러 군영에 풀어져 나가 숙천, 안주, 의주까지 훑고 다니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보고합니다."

나는 매우 놀라 즉시 장계를 올렸다. 이름을 조사하여 서둘러 모든 진영에 통보해 잡도록 했으나 잡힌 자도 있고 놓친 자도 있었다. 김순량을 성 밖에서 참수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나라 군사가 도착했으나 적이 모르고 있었다. 아마 첩자들이 놀라 흩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 역시 우연히 생긴 기회였으니 하늘의 뜻이 아닐 수 없다.



명나라의 참전, 그리고 전쟁의 끝

명나라 군대의 참전

12월, 명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郎) 송응창 (宋應昌)을 경략(經略)으로 삼고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郎) 유황상(劉黃裳), 주사(主事) 원황(袁黃)을 찬획군무(賛畫軍務)로 삼아 요동에 주둔시켰다.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대장이 되어 삼군의 장수 이여백(李如栢), 장세작(張世爵), 양원(楊元)과 남쪽 장수 낙상지(駱尙志), 오유충(吳惟忠), 왕필적(王必迪)을 이끌고 강을 건넜다. 압록강을 건넌 군사가 4만여 명을 헤아렸다.

앞서 심유경이 돌아간 후 왜군은 약속대로 군사를 거두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50일이 지나고 심유경이 오지 않자 왜군은 의심하면서, 새해에는 압록강에서 말(馬)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공언하였다. 적의 수중에서 도망해 온 자들이 적들이 공격할 무기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다고 말했으므로 사람들이 더욱 두려워했다. 12월 초, 심유경이 돌아와 성안으로 들어갔다. 며칠 머물면서 다시 약속하고 맹세한 후 돌아갔으나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듣지 못했다.

명나라 군대가 안주에 도착해 성의 남쪽에 주둔하고 깃발과 장비를 귀신처럼 정돈하였다. 내가 제독을 만나 일에 대해 아뢰기를 청했다. 제독은 동헌에서 나를 맞이하였는데 풍채가 준수한 장부였다. 그와 마주 앉은 나는 소매에서 평양의 지도를 꺼내 형세와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었다. 제독이 귀 기울여 듣더니 붉은 색으로 중요 지점에 점을 찍고는 이렇게 말했다.

"왜적은 오직 조총만을 믿고 있소. 우리가 쓰는 대포는 모두 5, 6리는 날아가니 적군이 어찌 당하겠소?"

내가 물러나자 제독이 부채에 시를 적어 주었다.

¹ 이여송(李如松): ?~1598. 중국 명나라의 무장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원군으로 조선에 들어와 왜 적을 격파했다.

군대를 끌고 별 밤에 강둑을 건넜으니 삼한의 나라가 편안치 못하다는 소식 때문이네. 현명하신 군주께서 날마다 전쟁 소식 염려하시기에 미천한 신하 또한 밤에 즐기던 술잔 놓아버렸지. 봄이 오자 살벌한 기운에도 마음이 오히려 꿋꿋했지만 이번 행군 요사스러운 기운에 뼈가 시렸네. 담소하며 승산이 없다고 감히 말하랴? 꿈속에서도 항상 말안장 걸터앉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걸.

당시 성안에는 명나라 군사들이 가득했다. 밤중에 백상루에 있는데 명나라 군사하나가 군중의 밀약 세 조항을 가지고 와서 보여 주었다. 성명을 물으니 알려주지않고 가 버렸다. 제독이 부총병(副摠兵) 사대수(查大受)에게 먼저 순안에 가 왜적을 만나게 하였다. 가서 "명의 조정에서 이미 화친을 허락하셨다. 심유경 유격대장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왜놈들을 속이도록 하였다. 왜적들은 기뻐하였다. 겐소는 시를 지어 바쳤다.

해 뜨는 곳에 있는 나라가 전쟁을 마치고 중국에 복종하니 사해 구주가 한가족이로구나. 기쁜 기운이 갑자기 세상 밖의 눈을 녹이고 천지에 봄은 이르나 태평하게 꽃이 피네.

계사년(1593) 춘정월 초하루의 일이다. 왜는 소장(小將) 다케우치 기치베(竹內吉 兵衛)에게 왜병 20여 명을 이끌고 심유경 유격장군을 순안에서 맞이하도록 하였 다. 사대수 총병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하고 복병이 일어나 종횡으로 공격했 다. 다케우치 기치베를 사로잡고 따라온 왜군 대부분을 죽였으며, 겨우 세 명만이 말을 타고 달아났다. 그제야 왜적은 명나라 군대가 온 것을 알고 크게 동요하였다. 이때 명 대군은 이미 숙천에 도착했다. 해가 저물어 병사들은 군영을 치고 밥을 짓

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제독이 활을 당겨 활시위를 울렸다. 곧바로 기마 몇 기가 순안으로 달려갔다. 모든 군영이 뒤따라 진군했다. 이튿날 아침 평양을 포위하고 보통문, 칠성문을 공격했다. 적은 성 위에 올라 홍백기를 줄지어 세워놓고 저항하였다.

명나라 군대는 대포와 불화살로 공격하였는데 대포 소리가 땅을 울려 수십 리 안의 산악이 진동을 했다. 불화살이 공중에 베를 짜듯이 펼쳐지고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화살이 성안으로 날아가 곳곳에서 불길이 일어나 수풀이 모두 탔다.

낙상지, 오유충 등이 직속 군사를 이끌고 개미떼처럼 성을 타고 올랐다. 앞사람이 떨어지면 뒷사람이 타고 올라 후퇴하는 자가 없었다. 적의 칼과 창이 빼곡해 성가 퀴가 마치 고슴도치 같았다. 명나라 군대가 더욱 힘을 내 싸우자 적이 견디지 못하고 내성으로 후퇴했다. 찔려 죽고 불에 타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성으로 들어간 명나라 군사들은 내성을 공격하였다. 내성으로 들어간 적은 성 위에 흙벽을 쌓고 벌집처럼 수많은 구멍을 뚫은 다음 그 구멍을 통해 조총을 쏘아댔다. 명나라 군사들이 많이 다쳤다. 제독은 궁지에 몰린 적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까 봐 염려하여 성 밖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도망할 길을 열어 주었다. 그날 밤 왜적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 도망쳤다.

그전에 내가 안주에 있을 때 명나라 군사가 일단 철수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비밀리에 황해도 방어사(防禦使) 이시언(李時彦)², 김경로(金敬老)에게 적이 후퇴하는 길에 공격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말했다.

"두 장수의 군대는 길을 따라 매복하여 적이 지나길 기다렸다가 뒤를 치게. 적이 굶주리고 지쳐 도망치는 것이라 제대로 대항하지 않을 것이니 다 잡아들일 수 있을 걸세."

이시언은 곧바로 중화(中和)로 떠났지만 김경로는 다른 일이 있다고 머뭇거렸다. 내가 다시 군관 강덕관(姜德寶)을 보내 독촉하였더니. 그제야 김경로가 중화로 갔

² 이시언(李時意): 1545~1682,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통어사 종사관 등을 역임하며 명나라에 군량미 원조를 요청했다.

다. 그러나 적이 후퇴하기 하루 전 황해도 순찰사(黃海道巡察使) 유영경(柳永慶)의 공문을 받고 재령(載寧)으로 돌아가 버렸다. 유영경은 해주에서 자기 혼자서 지키려 욕심을 부렸고, 김경로는 왜적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피해버린 것이다.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 소 요시토시, 겐소, 야나가와 시게노부 등이 남은 군사를 이끌고 밤을 새워 도망했다. 왜군들은 기력이 떨어지고 발에 물집이 생겨 절뚝거리며 걷거나 밭 사이를 기면서 먹을 것을 구걸했다. 그런데도 왜군을 공격하는 우리 군사는 하나도 없었고 명나라 군사도 추격하지 않았다. 오직 이시언만이 적의뒤를 쫓았으나 감히 습격하지 못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뒤처진 자들 60명 정도를 베었을 뿐이었다.

당시 서울에 있던 왜장은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라는 이로 도요토미 히데 요시의 조카인데 어떤 사람은 사위라고도 한다. 나이가 어려 군사 일을 주관하지 못하고 고니시 유키나가의 명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다.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만약 우리 군이 고니시 유키나가, 소 요시토시, 겐소 등을 사로잡았다면 서울의 적들은 저절로 무너졌을 것이고, 가토 기요마사는 퇴로가 끊기고 군심이 술렁거려, 분명 바다를 따라 도주했겠지만 빠져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한강 이남에 있는 적의 진지가 차례로 와해되었을 것이고, 명나라 군사들은 북을 울리며 행군해서 단숨에 부산에 닿아 실컷 마실수 있었을 것이다. 빠른 시간에 온 산천에 있는 적을 소탕했을 테니 그 후 몇 년 동안 어렵게 싸울 일이 뭐 있었겠는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천하의 일을 그르쳤으니 아, 참으로 애석하도다.

나는 장계를 올려 김경로를 참수하도록 청하였다. 당시 나는 평안도 체찰사(體察使)라 김경로가 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청한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선전관 이순일(李純一)을 개성부로 파견했다. 증표를 들고 개성부로 간 이순일은 참수

³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1573~1655. 오키야마(岡山) 성의 성주로 전국시대의 무장이었던 아 버지가 죽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가 된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 총사령관으로 서울에 머물며 일 본군을 지휘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녀와 결혼하였다.

하기 전에 먼저 제독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제독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적이 아직 섬멸되지 않았다. 무사 한 사람이라도 아껴야 하는 때이니 우선 백의종군(白衣從軍)하도록 하라. 공을 세워 속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독은 공문을 써 이순일에게 주어 보냈다.

평양성 탈환

이일을 체직하고 순변사에 다시 이빈을 임명했다. 평양성 전투 때 명나라 군대는 보통문을 통해 들어가고 이일과 김응서 등은 함구문을 통해 들어가 싸웠다. 명나라 군대가 철수할 때 함께 철수해 성 밖에 주둔했다. 그런데 그들은 밤에 적이 도 망쳤는데 다음 날 아침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여송 제독은 우리 군대의 경계가 허술하여 적이 도망치는데도 몰랐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전에 순안을 왕래하며 이빈과 잘 지내던 명나라 장수들이 이일은 장수감이 아니라면서 이빈이 적임자라고 다투어 말했다. 제독이 공문을 보내 상황을 전했다. 조정에서는 우의정(右議政) 윤두수를 평양에 보내 이일의 책임을 묻고 군법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얼마 있다가 석방하였다. 이빈을 순변사로 임명하고 기병 3천 명을 주어 제독을 따라 남하하도록 했다.

이여송 제독이 파주로 진군해 적과 벽제 남쪽에서 싸웠지만 불리하자 개성으로 돌아와 주둔했다. 앞서 평양성이 수복되자 대동강 이남 지역에 주둔한 적은 모두 도망쳤다. 제독이 적을 추격하려 하면서 내게 말했다.

"재군이 전진하고자 하는데 앞길에 군량과 땔감이 부족하다는 말이 들리오. 나랏 일을 염려하는 정승이시니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오. 서둘러 가서 군량을 준비하여 소홀히 하거나 그르치지 말아 주시오."

제독을 하직하고 나온 나는 곧장 길을 나섰다. 그런데 명나라 군대의 선봉대가 대

동강을 지나 남하하느라 길은 병사들로 빼곡하게 가득 차 지나가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의 말에 따라 서둘러 군대 앞으로 나섰다. 밤이 되어서야 중화를 통과하고 황주에 닿았을 때는 이미 삼경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왜적이 막 지나간 뒤여서 황폐 그 자체였고, 백성들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별다른 묘안이 떠오르지 않은 나는 급히 황해 감사 유영경(柳永慶)에 공문을 보내 군량 운반을 재촉했다. 또 평안 감사 이원익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김응서 등이 거느린 군사 가운데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징발하여 평양에서 황주까지 군량을 나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평안도 세고을의 곡식을 배에 실어 청룡포(淸冷浦)에서 황해도로 운반하였다. 일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갑자기 서두른 데다 대군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니 군용 물자가 부족할까 노심초사하였다. 당시 유영경은 왜적을 피해 꽤 많은 곡식을 산골짜기 여기저기에 비축해 두었다. 백성들에게 옮기도록 독려해서 가는 길에 군량이 부족하지는 않았고,얼마 후 명나라 대군은 개성부에 입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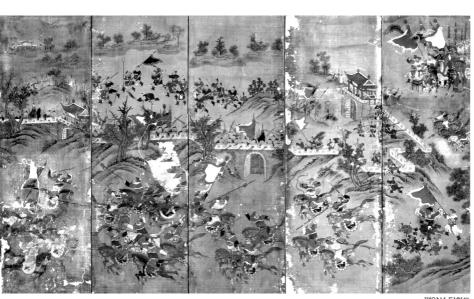
1월 24일, 서울로 도망친 왜적은 우리 백성들이 내응(內應)할까 두려운 데다 평양



성에서의 패배 때문에 화가 나 서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관공서와 일반 사가를 거의 다 불태워버렸다. 서쪽 지방에 줄지어 주둔했던 적들은 모두 서울로 집결해 왕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한 의논을 하였다.

나는 제독에게 빨리 진군할 것을 계속 청했다. 그런데 제독은 며칠째 주저하더니 겨우 파주까지만 진군하였다. 이튿날 부총병 사대수가 우리 장수 고언백과 함께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먼저 정탐에 나섰다가 벽제역 남쪽 여석령(礪石嶺)에서 왜 적과 접전하여 적 1백여 명의 목을 베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제독은 대군은 남 겨두고 혼자서 기병 1천여 명을 대동하고 달려나갔다. 혜음령(惠陰嶺)을 지날 무렵 말이 넘어져 그는 땅에 떨어졌다. 부하들이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당시 적은 여석령 뒤편에 대군을 숨겨두고 몇백 명만 고개 위로 내보냈다. 멀리서 이를 본 제독은 군사를 양쪽으로 나누어 공격했다. 적도 고개에서 내려와 점점 가까이 왔다. 그때 뒤편에 숨어 있던 수만 명에 달한 적이 산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진을 쳤다. 이를 본 명나라 군사들은 무척 두려웠으나 어쩔 수 없었다.

당시 제독이 이끄는 군사들은 모두 북쪽 지방에서 싸운 기병들로 화기는 없고 무



평양성 탈환도 ©고려대학교박물관

딘 단도만 들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군사는 보병들로 휴대한 칼이 서너 자에 달했고 비할 데 없이 예리하였다. 그들과 맞붙어 싸우는데 긴 칼을 좌우에서 휘둘러대자 사람과 말이 모두 다쳐 당해낼 수가 없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제독은 후방의 군대를 불렀으나 그들이 오기도 전에 선봉에 있던 군사들은 패배하고 말았다.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적군도 추격하지 않고 군사를 거두었다.

날이 저물어 제독은 파주로 돌아왔다. 자기의 패배를 감추려 하였으나 기색이 매우 침울하였다. 밤중에 제독은 아끼던 부하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울었다. 다음 날 제독은 군대를 동파(東坡)로 후퇴시키려 하였다. 나는 우의정 유홍, 도원수 김 명원, 장수 이빈 등과 군막 아래로 갔다. 제독은 막 장막을 나선 참이었고 모든 장수들이 좌우에 서 있었다. 내가 애써 간하였다.

"군대를 부리는 사람에게 이기고 지는 일은 다반사라 합니다. 형편을 잘 살펴 더욱 전진하셔야지 경솔하게 움직이면 어쩌십니까?"

그러자 제독이 말하였다.

"우리 군대가 어제 적을 많이 죽였으니 사태가 불리할 것은 없소. 다만 이곳에 비가 온 후 진흙탕이 되어 군대를 주둔하기가 불편해서 동파로 돌아가려는 것이오. 군사들을 쉬게 한 다음 다시 진격할 겁니다."

나와 우리 일행이 다투어 만류하자 제독은 자기가 아뢰려는 글의 초본을 꺼내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 "도성에 있는 적병이 20만여 명으로 중과부적(衆寡不敵)입니다'라는 글귀가 있었고, 말미에는 "제가 병이 심하니 다른 사람이 제 임무를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쓰여 있었다. 놀란 나는 글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적병이 매우 적은데 20만 명이라니요?"

제독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소? 당신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오."

모두 핑계였다. 여러 장수 가운데 장세작이란 자가 강하게 군대를 후퇴하라 권하였다. 우리들이 꿋꿋이 간쟁하며 물러나지 않자 그는 순변사 이번을 발로 차기까

지 하며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와 얼굴빛이 아주 사나웠다.

그 무렵 연일 큰비가 내렸다. 적들이 길가에 있는 모든 산을 불태워 풀 한 포기 없는 데다 말에 역병까지 돌아 며칠 사이에 말 1만여 필이 죽었다. 이날 전군이 임진 강을 건너 동파역 앞에 진을 치더니 다음 날 다시 개성부로 돌아가려 했다. 나는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청하였다.

"대군이 한번 후퇴하면 적의 사기가 더욱 높아질 겁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니 임진강 북쪽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잠시 머물면서 적의 상황을 살핀 다음 움직이십시오."

제독은 그리하겠다고 했으나 거짓이었다. 내가 물러나자마자 제독은 말을 타고 개성으로 돌아갔다. 이어 모든 군영이 개성으로 퇴각했고, 부총병 사대수, 유격장군 관승선의 병사 수백 명만이 임진(臨津)을 지켰다. 동파에 남아 있던 나는 날마다 사람을 보내 군사를 다시 진격시키도록 청했다. 그러면 제독은 태만하게 이렇게 말했다.

"날이 개어 길이 마르면 진격하겠소."

그러나 실제로 진격할 생각은 없었다. 대군이 개성에 머문 지 오래되자 군량이 떨어져 갔다. 수로로 곡식과 말린 꼴을 강화에서 모아왔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세곡을 배로 조금씩 가져왔으나, 도착하는 대로 없어졌으며 그 속도도 갈수록 빨라졌다.

하루는 명나라 장수들이 군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제독에게 군대를 돌려 돌아가도록 청하였다. 그러자 제독이 화를 내며 나와 호조판서(戸曹判書) 이성중(李誠中), 경기좌감사(京畿左監司) 이정형(李廷馨)에게 호통을 쳤다. 우리를 뜰 아래 꿇어앉히고 큰 소리로 꾸짖더니 군법을 시행하려 했다. 내가 상황에 밀려 계속 사죄하였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흘렀다. 나를 본 제독이 안 됐는지 자기 휘하의 장수들에게 화를 내었다.

"너희들이 예전에 나를 따라 서하(西夏)를 정벌할 때에는 군사들이 며칠을 계속 먹지 못해도 감히 돌아가자고 말하지 못했고, 마침내 큰 공을 이루었다. 지금 조선이어쩌다가 며칠 양식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어찌 대뜸 군대를 돌리자고 말하느

냐? 너희들이 가고 싶으면 가거라. 나는 적을 섬멸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 말 가죽에 내 시체를 싸서 돌아갈 것이다."

장수들이 모두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였다.

문을 나온 나는 제때에 군량을 풀어 놓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개성 경력(經歷) 심예 겸(沈禮謙)에게 곤장을 쳤다. 계속해서 군량을 실은 배 수십 척이 강화에서 와 후 서강(後西江)에 배를 대어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제독은 총병 장세작을 시켜 나를 불러 위로하고 군의 작전에 대해 의논하였다.

제독이 평양으로 돌아갔다. 당시 적장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토 기요마사가 함흥에서 양덕(陽德), 맹산(孟山)을 넘어 평양을 습격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그러잖아도 북쪽으로 가고 싶으나 적당한 기회를 잡지 못 하고 있던 제독은 이 말을 기회로 삼았다.

"평양은 조선의 근본이 되는 곳이다. 그곳을 지키지 못하면 대군이 돌아갈 길이 없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군대를 돌려 평양으로 돌아갔다. 그는 떠나면서 왕필적을 남겨 개성을 지키게 하고 접반사(接件使) 이덕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군대는 고립된 형편인 데다 원조를 기대할 수 없으니 임진강 북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오."

이 무렵 전라도 순찰사 권율(權慄)⁴은 고양의 행주에, 순변사 이빈은 파주에, 고언백,이시언 등은 해유령(蟹論嶺)에 도원수 김명원은 임진강 남쪽에 있었고 나는 동파에 있었다. 제독이 우리가 적들에게 넘어갈까 봐 걱정되어 한 말이었다.

나는 종사관 신경진을 제독에게 보내 군대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전하게 하였다.

"첫째, 역대 선왕의 분묘가 모두 경기도에 있는데 적의 수중에 빠지면 조상신과 후

⁴ 권율(權懷): 1537~1599. 조선시대의 명장. 임진왜란 7년간 군대를 총지휘한 장군으로 역사에 남을 전공을 세웠다.

손이 서로 간절히 그리워 할 것이니 차마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둘째, 경기 이남의 유민이 날마다 왕의 군대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후퇴해 떠난다는 소식을 들으면다시는 심지를 굳게 할 수 없어 서로서로 적에게 귀의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국경 안에 있는 땅은 한 자 한 치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장수와병사가힘이 약해도 명나라 군대에 의지하여함께 공격하고자했는데일단 철수한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원망하고 분노하며흩어질 것입니다. 다섯째,일단물리난다음적이 배후를 타면임진강이북역시지킬수 없을 것입니다."이를들은 제독은 아무말도하지않고 가 버렸다.

행주대첩의 대승리



행주대첩

©전쟁기념관

전라도 순찰사 권율 이 행주에서 적을 패배시키고, 군대 를 파주로 옮겼다. 광주 목사였던 권 율은 이광 대신 순 찰사가 되어 군사 를 이끌고 왕의 일 을 도왔다. 그는 이 광 등이 들판에서 적과 싸우다 패한

것을 거울삼아 수원의 독성산성(禿城山城)에 의지해 싸웠다. 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 명나라 군대가 서울에 입성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강을 건너 행주산 성에 진을 쳤다. 이를 본 서울에 있던 왜적은 대군을 이끌고 와 공격했다. 병사들 은 적의 기세에 눌려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뒤는 강물이어서 도망칠 길이 없었다.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산성으로 돌아와 힘껏 싸웠다. 화살이 비처럼 적에게 쏟아지자 적은 세 진영으로 나누어 번갈아 진격했지만, 모두 패하였다. 해가 저물자 왜적은 서울로 돌아갔다. 권율은 군사에게 명령하여 적의 시체를 가져다가 사지와 몸통을 찢어서 수풀에 널어 놓아 원한을 풀었다. 얼마 후 적이 다시 출전해서 반드시 보복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권율은 군영의 울짱을 모두 헐어버린 다음 군대를 이끌고 임진강으로 가서 도원수 김명원을 따랐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홀로 말을 타고 파주산성(坡州山城)으로 갔다. 그곳에서 형세를 살펴보니 큰길의 요충지에 해당하고 지형이 가파르고 험준하여 의지할 만했다. 나는 즉시 권율에게 명령하여 순변사 이빈과 군대를 합쳐 이곳을 지키고 있다가 적병이 서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게 하였다. 그리고 방어사 고언백, 이시언, 조방장 정희현(鄭希玄), 박명현(朴名賢) 등은 유격부대를 편성해 해유령을 차단하게 하였다. 의병장 박유인(朴惟仁), 윤선정(尹先正), 이산휘(李山輝) 등은 오른쪽 길을따라 창릉(昌陵)과 경릉(敬陵)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각기 자기 군사를 테리고싸우게 했다. 갑자기 튀어나와 적을 치되 적이 많이 오면 피하고 수가 적으면 곳에따라 습격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 적병이 성 밖으로 나와 꼴을 벨 수가 없어 죽는 말이 매우 많았다.

한편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경기 수사(京畿水使) 이빈, 충청 수사(忠淸水使) 정걸(丁傑) 등에게는 배를 타고 용산과 서강에 출몰해 적의 세력을 분산시키도록 하였다. 양성에 있는 충청도 순찰사 허항(許沆)에게는 충청도로 돌아가 적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의 관병과 의병에게 공문을 띄워 각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적의 길목을 가로막고 습격하도록 하였다. 양근 군수(楊根郡守) 이여양(李汝讓)은 용진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 장수들이 벤 적의 머리를 가져와 모두 개성 남문 밖에 매달아 놓게 하였다. 제독과 참군 여응종(呂應鍾)이 이를 보고서 좋아하며 말했다.

"조선 사람도 이제는 가죽공 자르듯 적의 머리를 자르는구나."

어느 날 적은 동문으로 대대적으로 나오더니 양주(楊州), 적성(積城)에서 대탄(大灘)에 이르는 곳곳을 수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뭔가를 찾지 못한 듯했다. 사대수

가 적이 습격하러 올까 걱정하며 내게 말했다.

"직접 염탐한 사람이 그러는데 적이 사대수 총병과 유성룡 체찰사를 잡아가겠다고 했답니다. 우선 개성을 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직접 염탐했다는 사람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은 대군이 가까이 주둔해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감히 가볍게 강을 건너겠습니까? 우리들이 움직이면 민심만 동요할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사대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설사 적이 공격해 오더라도 저는 유 체찰사와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오. 어찌 나 혼자 가겠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용사 수십 명을 보내 나를 보호하게 했다. 그들은 비가 심하게 쏟아져도 밤새 경계하여 나를 지키면서 잠시도 쉬지 않았다. 적이 성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만두었다.

그 후 권율이 파주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적은 원수를 갚으려고 대군을 거느리고 서쪽 길로 나섰다. 그런데 산성에서 몇 리 떨어진 광탄(廣灘)에 이르러서는 군사를 주둔시킨 채 더 이상 진격하지는 않았다. 오시부터 미시까지 지켜보기만 하고 공격도 않고 퇴각했다. 돌아간 후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지형을 볼 줄 아는 적은 권율이 점거하고 있는 곳이 험준하고 가파른 것을 알아본 듯했다. 나는 왕필적에게 서신을 보냈다.

"지금 적은 험준한 곳에 의지하고 있으니 공격하기가 쉽지 않소. 대군은 동파와 파주에 진주했다가 그들의 뒤를 밟아 견제하고, 남쪽에서 군사 1만 명을 선발하여 강화에서 한강 남쪽으로 나가게 합시다. 적이 생각지 못한 틈을 타 주둔지들을 격파하면 서울의 적이 돌아갈 길이 끊길 테고 반드시 용진을 향해 도주할 것이오. 이어서 뒤에 있던 군사들이 모든 강나루에 매복하고 있으면 한꺼번에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필적이 무릎을 치며 뛰어난 계책이라고 칭찬하였다. 정탐꾼 36명을 선발하여 충청도 의병장 이산겪의 진영으로 보내 적의 형편을 살펴보게 했다. 당시 적의 정

예병은 모두 서울에 있었고 후방의 군사들은 여위고 지쳤으며 숫자도 적었다. 정 탐을 하고 온 병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돌아와 보고하였다.

"1만 명이나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삼천 명만 있으면 격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여송 제독은 이 작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북쪽 출신 장수인 그는 이번 싸움에서 남쪽 지방 군대를 심하게 억제했다. 그들이 큰 공을 세울까 두려워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군량 중에 남은 것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자고 임금께 청하자 허락하셨다. 왜적이 서울을 점령한 지 2년이나 되었다. 칼날과 화염에 해를 입어 천 리가 황폐해졌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없어 굶어 죽는 이가 태반이었다. 성안에 남아 있던 백성들이 내가 동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서로 부축하고 끌어주고 이고 지고 동파로 왔는데 그 수가 셀 수도 없었다.

사대수 총병이 마산(馬山)으로 가는 도중 죽은 어미의 젖을 기어가 빨고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서 불쌍히 여겨 거두어 군중에서 길렀다.

"왜적이 아직 물러나지 않았는데도 이러하니 앞으로 어찌하면 좋소?" 그는 탄식하며 내게 말했다

"하늘도 근심하고 땅도 슬퍼할 일이오."

- 이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 이 무렵 대군이 다시 내려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남쪽 지방에서 온 양곡 실은 배가 줄지어 강 언덕에 정박해 있었지만 감히 다른 용도로 쓰지 못했다. 마침 전라도 소모관(召募官)⁵ 안민학(安敏學)이 벼 1천 석을 배에 싣고 왔다. 나는 너무 기뻤다. 즉시 장계를 올려 이것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자고 청하였다. 전 군수 남궁제(南宮悌)를 감진관(監賬官)으로 삼았다. 솔잎을 가져다가 가루를 내고 솔잎 가루 열 푼에 쌀가루 한 홉을 섞어 물에 타 마시게 했다. 사람은 많으나 곡식이 너무 적어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명나라 장수들도 불쌍히 여겨 스스로 군량 30

5 소모관(召募官): 조선시대에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된 벼슬.

석을 덜어내 구휼하도록 했으나 백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루는 밤에 큰비가 내렸다. 굶주린 백성들이 내 가까이에서 애절하게 신음하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은 자의 시체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 다. 경상우도 감사 김성일도 전 전적 이로를 보내 급한 사정을 알렸다.

"전라좌도의 쌀을 빌려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봄같이 씨앗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라도사 최철견(崔鐵堅)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렵 지사 김찬(金瓚)이 체찰부사(體察副使)로 호서 지방에 있었는데 나는 즉시 공문을 보내 전라도로 가 남원 등지의 창고를 열고 곡식 5만 석을 영남 지방으로 옮겨 백성을 구제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에서 남쪽 해안 지방까지 적병이 뚫고 지나가던 때가 4월이었다. 백성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가고 골짜기로 들어가서 보리를 심은 땅이 하나도 없었다. 만약 적들이 물러나지 않고 몇 개월 더 버텼다면 살아 있는 것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유격장군 심유경이 재차 서울에 입성해서 적에게 후퇴를 권했다. 4월 7일 제독은 군사를 이끌고 평양에서 나와 개성으로 돌아왔다. 그에 앞서 김천일의 진영에 이 신충(李盡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에 들어가 적의 사정을 탐색하겠다고 자청하였다. 두 왕자와 장계군 황정욱 등을 만나보고 돌아온 그는 적이 강화할 뜻이 있다고 보고했다. 얼마 후 용산에 있는 우리 수군 진영에 적의 서신이 전해졌다. 김천일은 그 서신을 내게 보냈는데 강화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독은 전쟁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니 이것을 구실 삼아 개성으로 다시 돌아와 일을 끝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서신을 사대수에게 보여 주자 그는 즉시 하인 이경(李慶)을 평양으로 보내 제독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래서 제독은 다시 심유경을 불러들인 것이다. 김명원이 심유경을 보고 말했다.

"적은 지난번에 평양에서 속은 것에 분노하고 있소. 반드시 선의가 아닐 것인데 어찌 다시 들어가려 합니까?"

심유경이 말했다.

"적이 스스로 서둘러 후퇴하지 않아서 패한 것인데 어찌 내 탓이라 할 수 있겠소?" 그리고는 입성하였다. 적중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비록 들을 수는 없었으나 왕자들과 그 수행하는 이들을 돌려보내고 부산으로 군대를 돌린 후에야 강화를 허락하겠다는 꾸짖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적이 약속을 받들겠다고 하였다. 제독이 드디어 개성으로 돌아왔다. 나는 제독에게 글월을 보내 강화가 좋은 계책이 아니니 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였다. 제독이 그렇다고 회답을 보냈으나 우선 내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지 들어줄 생각은 없었다. 다시 유격장군 주홍모(周弘謨)를 적 진영으로 보냈다. 내가 도원수 김명원과 마침 권율의 진지에 있다가 그를 파주에서 우연히 만났다. 주홍모는 우리들에게 기패(旗牌) 에 참배하라 했다. 내가 말했다. "이것은 왜의 진영에 들어가는 기패인데 어찌 내가 절하겠소? 그리고 송응창 시랑 (侍郎)께서 왜적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신 문서가 있으니 더욱 받들 수 없습니다." 주홍모가 서너 차례 참배를 강요하였으나 나는 거절하고 말을 달려 동파로 돌아와 버렸다. 그는 사람을 시켜 제독에게 그 일을 고하였다. 제독이 크게 노했다. "기패는 곧 황제의 명령이다. 오랑캐 놈이라도 기패를 보면 절을 하는데 어째서 절

접반사 이덕형이 급히 내게 알렸다.

"아침에 가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나는 도원수 김명원과 개성으로 가 제독을 찾았다. 가서 통보하였으나 제독은 만나주지 않았다. 김 원수가 물러나려고 했다. 내가 말했다.

"제독이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것일지도 모르오. 조금 더 기다립시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내가 군법을 시행한 후에 회군하겠다."

가랑비가 내렸다. 우리 두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문밖에 서 있었다. 조금 있다가 제독 쪽 사람이 두 번 나와 살피고 들어갔다. 잠시 후 들어오라는 연락이 전해졌다. 제독은 당상에 서 있었다. 내가 앞에 나가 예를 표하고 나서 사죄하였다.

"보잘것없는 것이 매우 우둔하고 용렬하지만 어찌 기패가 공경해야 하는 것임을 몰랐겠습니까? 단지 기패 옆에 우리나라 사람이 왜적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 는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애통해서 감히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은 피할 구실이 없습니다."

6 기패(旗牌): 황제의 명을 받았음을 보이는 깃발과 명패.

제독이 부끄러운 기색을 띠더니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소. 문서는 송응창 시랑의 명령이니 나와는 관계가 없소." 이어서 말했다.

"요사이 유언비어가 무척 많소. 시랑이 만약 신하가 기패에 절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용인하고 문책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분명 나까지 문책할 것이오. 대략 사정을 밝혀놓은 글을 만들어 오시오. 시랑이 문책을 하면 내가 그것으로 해명하고, 문책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합시다."

우리 두 사람은 절하고 물러나와 그의 말에 의거해 글을 써서 보냈다.

그때부터 제독은 왜군 진영으로 계속 사람을 보냈다. 하루는 나와 김 원수가 제독을 뵌 다음 동파로 돌아오다 천수정(天壽亨) 앞에 닿았는데 동파에서 개성으로 들어오는 사대수 장군의 하인 이경과 마주쳤다. 말 위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초현리(招賢里)에 도착하자 명나라 기병 셋이 말을 타고 뒤를 쫓아와큰 소리로 체찰사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내가 "바로 나요"라고 대답했더니말을 돌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한 사람은 손에 쇠사슬을 들고 채찍으로 내 말을 마구때리며 "달려, 달려"라고 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말을 달려 개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이 내 말 뒤에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해댔다. 따라오던 사람들은모두 뒤로 처지고 군관 김제와 종사관 신경진만이 힘을 다해 쫓아왔다. 청교역(靑郊驛)을 지나 토성(土城)어귀에 이를 즈음 성안에서 기병 하나가 또 달려오더니나와 함께 온 세 기병에게 무어라 말을 했다. 그러자 그 세 기병은 나에게 절을 하며 "가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돌아왔다. 이튿날 이덕형이 알려주어서야 사정을 알게 되었다.

제독이 신임하는 하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 제독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 체찰사는 강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임진강의 배들을 모두 없애버려서 우리 사절단이 왜군 진영에 드나들지를 못한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독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를 즉시 잡아다가 곤장 40대를 때리려고 했다.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제독은 눈을 부릅뜨고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여 좌우가 모두 두려워했다. 얼마 후 이경이 오자 제독은 임진강에 배

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이경은 "배가 있어 막힘없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제독은 즉시 사람을 시켜 나를 돌려보내라 명하고, 거짓을 고한 하인을 곤장 수백 대를 때려서 기절시킨 후 끌어냈다. 그리고는 내게 한 행동이 후회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체찰사를 만나면 면목이 없어 어떡하지?"

제독은 내가 강화를 반대하는 게 불만이었다. 그러던 차에 그런 말을 듣자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처럼 마구 화를 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내가 위태롭다 고 생각했다. 며칠 후 제독은 유격장군 척금(戚金), 전세정(錢世楨) 두 사람에게 기 패를 들고 동파로 가 나와 김 원수를 만나라 했다. 관찰사 이정형이 함께한 자리에 서 그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적이 두 왕자와 배신들을 돌려보내고 서울에서 물러나 떠나기를 청합니다. 지금 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는 척하고 성을 나가게 한 후 계책을 써서 추격해 토벌합시 다."

내가 찬성할지 안 할지 떠보기 위해 그들을 보낸 것이었다. 나는 내 생각을 꺾지 않았고, 주고받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성격이 조급한 전세정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 국왕은 어째서 성을 버리고 도피했습니까?" 내가 차구차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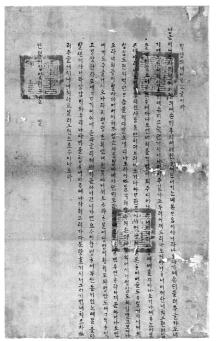
"수도를 옮겨 후일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소."

이때 척금이 자꾸 나와 전세정을 보며 빙그레 웃고 말이 없었다. 그들이 마침내 돌아갔다.

4월 19일, 제독이 대군을 이끌고 동파에 와서 사대수 총병의 군막에서 묵었다. 적이 이미 군대를 물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서울에 입성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제독의 임시 처소에 나아가 문안했으나 제독은 나를 만나주지 않고 통역을 통해이렇게 일렀다.

"체찰사가 나를 불쾌히 여기면서 뭐하러 문안을 하러 오는 것이오?"

서울을 수복하다



선조국문교서

개인 소장 (권이도)

4월 20일, 서울이 수복되었다. 명나 라 군사들이 입성을 했고, 이여송 제독은 소공주 댁(小公主宅) 에서 묵 었다. 적은 하루 전날 이미 성을 빠 져나갔다. 나도 함께 성으로 들어갔 는데 성안의 백성들을 보니 백에 하 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나마 살 아남은 사람들조차 굶주려 야위고 지쳐 있어 귀신 몰골이었다. 날씨도 타는 듯이 더웠고 죽은 사람과 말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악취가 성안을 메워 코를 막지 않고는 길을 지날 수가 없었다. 관청과 민가가 다 사 라지고, 숭례문 동쪽 남산을 따라 아래쪽 일대에 적이 머물던 집만이 남아 있었다. 종묘와 세 궁궐. 종루.

각 관사, 큰길 북쪽에 있던 관학 등은 허물어져 재만 남아 있었다. 소공주 댁은 왜 장 우키타 히데이에가 머물던 곳이라 온전할 수 있었다.

나는 먼저 종묘에 가 통곡을 하였다. 그런 다음 제독의 처소로 갔는데 거기서 여러 신하들을 만나 함께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제독의 문하에 나아가 안부 를 묻고서 말했다.

- 7 소공주 댁(小公主宅): 나중에 남별궁(南別宮)이라 불렸다.
- 8 선조국문교서 : 선조가 1593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피란 중 의주 행재소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 내린 교서.

"적병이 후퇴는 했으나 아직 멀리는 못 갔을 것입니다. 군사를 내어 서둘러 추격하 시기 바랍니다."

제독이 말했다.

"나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오만 서둘러 쫓지 못하는 것은 한강에 배가 없기 때문이오."

내가 말했다.

"어르신께서 적을 추격하려 하신다면 제가 먼저 강에 나가 선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독이 말했다.

"아주 좋소."

나는 한강으로 갔다. 그전에 나는 경기 우감사(右監司) 성영, 수사 이빈에게 공문을 보내 적이 떠나면 바로 한강의 크고 작은 선박을 다 모아 강에 정박해 두라고 지시해 놓았다. 모아놓은 배가 80척이었다. 나는 사람을 보내 제독에게 배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한 식경쯤 지나 영장 이여백이 군사 1만여 명을 이끌고 강가에 나왔다. 군사 반이 건너자 날이 저물었다. 그런데 이여백이 갑자기 발에 병이 났다면서 말했다.

"성안으로 돌아가 병을 치료해야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마를 타고 돌아가 버렸다. 한강 남쪽으로 건너간 군사들마저 다시 건 너와 성안으로 돌아갔다. 나는 마음이 안타까웠으나 어쩔 수 없었다. 제독은 적을 추격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내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기가 어려워 응낙한 척 했을 뿐이었다. 4월 23일, 나는 끝내 몸져누웠다.

5월, 이 제독은 적을 쫓아 문경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송응창 시랑이 제독에게 공 문을 보내 추격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이 떠난 지 이미 수십 일이 지난 후였다. 시랑은 적을 내버려둔 채 추격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까 걱 정하였다. 그래서 이 제독에게 적을 쫓는 시늉을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적이 두려워 과감하게 진격하지 못한 것이다. 적군은 아주 여유 있게 후퇴하고 있었다. 적이 후퇴하는 길목에 있던 우리 군사들역시 모두 자취를 감춘 채 감히 출격하는 자가 없었다. 물러난 왜적은 해안가에 나누어 진을 쳤다. 울산(蔚山)과 서생포(西生浦)에서 동래(東萊), 김해(金海), 웅천(熊川), 거제(臣濟)에 이르기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총 16개의 병영이 세워졌는데 모두 산과 바다를 의지하고 있었다. 오래 머물 작정인지 성을 쌓고 참호를 팠다. 왜적은 바다를 건널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러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다시 사천 총병(四川總兵) 유정(劉綎)으로 하여금 복건(福建), 서촉(西蜀), 남만(南蠻) 등에서 모집한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출병케 하여 성주(星州)와 팔거(八萬)에 진을치게 했다. 남쪽 장수 오유충은 선산(善山)과 봉계(鳳溪)에, 이녕(李寧), 조승훈(祖承訓), 갈봉하(葛逢夏)는 거창에, 낙상지, 왕필적은 경주에 주둔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방을 에워싸고 대치했을 뿐 진격하지는 않았다. 호서와 호남 지방에서 군량을 가져다가 험준한 고개를 넘어 여러 진영에 나누어 주느라 백성들은 크게 지쳤다. 제독은 다시 심유경을 시켜 왜병을 만나 바다를 건너 제 나라로 돌아가도록 설득했다. 또 서일관(徐一貫)과 사용재(謝用梓)를 나고야에 보내 관백을 만나도록 하였다.

6월이 되자 왜적은 비로소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 그리고 재신 황정욱과 황혁등을 돌려보내고, 그 사실을 심유경을 통해 알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주로 진격해 성을 포위하고 작년 전쟁에 패한 원한을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적이 임진년에 진주를 포위했을 때 목사 김시민(金時敏)에게 이기지 못하고 패한 것을 두고하는 말이었다. 8일 만에 진주성은 함락되었고 목사 서예원, 판관 성수경(成守璟), 창의사 김천일, 경상병마사 최경회, 충청병마사 황진(黃進), 의병인 복수장군(復讐將軍) 고종후(高從厚) 등이 모두 죽었다. 죽은 군민이 6만여 명에 달했고 소나 말, 닭, 개마저 남아나지 않았다. 적은 성을 허물고 해자를 메웠으며 우물을 묻고 나무를 베어버려 묵은 분을 풀었다. 6월 28일의 일이다.

앞서 조정에서는 왜적이 남하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장수들에게 적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도원수 김명원, 순찰사 권율 이하 관군과 의병이 모두 의령(宜寧)에 모였다. 권율은 행주대첩의 승리로 교만해져 기강을 건너 진격하려고 하였

다. 곽재우와 고언백이 말했다.

"적의 기세가 아직 높은데 아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해, 전투를 감당할 자가 적습니다. 앞에는 군량도 없으니 경솔하게 진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쭈물할 뿐이었다. 이빈의 종사 성호선(成好善)은 어리석어 상황을 잘 몰랐다. 그가 팔을 휘두르며 여러 장수들이 어물쩡거린다고 질책했다. 성호선은 권율과 의기투합하여 끝내 강을 건너 함안(咸安)으로 진격했으나 성이 텅비어 있어 소득이 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 병사들이 풋감을 따서 먹을 지경이 되니싸울 기력이 다시 생기지 않았다. 다음 날 적이 김해에서 대대적으로 몰려온다는 첩보가 전해졌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함안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물러나 정진(猶堪)을 수비해야 한다고 하며 옥신각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고 있는 사이 적의 포성이 들리자 다들 두려워 술렁거렸다. 다투어 성을 나가다가 쇠줄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정진으로 물러나 바라보니 왜적은 강과 육지를 통해 몰려오고 있었다. 강과 들을 가득 메운 적을 보고 장수들은 모두흩어져 도망쳐버렸다.

진주성의 함락

권율, 김명원, 이빈, 최원 등은 전라도로 향했다. 김천일, 최경회, 황진 등은 진주로 들어갔는데 적이 쫓아와 포위하였다. 목사 서예원과 판관 성수경은 명나라 장수의 지대차사원(支待差使員)⁹으로 상주에 머물러 있다가 적이 본주인 진주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 놀라 돌아간 지 겨우 이틀 만이었다. 진주성은 원래 사방으로 험한 지형에 의지해 있었다. 그런데 임진년에 동쪽으로 옮겨 평지로 내려갔다. 적은 높은 누각 여덟 개를 세워 성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성 밖의 대숲에서 대나무를 잘라다 크게 엮어 둘러치고 자신들을 가려 화살과 돌을 방어하였고. 그 안에

9 지대차사원(支待差使員): 명나라 장수를 접대하도록 파견된 관원.

서 조총을 비처럼 발사하여 성안의 사람들은 감히 머리도 내놓지 못했다.

한편 김천일이 통솔한 자들은 모두 서울의 시정에서 모집한 무리들이었고 김천일역시 군사를 잘 몰랐으며 지나치게 독선적이었다. 게다가 서예원과는 사이가 나빠주인과 손님이 서로 시기하는 형편이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크게 패하였다. 오직 황진이 동쪽 성을 지켜 며칠째 싸웠으나 날아오는 탄환에 맞아 죽었다. 병사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고, 밖에서는 원조가 닿지 않았다.

더구나 비까지 내려 성이 무너져버렸다. 적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었다. 성안 사람들은 가시나무로 막고 돌을 던져 힘을 다해 싸워 적이 거의 퇴각하였다. 그런데 북문을 수비하고 있던 김천일의 부대는 성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생각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산 위 멀리서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본 적이 한꺼번에 공격해오자 온 군대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촉석루(矗石樓)¹⁰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김천일과 최경회는 손을 잡고 통곡하면서 강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군민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뿐이었다.

왜란이 일어난 이래 이 전투처럼 사람이 많이 죽은 적이 없었다. 조정에서는 김천일이 의롭게 죽었다고 높은 관작인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을 추증(追贈)하였다. 또 권율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를 해냈다고 하여 김명원을 대신해 도 원수로 삼았다.

유정 총병은 진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팔거에서 합천으로 달려왔다. 오 유충은 봉계에서 초계(草溪)로 와 경상우도를 방어하였다. 한편 진주성을 함락시 킨 적은 부산으로 돌아가 명나라 조정에서 강화를 허락하면 곧 바다를 건너가겠다 고 공언하였다.

¹⁰ 축석루(矗石樓) : 경산남도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누각으로 임진왜란 때 왜적이 침입하자 총지휘대로 사용했다. 당시 기생 논개가 일본군 장수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끌어안고 투신한 곳으로 유명하다.

10월에 어가가 서울로 돌아왔다. 12월에는 명나라 사신으로 행인사(行人司)의 행인사헌(行人司憲)이 왔다.

앞서 심유경은 관백의 항복 문서를 지닌 왜장 고니시 히(小西飛)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항복 문서가 관백이 쓴 것이 아니라 고니시 유키나가 등이 거짓으로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다. 심유경도 자기가 돌아오자 진주성이 함락당한 것을 보고 강화가 저들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고니시 히를 요동에 억류하고 오랫동안 회답을 보내지 않았다.

당시 제독 및 여러 장수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고, 유정, 오유충, 왕필적 등의 군사 1만여 명만이 팔거에 주둔하고 있었다. 조선 팔도가 굶주림에 허덕였고, 군 량을 옮기는 데 지쳤다. 노약자들은 죽어 산골짜기를 메웠고 장정은 도적이 되었다. 전염병까지 겹쳐 거의 다 죽었다. 심지어 부자나 부부가 서로 잡아먹고 해골이 풀처럼 널려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얼마 후 유정의 군대가 팔거에서 남원으로 옮겼다. 다시 남원에서 도성으로 돌아가 10여 일 머무르다 천천히 제 나라로 떠났다. 그러나 적은 여전히 바닷가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척 두려워하였다. 이 무렵 경략 송응창이 탄핵을 받아떠났고, 새 경략 고양겸(顧養謙)이 요동에 왔다. 그는 참장(參將) 호택(胡澤)을 통해 우리 신하들을 설득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은 아주 길어 글자수만 수천수백에 달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왜적이 이유 없이 너희 나라를 침범했다. 파죽지세로 서울, 개성, 평양을 점령하고 이 세 곳을 근거로 하여 너희 나라 열에 여덟 아홉을 강탈하고 너희 왕자와 배신들을 포로로 잡았다. 우리 황상께서 몹시 분노하셔서 군사를 일으키셨다. 한 번싸워 평양을 격파하고 두 번 전진하여 개성을 되찾으셨다. 왜놈이 결국 서울에서 달아났고 왕자와 배신들을 돌려보냈으며, 수복한 땅이 2천 리다. 소비한 비용은 헤아릴 수가 없고 죽은 군사와 말도 적지 않다. 우리 조정이 속국을 대우하는 은혜와 의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황상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것이다.

이제 군량을 조달할 수가 없고 군사 또한 동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놈도 우리의

위의(威儀)를 두려워하여 항복하겠다고 청했다. 게다가 조공국으로 봉해달라고 애 걸한다. 우리 조정에서는 조공국으로 봉하는 것을 허락하고 번외의 신하로 받아들 이기로 했다. 왜병 전부를 몰아내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다시는 너희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너희 나라가 무궁할 수 있는 계 책이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 나라는 양식이 떨어져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고 있는 실정인데 어찌하여 청병을 하느냐? 너희가 군량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놈이 청하는 조공국으로 봉하는 걸 거절하면 왜놈은 반드시 너희 나라를 다시 침범할 것이고, 그리되면 너희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어찌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냐?

옛날 구천이 회계에서 곤욕을 치를 적에 어찌 부차의 살을 씹고 싶지 않았겠는 냐? "그러나 그 치욕과 더러움을 참고 견딘 것은 훗날을 기약해서이다. 그래서 자청해서 적의 신하가 되고 아내는 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왜놈들은 중국의 조공국이 되겠다고 간청하고 있는데 그걸 조선이 청해주지 못할 게 뭐 있겠는가? 여유를 가지고 진중하게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구천이 군신 관계를 맺은 것보다 백번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정도도 참아내지 못한다면 골이나 내는 졸장부의 소견일 뿐이지 원수를 갚아 설욕하려는 영웅의 태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너희가 왜국을 위하여 조공국으로 봉해달라고 청하여서 그 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왜는 중국에 감격하고, 또 조선에 고마위하여 반드시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갈 것이다. 왜군이 돌아가고 나서 너희 나라 군신들이 진심으로 와신상담하여 구천의 행적을 본받는다면 하늘이 도와 너희가 왜적의 원수를 갚을 날이 오지 않겠느냐?"

호택이 객관에서 석 달을 머물렀으나 우리 조정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임금께서는 무척 곤란해하셨다. 당시 병들어 쉬고 있던 나는 아뢰었다

¹¹ 월나라 왕 구천은 오(吳)나라 왕 부치(夫差)에게 밀려 회계산(會稽山)에 들어가 농성하였으나 끝내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은 부차의 신하가 되고 아내는 첩이 되겠다고 청하여 온갖 굴욕을 감내하여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와신상담(臥薪嘗騰)이라는 고사성어로 유명하다.

"왜를 조공국으로 봉하는 논의는 정말 불가합니다. 우리의 현재 사정을 자세히 적어 중국 조정에 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여러 번 아뢰자 마침내 윤허하셨다. 그래서 진주사(陳奏使) 허욱이 떠났다. 당시 요동에서는 경략 고양겸이 구설에 올라 해임되어 떠났고, 새 경략 손광(孫鑛)이 와서 대신했다.

명나라 병부에서는 황제께 청하여 고니시 히를 북경으로 불러들여 세 가지 일을 물었다.

첫째, 봉작만 요구하고 조공은 하지 말 것. 둘째, 한 사람의 병사도 부산에 남지 말 것. 셋째, 영원히 조선을 침략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약속한다면 봉해주고, 약속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고니시 히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약속을 준수하겠다고 하였다. 마침내 심유경에게 명하여 다시 고니시 히와 함께 왜의 군영으로 들어가 이를 공언하게 하였다. 또이종성(李宗誠)과 양방형(楊方亨)을 상사와 부사에 임명하고 일본에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에 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우리 도성에 머물러 왜가 다 철수하여 떠나는지를 살핀 후 출발하게 하였다. 을미년(1595) 4월, 이종성 일행이 서울에 들어왔다. 왜에 계속 사람을 보내 빨리 바다를 건너 돌아가라고 독촉했다. 그러자 왜는 먼저 웅천의 몇 개 진영과 거제, 장문포(場門浦), 소진포(所津浦) 등의 진지를 다 철수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평양에서처럼 속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명나라 사신께서는 빨리 우리 진영 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약속대로 이행하겠습니다."

8월이 되어 양방형이 병부의 공문을 들고 부산에 도착해서 보니 왜적은 군사를 남겨둔 채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는 다시 상사와 부사를 청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하였으나 병부상서 석성은 심유경의 말을 믿고는 왜가 딴마음을 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왜의 군사를 물러가게 하는 데 급급해이종성에게 먼저 부산으로 가라고 재촉했다. 조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석성이 나서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 하여 어쩌지 못했다.

9월에 이종성이 부산에 도착했으나 고니시 유키나가는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관백에게 보고해 결정이 내려진 후에 사신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일본에 들어갔다가 병신년(1596) 1월에야 돌아왔는데 여전히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심유경은 두 사신은 부산에 남겨두고 혼자고니시 유키나가와 바다를 건넜다. 그들은 사신을 맞이하는 일정을 상의하겠다고 구실을 대었으나 알 수 없었다. 심유경은 일본에 갈 때 비단옷을 입고 배에 올랐는데 깃발에 '조즙양국(調政兩國)" 이라는 네 글자를 크게 써서 뱃머리에 세우고 떠났다. 가고 나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다.

상사 이종성은 원래 개국공신 이문충의 후손이다. 공적으로 작위를 세습하는 귀족 집안의 자제로 겁이 매우 많았다. 어떤 사람이 이종성에게 왜의 관백은 사실 봉작을 받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 들을 유인해 잡아 가두고 곤욕을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너무 두려둬 한밤중에 평민 옷으로 갈아입고 군영을 빠져나갔다. 하인들과 휴대품, 인장과 부절을 다 버리고 도망친 것이다.

이튿날 아침 이 사실을 안 왜군이 길을 나누어 추적해 양산의 석교까지 갔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양방형은 홀로 왜의 군영에 남아 왜군 무리를 안정시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내 동요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이종성은 큰길로 다닐수가 없어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가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경주를 통해 서쪽으로 도망쳤다.

얼마 후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 후 서생포, 죽도(竹島) 등에 있던 왜적이 철수하였고, 아직 철수하지 않은 곳은 부산의 진지 네 곳뿐이었다. 심유경은 곧바로 양방형 부사를 일본으로 가도록 부추겼는데 우리 사신도 동행하기를 요구하였다. 조카 심무(沈懋)를 보내 재촉해대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나 심무가 꼭 함께 가려고 했으므로 부득이 무신 이봉춘(李逢春) 등을 근수배신이라 칭호를 붙여 보내기로 했다. 누군가 무인이 일본에 가면 실수와 잘못이 많을 테니 사리를 아는 문관을 가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심유

12 조즙양국(調즙兩國): 두 나라를 평화롭게 하다.

경의 접반사(接件使)13로 왜의 진영에 있던 황신(黃愼)이 수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중국 사신 양방형과 심유경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앞서 양방형 등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관사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서 영접하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대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의 무너져 다른 관사에서 맞이하였다. 그는 두 사신과 한두 번 만날 때는 봉작(封爵)¹⁴을 받을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크게 성을 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조선의 왕자를 놔주었으니 조선은 당연히 왕자를 보내 사례해야 한다. 그 런데도 보낸 사신의 직위가 낮으니 이는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황신 등은 임금의 명을 전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양방형과 심유경 등에 게도 돌아가라고 재촉하며, 중국 조정에도 무례를 범했다.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 가 부산포로 돌아왔고, 가토 기요마사가 군사를 이끌고 서생포에 계속 주둔하면서 왕자가 사례하러 와야 군대를 해산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하는 바가 아주 커서 봉작과 조공만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조정에서는 봉작만 허락하고 조공은 허락하지 않으니 심유경은 고니시 유키나가와의 친분을 이용해 미봉책을 써서 상황을 구차하게 해결하려 한 듯하다. 그러한 사정을 중국 조정과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아 일이 결국 어긋나 버린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즉시 사신을 파견하여 그 일을 알렸다. 그래서 석성과심유경은 모두 죄를 입었고, 명나라 군대가 다시 출동하였다.

¹³ 접반사(接件使):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역할을 맡은 관리.

¹⁴ 봉작(封爵): 제후로 봉하고 관직을 내리는 것.

이순신을 하옥시키다

수군통제사 이순신을 하옥시켰다. 앞서 원균은 자신을 구하러 와 준 이순신에게 고마워하여 사이가 매우 좋았다. 그러나 얼마 후 공을 다투게 되면서 점점 사이가 틀어졌다. 성품이 음험하고 사특한 데다 안팎으로 연줄이 많은 원균은 이순신을 여기저기서 모함하고 다녔다. 그는 말할 때마다 이순신은 구원하러 오려고 하지 않다가 자기가 여러 번 요청해서야 왔으니 적을 이긴 데 자기 공이 가장 크다고했다. 조정의 의견도 둘로 갈라졌다. 이순신을 천거(薦擧)한 사람이 바로 나였으므로 나를 좋아하지 않은 자들이 원균과 합세하여 이순신을 공격하고 나섰다. 우의정 이원익만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가 말했다.

"이순신과 원균은 각기 지키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즉시 나가지 않은 것이 오.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오."

그 무렵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병졸 요시라(要時羅)를 경상우군사 김응서 진영에 드나들면서 정성을 들이게 했다. 그런데 가토 기요마사가 다시 출동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요시라가 몰래 김응서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고니시 유키나가 장군께서 '이번 강화의 일이 가토 기요마사 때문에 성사되지 못해 내가 몹시 괴롭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있다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널 것이랍니다. 조선이 해전에 능하니 만약 바다에서 맞이하면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김응서가 이 일을 조정에 아뢰었다. 조정에서도 이 내용을 믿었다. 해평군(海平君) 윤근수(尹根壽)는 특히 날뛰어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여러 차례 아뢰고 계속해서 이순신에게 진격하라고 재촉했다. 이순신은 적의 속임수일지 몰라 며칠이나 머뭇 거렸다. 그러자 요시라가 또 와서 말했다.

"기요마사가 지금 이미 상륙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왜 그를 요절내지 않으십니까?" 그는 무척 한스럽고 안타까워하는 척했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 조정에서는 모두 이순신을 비난했다. 대간(臺諫)은 그를 잡아와 국문(鞠問)하자고 청했다. 현풍인 전 현감 박성(林煋)이라는 사람은 당시 여론을 바라고 상소하여 이순신은 참수해

야 한다고 극언을 하였다. 결국 조정에서는 의금부 도사를 보내 이순신을 잡아오 게 하고 대신 원균을 통제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소문이 다 사실은 아닐 것이라 의심하시고 특별히 성균관 사성 (成均館司成) 남이신(南以信)¹⁵을 한산도에 보내 자세히 조사해 오도록 하셨다. 남이신이 전라도에 들어가자 병사와 백성들이 모두 나와 길을 막고 이순신이 억울하게 잡혀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남이신은 자신이 들은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기요마사가 해도에서 7일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때 우리 군사가 출격했다면 그를 잡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순신이 주저하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순신은 옥에 갇혔다. 임금께서 대신들에게 죄를 논하라 명령하셨다. 그때 판중 추부사(判中樞府事) 정탁(鄭琢)¹⁶이 간했다.

"이순신은 명장이니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상의 계책은 다른 이가 그 득실을 짐 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진격하지 않은 것은 생각 없이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 다. 너그러이 용서하셔서 후에 세울 공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에서는 한 차례 고문한 다음 사형을 감하고 삭탈관직(削奪官職)하여 군대에 일반 군사로 보충해 넣었다. 당시 이순신의 노모는 아산에 살았는데 이순신이 하옥되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다 죽었다. 옥에서 나온 이순신은 아산에 들러 상복을 입고는 바로 권율의 막하로 가서 종군하였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였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병부상서(兵部尚書) 형개(邢玠)를 총독군문(總督軍門)으로 삼 았다. 요동 포정사(遼東布政使) 양호(楊鎬)는 경리조선군무(經理朝鮮軍務)로 임명 됐고, 마귀(麻貴)를 대장에 임명했다. 양원, 유정, 동일원(董一元) 등이 잇따라 출

¹⁵ 남이신(南以信): 1562~1608. 조선시대의 명신으로 주문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¹⁶ 정탁(鄭琢): 1526~160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곽재우와 같은 명장을 발탁했다.

병하였다. 정유년(1597) 5월, 양원이 군사 3천 명을 이끌고 먼저 와 서울에 머물렀다. 그는 며칠 있다 전라도로 내려가 남원에 주둔하여 수비하였다. 남원은 호남과 영남의 요충지였고 성이 매우 견고하고 완비되어 있었다. 갈 때 낙상지가 다시 증축하여 잘 수비했기 때문인 듯했다. 남원성 밖에 교룡산성(蛟龍山城)¹⁷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산성에서 수비하자고 의논하였다. 양원은 본성이 수비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여 해자를 더 증수하게 하고 해자 안쪽에 담을 더 설치하였다. 밤낮으로 공사를 감독하여 한 달 남짓해서 대강 끝났다.

8월 2일, 한산도의 수군이 패했다.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억기가 이 싸움에서 전사했다. 경상우수사 배설(裴樉)은 달아나 죽음을 면했다. 이보다 앞서 한산도에 내려온 원균은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규약을 다 바꾸었다. 부하장수와 사졸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순신이 일을 맡기고 부리던 사람들은 모두 배척하여 쫓아냈다. 자기가 패해서 도망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영남을 특히 미워하였다. 군사들이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분하게 여겼다.

이순신은 한산도에 있을 때 집을 지어 운주당(運籌堂)¹⁸이라고 이름을 짓고, 밤낮으로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장수들과 군대의 일을 의논하였다. 비록 하급 병졸이라도 군사에 관해 할 말이 있으면 들어와 말할 수 있게 허락하였으므로 군대 실정을 잘 알았다. 전투를 할 때마다 부하 장수들을 다 불러 계책을 물었고, 계책이 정해진 후에 전투를 하였다. 그래서 패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원균은 그 집에 애첩을 데려와 거처하면서 겹 울타리를 쳐 안팎을 가로막았다. 장수들이 그의 얼굴보기가 힘들었다. 또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술주정을 일삼았으며 형벌을 내리는데 정도가 없었다. 병사들은 "왜적을 만나면 달아나야겠어"라고 수군댔고, 장수들도 그를 비난하고 비웃었으며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명령을 내려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적이 다시 침입한 것이다.

¹⁷ 교룡산성(蛟龍山城) : 임진왜란 때 금산사(金山寺)에 의거한 승병장 처영(處英)이 쌓은 성으로 화강석을 다듬어 쌓았다. 남원 지역의 산성 중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성이다.

¹⁸ 운주당(運籌堂): 통제사가 통제영 군무를 보는 집무실로 제승당의 본래 이름이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요시라를 또 보내 김응서를 속였다.

"왜의 배가 아무 날 출격할 테니. 조선의 수군이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원수 권율은 그 얘기를 믿었다. 그리고는 이순신이 머뭇거리다 죄를 받았다면서 원균에게 빨리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원균 역시 이순신이 적을 보고도 진격하지 않았다고 모함을 한 덕에 자기가 그 직임을 대신하게 됐지만 형편이 어렵다는 것 을 알았다. 그러나 핑계를 댈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전함을 이끌고 출전할 수밖에 없 었다.

해안 위에 있는 적의 진영에서는 우리 측 배가 오는 것을 내려다보고 서로 소식을 알렸다. 원균이 절영도에 이르자 바람이 일어 파도가 쳤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 나 정박할 곳이 없었다. 그때 적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 출몰하는 것을 본 원균은 군사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산도에서부터 하루 종일 노를 저 어 오느라 쉬지 못한 우리 군사들은 기갈에 지쳐 더 이상 배를 저을 수 없었다.

배들이 제멋대로 나아갔다 물러났다 하였다. 잠깐 앞에 나섰다 금방 뒤로 물러났다. 왜군은 우리 군사들을 피곤하게 하려고 우리 배와 가까워지면 빙빙 돌다가 가버리곤 하면서 싸우지 않았다.

밤이 깊어 바람이 심해지자 우리 배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표류하기 시작했다. 원균이 남은 배들을 어렵게 수습하여 가덕도(加德島)로 돌아왔다. 군사들이 갈증이 심해 다투어 하선하여 물을 마시는데 왜병이 섬 가운데서 뛰쳐나와 우리 군사들을 덮쳤다. 잃은 장수와 군사가 4백여 명이었다. 원균은 다시 퇴각하여 거제의 칠천도(七川島)로 갔다.

고성(固城)에 머물던 권율은 원균이 어떤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고 격문으로 불러 곤장을 쳤다. 그런 다음 다시 진격하라는 명을 내렸다. 군중으로 돌아온 원균은 화 가 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 누웠다. 장수들이 원균을 만나 일을 의논하고자 했 으나 못하였다.

한밤중에 왜적의 배가 습격해 우리 군대는 크게 패하였다. 원균은 배를 버리고 언덕으로 올라가 도주하려 했으나 몸이 비대하고 둔해서 소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를 수행하는 이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사람은 그가 적에게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 살았다고 하여 끝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억기는 배 위에서 물로 뛰어들어 죽었다. 이에 앞서 배설은 원균에게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간언했다. 이날 또 칠천도는 물이 얕고 좁아 배가 다니기에 좋지 않으니 진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으나 원균은 듣지 않았다. 배설은 자기가 이끄는 배들과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여 경계를 삼엄하게 해서 변란을 대비했다.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도주하였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홀로 온전할수 있었다. 배설은 한산도에 돌아와 집, 양곡, 군 장비에 불을 놓아 태우고 섬 안에 남아 있는 백성들과 함께 적을 피해 떠났다. 한산도에서 승리한 적군은 기세등등하게 서쪽으로 향했다. 남해, 순천이 차례로 함락되었고, 적의 배는 두치진(豆巵津)에 와 상륙한 다음 진격하여 남원(南原)을 포위했다. 이리하여 호남과 호서 지방이 크게 진동하였다

임진년(1592)에 우리나라 국경을 침입한 이후 왜군은 오직 우리 수군에게만은 패하였다. 화가 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꾸짖고는 반드시 우리 수군을 격파하라고 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김응서에게 뇌물을 주어 이순신이 죄를 입도록 했고 원균을 바다로 나오도록 하였다. 우리의 허실을 다 파악하고서 습격한 것이다. 그의 계책이 대단히 교묘해 우리 모두 그의 계략에 걸려들었으니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왜병이 황석산성(黃石山城)을 함락시켰다. 안음 현감(安陰縣監) 곽준(郭越)⁸ 전 함양 군수(咸陽郡守) 조종도(趙宗道)가 전사했다. 앞서 체찰사 이원익과 도원수 권율이 도내(道內)의 산성을 수리하여 적을 방어하자고 뜻을 모았다. 그리하여 공산(公山), 금오(金鳥), 용기(龍起), 부산(釜山) 등의 산성을 축성하였다. 특히 공산산성과 금오산성을 쌓는 데는 백성들 공이 아주 많이 들었다. 주변 고을의 기계와 양식을 거두어 성안에 비축했고, 수령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이끌고 들어와지키도록 독려하여 워근(遠近)이 소란스러웠다.

¹⁹ 곽준(郭綾): 1550~1597.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김면(金沔)의 지휘 아래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왜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적군이 다시 출동할 적에 가토 기요마사는 서생포에서 전라도로 향했다. 뱃길로 오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와 함께 남원을 공격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도원수 이하 우리 군사들은 이를 멀리서 바라보고 군대를 이끌고 떠나 버렸다. 그리고 산성에 들어가 지키는 자들에게 명을 전해 각자 흩어져 적병을 피하라 했을 뿐이었다. 의병장 곽재우만이 창녕(昌寧) 화왕산성(火旺山城)에 들어가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냈다. 적군이 산 아래 도착해 올려다보니 지형이 가파르고 험준한 데다 성안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의 동요도 없어 공격하지 않고 물러났다.

안음 현감 곽준은 황석산성(黃石山城)으로 들어갔다. 전 김해 부사(金海府便) 백사 림(白土霖)도 성안으로 들어갔다. 백사림이 무인이라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의지하여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적병이 성을 공격한 지 하루 만에 백사림이 도망치자 군사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적이 입성하자 곽준은 아들 곽이상(郭履常), 곽이후 (郭履厚)와 함께 싸우다 전사했다. 곽준에게는 유문호(柳文虎)에게 시집간 딸이 있었다. 그런데 유문호도 왜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성을 나와 있던 곽씨가 그 소식을 들고 자기 목중에게 말했다.

"아비가 죽고서도 죽지 않는 경우는 지아비가 살아 있을 때뿐이다. 지금 지아비도 잡혔으니 내가 어찌 살아가겠느냐?"

그리고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전 함안 군수 조종도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성인의 뒤를 따르던 사람인데, 달아나 숨는 무리와 함께 수풀 사이에서 죽을 수는 없다. 죽는다면 깨끗하게 죽을 것이다."

처자를 끌고 성안에 들어와 있던 그는 이런 시를 지었다.

공동산 밖의 삶이 즐거울지라도 멀리 떠돌다 성안에 서 죽는 것도 영광스럽네

그는 곽준과 함께 적에 맞서 싸우다 죽었다.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다

다시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임명되었다. 한산도에서 적에 게 패하였다는 보고가 오자 조정은 크게 놀랐다. 임금께서 비변사 신하들을 불러 물으셨으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경림군(慶林君) 김명원과 병조판서 이 항복이 조용히 말씀드렸다.

"이것은 원균의 죄입니다. 이순신을 통제사로 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께서 이 말을 따랐다. 이때 권율은 원균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순신에게 남은 군사들을 수습하라는 명을 내렸다. 적이 막 쳐들어오려던 때였다. 이순신은 군관 한 사람만 데리고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갔다. 밤낮으로 몰래 움직여 이리저리 돌아 진도에 도착한 그는 군사들을 수습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왜병이 남원을 함락했다. 명나라 장수 양원은 도망쳤다. 전라병마사 이복남(李福男), 남원 부사 임현(任鉉), 조방장 김경로, 광양 현감 이춘원(李春元), 중국 장수접반사 정기원(鄭期遠) 등도 모두 죽었다. 군기시(軍器寺)의 파진군(破陳軍) 12명이 있었는데 양원을 따라 남원에 들어갔다가 모두 죽었다. 김효겸(金孝謙)이라는 사람만이 벗어났는데, 나에게 성이 함락된 사정을 매우 상세하게 말해 주었다. 남원에 도착한 양원 총병은 성을 한 길 정도 중축하였고, 성 밖에 쌓은 담에 대포를 쏠 구멍을 많이 뚫어 놓고 성문에 대포 몇 대를 설치했으며, 해자와 참호를 한두 길 더 깊게 팠다. 한산도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바다와 육지를 통해 남원으로 진격한다는 급보가 오자 성안이 크게 동요했다. 백성들이 뿔뿔이 도망쳐버렸고, 총병이 이끄는 요동 기마병 3천 명만이 성안에 남아 있었다. 총병이 전라 군사 이복남에게 격문을 띄워 함께 싸우자고 하였다. 그런데 이복남은 질질 끌며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정탐병을 보내 재촉하자 그는 마지못해 왔는데 이끄는 군사가 수백 명에 불과했다. 이어 광양 현감 이춘원, 조방장 김경로 등이 도착했다.

그만두고 모두 밭두둑 사이에 흩어져 매복했다.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떠났다가 다시 왔다. 성 위의 사람들이 승자소포(勝字小砲)²⁰로 대응하였다. 왜는 멀리 진영 을 꾸리고 유격병을 보내 교전하였다. 드문드문 행렬을 지어 번갈아 출현했기 때 문에 대포를 발사해도 맞힐 수 없었지만 성을 지키는 병졸은 적의 탄환에 맞아 자 꾸 쓰러졌다.

얼마 후 왜적이 성 아래 와서 성 위 우리 병사들에게 얘기 좀 하자고 소리를 질렀다. 총병이 하인 한 사람을 시켜 통역을 데리고 왜의 진영에 갔다 오게 했다.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전투를 예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4일, 왜가 성의 삼면을 포위한 채 진을 짜고 전날처럼 총과 대포로 번갈아 공격했다. 전에 성 남문 밖에는 민가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는데 적이 가까이 오자 총병은 이를 불태우게 했다. 하지만 돌담과 흙벽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적은 이 담벽을 엄폐물로 삼은 채 총탄을 발사해 성 위의 병사들이 많이 맞았다.

15일, 멀리서 바라보니, 왜의 무리가 성 밖 잡초와 논의 벼를 베더니 무수히 많은 짚단을 만들어 담벼락 사이에 쌓아놓았다. 성안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당시 유격 장군(遊擊將軍) 진우충(陳愚衷)은 군사 3천 명을 이끌고 전주에 있었다. 남원의 군 사들은 진우충과 그 군사가 구원하러 오기를 바랐으나 오래도록 오지 않아 아주불안해 했다. 이날 늦게 성가퀴를 수비하던 군사들이 자주 머리를 맞대고 귀엣말을 하면서 말안장을 준비하였다. 달아나려는 게 분명했다.

초경 무렵, 왜적의 진영에서 아주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많은 대포를 성을 향해 어지럽게 쏘아대기 시작했고, 날아드는 탄환이 성 위에 우박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성 위의 사람들이 목을 움츠리고 감히 밖을 엿보지 못했다.

20 승자소포(勝字小砲): 임진왜란 때 사용한 휴대용 소화기(小火器)로 크기와 화력에 따라 대승자·차승 자·소승자로 나뉜다. 승자총통(勝字銃筒)이라고 한다. 선조 때 만들어 쓰던 개인용 화기로 총구에 화약과 실탄을 장전하고 손으로 약선에 불씨를 점화해서 발사하는 유통식 화기이다. 전라좌수사와 경상병사를 지낸 김지(金墀)가 만든 총으로 1583년 이탕개(尼湯介)의 난 때에는 위력을 발휘했으나 임진 왜란 때에는 왜군의 조총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다.

한두 시간 지나 떠들썩한 소리가 멈추었다. 병단으로 이미 해자를 평평하게 만든 뒤였다. 그리고 양마장(羊馬場)²¹ 안팎에도 병단을 세워 어느새 성과 높이가 같아 졌다. 왜병들은 이것을 짓밟고 성을 올랐다. 성안에 대란이 일어났다는 말이 들렸 다. 왜적이 입성한 것이다.

김효의는 처음에 남문 밖에 쌓은 담을 지키고 있다가 황망히 성으로 들어왔다. 성위에 이미 사람이 없었고 성안 곳곳에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다. 북문으로 달려가보니 명나라 군대가 말을 타고 문을 나가려 했으나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말발굽이뒤엉켜 무척 혼란스러웠다. 얼마 후 문이 열리자 군마가 한꺼번에 다투어 나갔다. 그러나 왜병이 성밖에서 세 겹으로 포위한 채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긴 칼을 빼들고 마구 휘둘렸다. 명나라 군사들은 머리를 숙인 채 칼을 맞았다. 달까지 밝아 벗어날 수 있었던 자가 거의 없었다. 총병은 하인 몇 명과 말을 달려 간신히 몸을 피했다. 어떤 사람들은 왜병이 총병인 줄 알고서 일부러 보내 준 것이라고도 하였다. 김효의는 수행원 한 사람과 성문을 나왔는데 수행원은 적과 마주쳐 죽었다. 그는 논으로 뛰어들어 벼 사이에 엎드려 왜가 철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겨우 도망쳤다고하였다. 양원은 요동의 장수였으므로 북쪽 오랑캐와 싸우는 데는 능했지만 왜적과 싸우는 데는 미숙해 패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다. 그래도 평지에 있는 성이 지키기 어려운 줄은 알고 있었다.

김효의의 말을 자세히 기록하여 전하는 까닭은 훗날 성을 지키는 자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남원이 이미 함락되었어도 전주 이북이 와해되어서는 안 되었다. 양원은 이 싸움에서 진 책임을 물어 참형에 처해졌고, 잘린 머리는 조리가 돌려졌다.

통제사 이순신이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 아래에서 왜적을 격파하고 장수 마다 시(馬多時)를 죽였다. 이순신이 진도에 도착해 병선을 거두었으니 겨우 10여 척이

²¹ 양마장(羊馬場) : 성 밖에 세우는 성곽 비슷한 구조물로 양이나 말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시 담장이다.

었다. 한편 연해에는 배를 타고 피란한 자들이 셀 수 없었는데 이순신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순신이 길을 나누어 보내 소집하자 원근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순신은 이들을 군 후방에 배치해 병사들을 돕도록 하였다. 적장 마다시는 수전에 능숙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그는 2백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서해 쪽으로 가려다 벽파정 아래에서 이순신과 맞부딪쳤다. 12척 배에 대포를 싣고 진격한 이순신은 조류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순류가 이르자 공격했다. 적은 패주(敗走)했고 군의 위엄이 크게 진작되었다. 당시 이순신 휘하에는 군사 8천여 명이 있었다. 고금도(古今島)에 주둔하였으나 군량이 부족해 걱정이었다. 그는 바닷길에 통행첩(通行帖)을 만들기로 한 다음 명령을 내렸다.

"삼도 연해를 통행하는 모든 공선과 사선 가운데 통행첩이 없는 것은 간첩선으로 간주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배를 타고 피란하는 사람들이 모두 통행첩을 받으러 왔다. 이순신은 배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쌀을 받고 통행첩을 발급했다. 큰 배는 석 섬, 중간 크기 배는 두 섬, 작은 배는 한 섬이었다. 피란을 떠나는 사람들은 재물과 곡식을 다 싣고 다녀서 쌀 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고, 통행을 금지하지 않는 것에 기뻐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순신은 열흘 만에 군량 1만여 석을 얻었다.

또 백성들이 가진 구리와 철을 모아 대포를 주조하고, 벌목하여 배를 만들었다. 그가 계획한 일들은 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원근에서 전쟁을 피해 숨은 자들이 이순신에게 의지하려고 모여들어 오두막을 짓고 물건 파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니 섬안에 다들일 수 없을 정도였다.

진린과 이순신이 합세해 왜적에 대항하다

얼마 후 명나라 조정에서는 수병도독(水兵都督) 진린(陳璘)²²을 보냈다. 그는 고금 도로 내려와 이순신 군대와 합세했다. 진린은 성격이 포악하고 사나워서 남과 불 화를 일으키는 일이 잦았다. 사람들이 그를 매우 무서워하였다.

임금께서 청파의 들까지 나와 그를 전송할 때였다. 나는 진린의 군사들이 수령을 거리낌 없이 때리고 모욕하는 것을 보았다. 찰방(察訪) 이상규(李尙規)의 목을 박 줄로 묶고 끌고 다녀 얼굴에 피가 철철 흘렀다. 역관에게 풀어 주도록 권유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내가 함께 있던 재신들에게 말했다.

"안타깝습니다. 이순신의 군대가 또 패할 것 같습니다. 진린과 함께 군중에 있으면 제지당할 것이고 어긋나면 분명 장수의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군사들에게 도 포악하게 굴 텐데 그를 거스르면 더욱 화를 낼 것이고 그에게 순종하여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서 서로 탄식할 뿐이었다.

진린이 곧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사냥을 하고 고기를 낚도록 명령하였다. 사슴, 돼지와 해산물을 매우 많이 잡아 잔칫상을 차리고 술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진린의 배가 바다로 들어오자 이순신은 군대의 의장을 갖추고 멀리 나가 영접하였다. 그런 다음 그의 군대를 성대하게 대접하니 장수 이하 실컷 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사졸들이 서로 과연 훌륭한 장군이구나 라고 말하였고, 진린도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얼마 후 적의 배가 인근 섬을 침범하였다. 이순신은 군사를 보내 적선을 물리치고 적의 머리 40여 개를 가져왔는데, 이를 다 진린에게 주어 그의 공적으로 삼았다. 진린이 바라던 것 이상이어서 아주 기뻐하였다. 이때부터 모든 일을 이순신에게

²² 진린(陳舜): 1543~1607. 명나라의 수군으로 명나라 신종 때에 많은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자 수군 5천여 명을 거느리고 조선을 도우러 왔다.

물어 처리했고, 나갈 때도 가마를 이순신과 나란히 해 절대 앞서 가지 않았다. 이순신은 그렇게 명나라 군대와 자신의 군대가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하였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백성의 것을 뺏는 자는 모두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감히 명령을 어기는 자가 없었으니 섬 안이 태평하였다. 진린은 임금께 이런 글월을 올렸다. "통제사는 천하를 다스릴 만한 인재이고, 국운을 만회할 만한 큰 공적이 있다." 그가 마음속으로 감복한 것이다.

적병은 물러갈 때 삼도(三道)를 유린했다. 왜적은 지나가는 곳마다 집을 불사르고 백성들을 살육했다. 우리나라 사람을 잡으면 코를 베어 위세를 부린 탓에 그들이 직산에 이르자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도망쳤다.

9월 9일, 중전께서는 병화를 피해 서쪽으로 가셨다. 서울에 있던 명나라 장수 경리(經理) 양호(楊鎬)와 제독(提督) 마귀(麻貴)는 평안도 군사 5천 명, 황해와 경기도 군사 수천 명을 모아 강가를 나누어 지키고 창고를 방어하도록 했다. 다행히 적은 경기도 근처에서 물러났다. 그 후 가토 기요마사는 다시 울산에 주둔하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에,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²³는 사천(泗川)에 주둔하였는데그 범위가 칠팔백 리에 이르렀다. 이때 서울을 방비할 방법이 없었다. 조정의 신하들이 다투어 임금께 피란할 계책을 올렸다. 지중추부사 신잡(申磼)이 말씀드렸다 "임금께서는 영변(寧邊)으로 행차하셔야 합니다. 제가 영변에서 병마사로 일한 적이 있어 영변 사정을 잘 압니다. 가장 걱정되는 일은 간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어떻게 대어 쓸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을 전하며 비웃었다.

"신일(辛日)에는 장 담그기를 꺼린다지."24

다른 대신이 조당에서 말했다.

"이번 적병이 어찌 걱정거리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치겠지요. 어

²³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1535~1619. 일본 에도시대의 무장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사를 이 끌고 조선을 공격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조선 도공 80여 명을 납치해 갔다.

²⁴ 신일(辛日)에는 장 담그기 적당하지 않다는 말이 음양서에 나오는데, 신잡의 성과 음이 같은 것을 가지고 조롱한 말이다.

가나 잘 받들어 편안한 곳에 모시면 될 겁니다."

그때 도원수 권율이 서울에 들어왔다. 임금께서 그를 불러다 물으셨다. 권율이 말하였다.

"애당초 어가가 너무 빨리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쪽 지방에 머물러 계시면서 적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이윽고 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권율은 다시 경상도로 내려갔다. 대간에서 권율이 지모가 없고 겁이 많으니 도원수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간하였으나허락하지 않았다.

12월에 경리 양호와 제독 마귀가 기병과 보병 수만 명을 이끌고 경상도로 내려가 울산의 적진을 공격했다. 당시 적장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군 동해 바닷가 험준한 곳에 성을 쌓고 있었다. 경리와 제독은 적이 생각지 못한 틈을 타 기습을 했다. 철기로 말을 달려 습격하니 적이 무너져 내려 버티지 못하고 내성으로 들어갔다. 명나라 군사들은 전리품을 챙기느라 더 진격하려 하지 않았다. 그사이 적은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기 때문에 공격해도 이기지 못했다. 여러 진영이 성 아래 나누어 주둔하면서 13일간 포위하였지만 적은 나오지 않았다.

29일, 나는 경리와 제독을 만나러 울산으로 갔다. 멀리서 바라보니 적의 보루가 매우 고요하고 한가하였다. 사람 소리가 나지 않고 성 위에는 담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면을 둘러 긴 행랑이 있었는데, 수비병이 다 그 안에 있었다. 밖에 있는 군사가 성 아래에 오면 총탄이 빗발처럼 어지럽게 발사되었다. 매일 교전했기 때문에 명나라 군사와 우리 군사의 시체가 성 아래 쌓여 있었다. 적의 배가 서생포에서 구원하러 와서 물오리 떼처럼 줄지어 정박하였다. 도산성(島山城)에 물이 적어적이 밤마다 성 밖에 출몰하였다.

경리가 김응서에게 명령하여 용감한 군사를 끌고 가 성 밖 샘 곁에 매복하게 했다. 연달아 밤에 1백여 명을 붙잡았는데 모두 굶주리고 파리하여 겨우 말하고 숨이나 쉬었다. 장수들이 성안에 양식이 떨어졌으니 오래 포위하고 있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날씨가 매우 춥고 비가 왔다. 사졸(士卒)들의 손발이 동 상으로 갈라졌다. 얼마 후 적이 육로를 통해 구원하러 오자 경리는 공격받을까 두려워 갑자기 회군하였다.

1월, 명나라 장수들이 다 서울로 돌아와 다시 거병할 계책을 논의했다.

무술년(1598) 7월, 경리 양호가 해임되고, 새 경리 만세덕(萬世德)이 임명되어 부임했다. 당시 형개(邢玠)의 군문(軍門) 참모관(参謀官)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는 양호가 12가지 잘못을 감추었다고 탄핵하는 글을 올렸다. 그로 인해 양호가 파면되고 떠났다. 임금께서는 양호가 그간의 경리들 가운데 그래도 적을 토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그를 구하려고 좌의정 이원익을 북경에 보냈다. 8월, 양호가 서쪽으로 떠나자 임금께서는 홍제원 동쪽까지 나가 전송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 만세덕은 출발했다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9월, 형개는 장수를 재배치했다. 마귀는 울산을 맡고, 동일원은 사천을 맡고, 유정은 순천을 맡고 진린은 뱃길을 맡도록 해 동시에 쳐들어갔으나 어려움을 겪었다. 동일원의 군대는 적에게 크게 패해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니라를 구하고 세상을 떠난 이순신

10월, 유정 제독이 다시 순천의 적진을 공격하였다. 통제사 이순신은 수군을 이끌고 바다에 있는 적의 구원병을 크게 패배시켰다. 이 싸움에서 이순신은 죽고, 적장고니시 유키나가는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부산, 울산, 하동의 연해에 있던 적의진지가 다 퇴각했다.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 예교에 성을 쌓고 굳게 지키고 있었다. 유정이 대군 사를 이끌고 공격하였으나 불리하여 순천으로 돌아 왔다 얼마 후 다시 공격하였다. 이순신이 명나라 장수 진린과 함께 해구를 막고 압력을 가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사천에 머물고 있던 적장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가 뱃길로 구원하러 왔으나 이순신이 진격하여 대파하였다. 적선 2백여 척을 불사르고 수 많은 적병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남해의 경계까지 적을 추격하였는데 이순신은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직접 나서 싸우다 날아온 탄환에 맞고 말았다. 탄환이 그의 가슴을 뚫고 등 뒤로 나갔다. 부하들이 그를 좌우에서 부축하여 장막 안으로 모셨다. 이순신이 말했다.

"전투가 시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다.

평소 담력과 국량(局量)이 큰 이순신의 조카 이완(李浣)은 그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이순신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전투를 지휘하고 독려했다. 군중에서는 몰랐다. 그때 진린이 탄 배가 적에게 포위당했다. 이완이 멀리서 보고 자기 군사를 지휘하여 구했다. 적이 흩어져 떠나자 진린은 이순신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를 구해 준 것에 감사했다가, 비로소 그가 죽은 것을 알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땅바닥에 자기 몸을 던지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나를 구하러 온 줄로 알았는데, 어째서 돌아가셨단 말이오?"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크게 통곡하였다. 이를 본 모든 군사들이 통곡을 하자 그 소리에 바다가 진동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수군이 적을 추격하느라 자기 진영을 지나친 틈을 타 뒤로 도망쳤다. 한편 7월에 왜의 우두머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연해에 진을 치고 있던 왜적이 다 퇴각했다.

이순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군사와 명나라 군사들은 진영에서 마치 자기 부모가 죽은 듯 통곡하였다. 그의 영구가 지나는 곳마다 백성들이 곳곳에 제물을 진설(陳設)하고 수레를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공께서 마침내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백성들이 영구를 붙들고 울며 도로를 메워 수레가 나갈 수 없었다. 길에 있는 사람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임금께서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우의정 (議政府右議政)을 추증하셨다. 형개 군문이 바닷가에 사당을 세워 그의 충혼을 기 려야 한다고 말했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이 모여 사당

을 짓고 민축사(愍史祠)라고 하였다. 그리고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장사치나 어선

이 왕래하다가 그 아래를 지나는 자는 누구나 제를 올렸다.

이순신의 인품



십경도 (이순신의 소년시절) ©현충사 이순신은 어릴 적부터 의협심이 강하고 용감하였으며 전쟁놀이를 즐겼다. 유성룡은 이때부터 이순신을 눈여겨 보다 훗날 전라 좌수사로 천거했다.

슬했고. 아비 이정(李貞)은 벼슬에 오르지 않았다.

이순신은 자는 여해(汝諧)이고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그의 선조 이변(李邊)은 관직 이 판부사(判府事)에 이르렀 는데 강직하다고 이름이 높았 다. 그의 증조부인 이거(李 琚)는 성종(成宗) 임금을 섬 겼다. 연산군(燕山君)이 동궁 에 있을 적에 이거가 가르쳤 는데, 너무 엄격해서 꺼렸다. 장령(掌令)이 되어서도 탄핵 받는 걸 피하지 않아 백관이 그를 꺼렸고, 호랑이 장령이 라는 별명이 있었다. 조부 이 백록(李百祿)은 음직으로 벼

이순신은 어릴 적부터 영특하고 활달하였다. 아이들과 놀 때면 나무를 깎아 활과 화살을 만들어 놀았다. 마을에서 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만나면 눈을 쏘려 고 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그를 꺼려 해 함부로 문을 넘지 못했다. 자라서는 활을 잘 쏘아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왔다. 이씨 집안은 대대로 유학(幼學)을 공부하였는데 이순신에 이르러 무과에 급제하기 시작했다. 권지훈련원봉사(權知

訓鍊院奉事) 보직을 받았다.

병조판서(兵曹判書) 김귀영(金貴榮)이 서녀(庶女)를 이순신에게 첩으로 주려고 하였으나, 이순신이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물으니 이순신이 대답했다. "내가 처음 벼슬길에 나와서 어찌 감히 권세 있는 가문에 붙어 중매를 들이겠소?"

병조정랑(兵曹正郎) 서익(徐益)은 훈련원에 친한 사람이 있어 서열을 뛰어넘어 그를 천거하려 했으나 원중 장무관(院中掌務官)인 이순신이 집행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서익은 이순신을 불러다가 뜰 아래 세워놓고 따져 물었다. 이순신은 말투와 얼굴빛이 변하지 않은 채 강직하게 논변하여 흔들림이 없었다. 서익이 화를 펄펄 내며 다가갔으나 이순신은 차분하게 대답하여 끝까지 조금도 막힘이 없었다. 서익이본래 기가 세고 남을 업신여겨 동료들도 꺼려서 논쟁하기 어려워했다. 이날 계단아래 있던 아전들이 서로 돌아보며 혀를 빼물었다.

"이 관리가 우리 병조정랑에게 맞서니 앞길을 생각하지 않는 건가?" 저물녘이 되어 서익은 지는 것이 부끄러워 가라고 명령했다. 이 일로 관리들이 이 순신을 알아보았다.

이순신이 옥(獄)에 갇혀 있을 때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어떤 옥리(獄吏)가 뇌물을 쓰면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순신의 조카 이분(李芬)에게 말했다. 이순신이 듣고서 이분에게 화를 내었다.

"죽으면 죽는 게지, 어찌 잘못된 방법으로 살기를 구하겠느냐?"

그가 가진 지조가 이와 같았다. 이순신은 위인이 말과 웃음이 적고, 용모가 우아하고 깨끗하여 수양하고 삼가는 선비 같았으나 가슴 속에는 담력이 있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죽은 것도 평소 그가 쌓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형 이희신(李羲臣)과 이요신(李堯臣)이 먼저 죽자 이순신은 그들이 남긴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았다. 시집장가 보내는 데에도 반드시 형의 자식을 먼저보낸 다음 자기 자식들을 보냈다. 재주는 있으나 명이 짧아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펼치지 못하고 죽으니, 아아 애석하도다.

통제사 이순신은 군영(軍營)에서 밤낮으로 경계를 삼엄하게 해 갑옷을 벗은 적이 없었다. 견내량에서 적과 서로 대치할 때였다. 달빛이 아주 밝은 밤, 모든 배는 닻을 내리고 있었다. 갑옷을 입은 채 북을 베고 누워 있던 이순신은 갑자기 일어나 장수들을 부르고 술을 내오게 했다. 술 한 잔을 마신 통제사는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달이 무척 밝구나. 적군은 아주 간교하다. 달이 없을 때가 본래 습격하기에 적당하다. 그러나 달이 밝아도 우리를 습격해 올 수 있으니 경계를 삼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호령하는 나팔을 불어 모든 배가 닻을 올리도록 하였다. 또한 척후선(斥候船)에도 명령을 전했다. 척후병들이 곯아떨어졌다가 깨어나 기습에 대비했다. 얼마 후 척후병이 달려와 적이 온다고 알렸다.

이때 달은 서산에 걸려 있었고, 산 그림자가 바다에 드리워져 주변이 어둑어둑하였다. 그 어두운 곳에서 적선이 수없이 나와 우리 배에 접근하고 있었다. 중군이 대포를 쏘고 고함을 지르자 모든 배가 일제히 응했다. 왜적들도 대비한 것을 알고 일시에 조총을 쏘았다. 총소리가 바다를 진동시키고 날아오는 탄환이 비처럼 물에 떨어졌다. 그러나 적은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장수들이 이순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다.



징계하여 후환을 삼가노라

전쟁의 조짐이 보이다

무인년(1578) 가을, 혜성(彗星)이 하늘에 걸쳐 있는데 그 모습이 흰 비단 같았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더니 몇 달 만에 없어졌다. 무자년(1588)에는 한강의 물이 사흘 동안 붉었다. 신묘년(1591)에는 죽산(竹山) 대평원(太平院) 뒤에 바위가 저절 로 일어났고, 통진현(通津縣)에서는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 자 백성들 사이에서 서울을 옮긴다는 근거 없는 말이 퍼졌다.

또 동해의 물고기가 서해에서 나타나더니, 점점 한강에서도 출몰했다. 평소 해주 (海州)에서 잡히던 청어(靑魚)는 근 10여 년간 잡히지 않았는데 요동의 바다로 옮겨가 잡히기 시작해 요동 사람들은 청어를 새로운 물고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요동의 8참(遼東八站)에 사는 백성들이 하루는 공연히 놀라 "적이 조선에서 몰려오고 조선 왕자가 탄 십정교자(十亭轎子)가 압록강(鴨綠江)에 도착했다"고 말하였다. 이 말이 전해지고 퍼져나가 노약자들이 산으로 도망가기까지 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진정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사신이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금석산(金石山)에서 하(河)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묵었는데,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조선 역관이 내게 '당신에게 3년 된 술, 5년 된 술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마셔버리시오. 오래지 않아 군대가 닥칠 텐데, 당신에게 술이 있은들 누가 마시겠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 때문에 요동 사람들이 조선이 딴마음을 먹었다고 의심하여 많이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신이 돌아와 그 일을 아뢰었다. 조정에서는 역관 중에 필시 엉뚱한 말을 지어내어 우리나라를 모함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몇 사람을 체포했다. 인정전 뜰에서 국문하며 압슬형과 불 인두까지 썼으나 모두 자복하지 않고 죽었다. 이것이신묘 연간의 일이다. 이듬해 마침내 왜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했을뿐 대란이 생기려고 이상한 조짐이 나타났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흰 무지개가 해를 뚫거나 태백성(太白星)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해가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예삿일로 보았다. 또 도성 안에 연기도 안개도

아닌 검은 기운이 땅에서 올라와 하늘까지 닿았는데, 이런 일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되었다. 다른 변괴까지 다 기록하기 어렵다. 하늘이 사람에게 매우 간절하게 알려 주었다고 할 만하지만 사람들이 살피지 못한 것이다.

두보(杜甫)¹의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장안성 위에 머리 하얀 까마귀가 밤이면 연축문 위에 날아와 울부짖네 또 인가를 향해 큰 지붕을 쪼아대니 지붕 아래 높은 벼슬아치들이 오랑캐를 피해 달아나네

이 역시 이상한 일을 기록한 것이리라.

임진년(1592) 4월 17일, 적이 쳐들어왔다는 보고가 닿자 조야가 모두 허둥대었다. 갑자기 괴이한 새가 후원에서 울면서 공중을 날아다니며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했다. 겨우 한 마리인데 새의 울음소리가 성안에 가득 차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밤낮으로 울어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지낸 지 열흘 만에 어가(御駕)가 옮겨 나가고 적이 도성에 들어와 궁궐, 종묘사직, 관청, 민간 가옥이 텅 비게 되었으니, 아아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또 5월에 내가 어가를 따라 평양에 도착해 김내진(金乃鎭)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김내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 년 전에 승냥이가 자꾸 성안으로 들어왔고, 대동강 물이 붉어졌습니다. 동쪽 물은 매우 탁하고 서쪽 물은 맑더니. 이런 변이 생겼습니다."

적이 아직 평양에 오지 않았을 때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지 않았으나 마음 이 좋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도 함락되었다.

들짐승인 승냥이가 성안 저자에 들어오는 일은 좋지 않은 징조다. 이는 "구관조가

1 두보(杜甫): 712~770. 중국 당나라의 시인으로 이백과 함께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꼽힌다.

둥지로 왔다. 여섯 마리 익조가 뒤로 날아가 버렸다. 많은 사슴 사이에 물여우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춘추》의 경우와 비슷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 하늘이 사람에게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며 성인의 가르침을 깊이 드리우신 것이니 두려워하고 삼가야 하지 않았겠는가?

또 임진년 봄과 여름 사이에는 목성(木星)이 미수와 기수²를 막았다. 미수와 기수 는 연나라를 상징한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연나라와 같다고 말해 왔다. 날로 적병 이 닥쳐와 인심은 흉흉해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하루는 임금께서 하교 하셨다.

"복스러운 별(목성을 가리킴)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으니 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임금께서는 이런 현상을 빌려 민심을 진정시킬 생각이셨을 것이다. 이후 도성을 잃기는 했지만 끝내 이전의 문물을 회복하고 어가를 옛 도읍으로 돌릴 수 있었다. 적의 우두머리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침내 흉악한 짓을 저지르다가 스스로 고꾸라졌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다 하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

왜는 용병술이 무척 간교하여 무엇 하나 속임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임진년의 일을 보면 서울에서는 매우 뛰어났지만 평양에서는 형편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백 년 동안 태평하여 전쟁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졸지에 군대가 쳐들어 온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여 뒤죽박죽이었다. 멀든 가깝든 전부 다 휩쓸려 정신을 잃었다. 왜적은 파죽지세로 올라와 열흘 만에 서울까지 들이닥쳤다. 우리의 지혜 로는 미처 계책을 세우지 못했고 용기로는 미처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인심은 붕괴되어 수습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병술가의 뛰어난 계책인 동시에 적의 교묘 한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서울에서는 뛰어났다고 한 것이다.

² 미수와 기수 : 별자리 28수 가운데 동방에 있는 별자리들. 서양 별자리로는 전갈자리와 궁수자리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자 적은 항상 승리할 것이라 생각해 교만하였다. 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러 도에 흩어져 출현하며 제멋대로 굴었다. 군대가 나뉘면 세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천 리에 이어진 진영이 세월을 허비하며 지구전을 하고 있었다. 이른바 "쇠뇌를 힘껏 당기고 있다 보면 노나라산 흰 비단도 뚫을 수 없다"는 것이며, 장숙야(張叔夜) 3가 "여진은 병법을 모른다. 외떨어진 군대가 깊이 쳐들어왔다가 어떻게잘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한 말과 아주 비슷하다. 이 때문에 명나라 군대가 4만 명을 가지고 평양을 공격해 격파한 것이다. 평양이 격파당하자 여러 도에 있던 자들도 모두 기선(機先)을 빼앗겼다. 서울을 아직 점거하고는 있었으나 대세가 이미 위축되었다. 사방에 있던 우리 백성들이 곳곳에서 적을 가로막고 공격하였다. 적의 머리와 꼬리가 서로 구원할 수 없게 되니 끝내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평양에서는 형편없었다고 한 것이다.

아아, 적의 잘못된 계책이 우리에게는 행운이었다. 만일 우리나라에 훌륭한 장군 하나가 있어서 수만 군사를 거느리고 때를 살펴 기이한 계책을 써서 긴 뱀 중추를 끊어내듯 하였더라면! 평양에서 패배할 때 시행했더라면, 평양에서 패배했을 때 기이한 계책을 시행했더라면 큰일을 앉아서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 이남에 서 실행했더라면 수레 하나도 돌이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다음이라면 적 의 간담이 서늘해져 수십, 수백 년간 감히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이고 뒷날에 대한 염려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힘이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낼 수 없었다. 명나라 장수들도 이런 생각을 해낼 줄 모르고, 적을 편안히 오가게 했다. 반성이나 두려움 없이 갖가지로 모색하더니 그중에 가장 형편없는 계책을 내었다. 조공국을 봉해주는 것으로 견제하려 하였으니, 탄식을 참을 수 있겠는가, 애석함을 참을 수 있겠는가? 지금에 와 생각해도 팔을 걷어붙이게 만든다.

³ 장숙야(張叔夜): ?~?. 송나라 휘종 때 유명했던 장군. 《수호지》에 나오는 송강의 무리를 토벌한 인물이다.

옛날 조조(曹操)4가 병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군대를 지휘하여 전투에 임해 교전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리한 지형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군사들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할 것이고, 셋째는 좋은 무기를 쓰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전투의 기본이요,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니 지휘하는 자는 마땅히 잘 알아두어야만 할 것이다."

왜적은 전투에도 익숙했고 군 장비 또한 정교하고 좋았다. 새로운 무기 조총이 있었는데 사격 거리와 명중도가 화살의 다섯 배였다. 우리가 만약 넓은 들판에서 만나 양쪽 진영이 마주해 병법대로 싸웠다면 대적하기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활과 화살의 기술로는 백 보를 나가지 못하지만 조총은 바람에 날리는 우박처럼 수백 보를 나가니 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지형을 가려서 험준한 산의 가파른 곳이나 숲이 울창한 곳을 차지한 후 사수들을 이리저리 매복시켜서 적에게 모습을 숨긴 채 좌우에서 함께 발사하면, 저들은 조총과 창칼이 있어도 모두 펴볼 데가 없을 것이니 크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임진년에 적이 서울에 침입했을 때 날마다 성 밖을 다니며 노략질하여 원릉조차 보존하기 어려웠다. 당시 고양 출신 진사 이노(李輅)가 활쏘기에 밝고 담력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동료 두 사람과 각각 활과 화살을 들고서 창릉과 경릉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 적의 무리가 대대적으로 출현하여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노 일행은 무작정 덩굴이 빽빽하게 우거진 숲으로 뛰어들었다. 이들은 그 안에서 그들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적을 향해 활을 쏘았는데 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모두 고꾸라졌다. 그리고는 자리를 이리저리 옮겨 쏘아대니 적이 더욱 짐작하지 못했다. 이 일로 인해 적은 우거진 숲이 보이면 멀리 피해 달아나 근접하지 않았고 두 왕릉도 온전할 수 있었다. 이를 보면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느냐

⁴ 조조(曹操):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조(始祖)(155~220). 자는 맹덕(孟德). 황건의 난을 평정하여 공을 세우고 동탁(董卓)을 벤 후 실권을 장악하였다. 208년에 적벽(赤壁) 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 게 크게 패하여 중국이 삼분된 후 216년에 위왕(魏王)이 되었다. 권모에 능하고 시문을 잘하였다.

못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림을 알 수 있다.

적이 상주에 주둔하고 있었을 무렵 신립과 이일 등이 이런 계책을 써 토천과 조령수십 리 사이에 사수 수천 명을 매복시키고 적에게 우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못하게 했다면, 적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합지졸의 군사와 숙련되지 못한군사를 이끌고 험준한 요새를 버린 채 평지에서 겨루었으니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군사 전술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또 특별히 기록하는 것은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성(城)이라는 것은 공격을 막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곳이다. 당연히 견고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옛사람이 성의 규모를 모두 치라는 단위로 표시하였는데, 천 치니 백 치니 하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평소 책을 대강대강 읽어서 치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매번 타와 같은 것이려니 했다. 그래서 타가 천이니 백이니 하면 그 성이 너무 작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의아하게 여긴 적이 있다.

왜란 후에 처음으로 치지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구해 읽고 나서 치가 타가 아니라 지금의 이른바 곡성, 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에 곡성과 옹성이 없으면 사람마다 하나씩 타를 지키고 타 사이에 방패를 세워 바깥의 화살과 돌을 막더라도 성 아래에 가까이 오는 적을 보고 방어할 수 없다. 《기효신서》에는 매 50타에 1치를 두어 밖으로 두세 길 돌출시킨다고 하였다. 2치의 거리가 50타이니, 1치가 차지하는 지점이 25타이다. 화살이 무성하게 날아와도 좌우에서 돌아볼 수 있고, 적이 기어오르려고 성 아래 붙지 못하게 발사하는 데 편리하다.

임진년(1592) 가을, 나는 안주에서 오래 머물렀다. 적이 이제 평양에 있으니 언제라도 서쪽으로 공격해 오면 행재소 앞으로는 막을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힘을 따져보지 않고 안주성을 수리하여 지키려 했다. 중양절(重陽節)에 우연히 청천강(淸川江) 강가에 나가 주성을 돌아보았다. 오랫동안 묵묵히 생각하다가 불현듯 한 가지 계책이 떠올랐다.

성 밖에 지세에 따라 별도로 치의 방법처럼 凸자 모양의 성을 짓고 가운데를 비워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사람을 배치한다. 앞과 좌우에 포탄 구멍을 뚫어 가운데에서 대포를 쏠 수 있게 하고 위에 망루를 세우되 망루의 거리는 천 보 이상이 되게 한다. 대포 가운데에 새 알 같은 철환 몇 두를 장치한다. 적이 성 밖에 많이 모였을 때 양쪽에서 번갈아 발사하면 사람이나 말은 물론이요, 쇠나 돌이라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성가퀴에 지키는 군사가 없더라도 수십 명만으로도 포루를 지켜적이 감히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을 지키는 묘안이었다. 제도가치를 모방했으나 효과는 치보다 훨씬 뛰어나다. 천 보 이내에 적이 감히 접근하지못하면 성벽을 타고 오르는 사다리나 성벽을 부수는 쇠수레 같은 것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우연히 생각해낸 것이다.

나는 이를 곧 행재소의 임금께 아뢰고 후에 경연 석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쓸 만한 것임을 보이고 싶었다. 병신년(1596) 봄, 서울 동쪽 수구문(水口門) 밖에 땅을 고르고 돌을 모아 만들었다. 완성되기 전에 이견이 분분해 그만두고 수축하지 않았다. 훗날 멀리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말을 버리지 않고 이 제작 방법을 다시 쓴다면 적을 방어하는 데에 보탬이 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안주에 있을 때 경상우감사에 임명된 친구 김사순(金士純)이 편지를 보내왔다. 진주성을 수리하여 목숨을 걸고 지킬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그전에 적이 진주를 한 번 침범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후퇴한 적이 있었다. 나는 김사순에게 답장을 보냈다.

"적이 조만간 다시 올 걸세. 보복하러 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대대적으로 침범할 것이니 지키기가 예전보다 어려울 것이네. 포루를 세워 대처하면 걱정이 없을 걸세." 편지에 그 방법에 관해 자세히 적어 보냈다.

계사년(1593) 6월, 적이 다시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종사 신경진에게 말했다.

"진주성이 매우 위급하다. 다행히 포루가 있다면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지키기 어려울 게야."

얼마 후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진주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단성

현감 조종도 김사순의 친구였는데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김사순과 함께 진주성에 있었는데, 김사순이 공의 편지를 보고 펄쩍 뛰며 정말 훌륭한 계략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막하에 있는 친구 몇 사람과 지형을 따라 성을 돌아보고는 여덟 곳에 설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곤 나무를 베어 강에 띄워 보내라고 했지요. 그런데 진주의 백성들은 그런 부역을 싫어했습니다. '전에는 포루가 없어도 수비하여 적을 물리쳤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김사순은 듣지 않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김사순이 병이 들어 눕게 되어 그 일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바탕 애통해하다가 헤어졌다. 아아, 김시순의 불행이 곧 진주성 백성들의 불행이 된 것이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운이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임진왜란 발발

임진년(1592) 4월, 적이 연이어 내륙의 여러 고을을 함락시켰다. 우리 군사들은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쓰러졌다. 감히 적과 칼을 맞대는 자가 없었다.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이 날마다 궁궐 아래 모여 방어할 계책을 강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계책이 없었다. 그때 누군가가 건의하였다.

"적이 창칼을 잘 쓰는데, 우리는 방어할 만한 견고한 갑옷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꺼운 철로 온몸을 감싸도록 길게 만들어 입혀서 적진에 들여보내면 적이 찌를 틈이 없을 테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대장장이를 대대적으로 모아들여 밤낮으로 두들겨 만들었다. 나만 안 된다고 말했다.

"적과 싸울 때는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새처럼 흩어져야 하니 속도가 중요합니다. 온몸에 두꺼운 갑옷을 입으면 무게를 버티지 못할 뿐 아니라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적을 죽이기를 바라겠습니까?" 며칠 만에 쓰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다. 또 대간에서 대신들과 함께 계책을 논하기 위해 만나기를 청하였다. 그중 한 대간이 화를 몹시 내며 대신들이 무모하다고 꾸짖었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계책이 있느냐고 그에게 묻자 이리 대답하였다.

"어째서 한강변에 높은 울타리를 많이 설치하여 적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내려 다보며 활을 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이 물었다.

"적의 총탄도 올라오지 못한답니까?"

그 사람이 말없이 물러났다. 듣던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해 웃음거리로 삼았다.

아아! 군대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고, 전투에는 일정한 법칙이 없는 것이다. 사정에 따라 방법이 변하고, 나아갔다가 물러났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기이한 계책이 무궁하게 나오는 것은 단지 장수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수많은 말과 계책은 모두 소용없다. 오직 훌륭한 장수 한 사람을 얻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그리고 조조가 말한 세 가지 방책이 더욱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이야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나라에서는 아무 일 없을 때 장수를 선발했다가 유사시에는 장수에게 맡겨야 한다. 선발할 때는 정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활용할 때는 전권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경상도 수장은 박홍과 원균이었고 육장(陸葬)은 이각과 조대곤이었다. 애초에 인재를 골라 뽑은 것이 아니었다. 난리가 일어나자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등이 모두 조정에서 명을 받고 왔으나 각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었다. 그들은 제멋대로 호령을 하고 마음대로 진퇴를 결정했지만 계통이 서지 않았다.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돌아오리라"는 옛 성인의 훈계를 지키지 못했으니 어떻게 구제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자기가 훈련한 군사를 쓰지 못하고, 자기가 쓸 군사를 훈련시키지 않아 장수와 병졸이 서로 잘 알지 못했다. 이는 다군사가(軍事家)들의 큰 금기이다. 어쩌자고 앞에 가던 수레가 이미 전복되었는데도 뒤에서 바꿀 줄 모르는가? 여전히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가면서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일 뿐이다. 말하면, 그 사설이 너무 길어져 한두 마디로 다할 수 없

다. 아아, 위험하도다.

계사년(1593) 정월, 명나라 군대가 평양을 출발하였다. 나는 부대보다 앞서 출발했다. 임진강에 얼음이 풀린 때여서 건널 수가 없었다. 그러자 제독은 연이어 사람을 보내 부교를 만들라고 독촉하였다. 금교역에서 황해도 수령이 수많은 아전과백성을 이끌고 대부대를 살피고 대접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우봉 현령(牛峰縣令)이희원(李希愿)을 불러 데리고 있는 백성이 몇이나 되는지 물었다. 수백 명쯤 된다고 하여 지시를 내렸다.

"너는 빨리 사람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칡을 뜯어 오너라. 내일 아침 임진강 어 귀에서 만나자. 약속시간을 어기면 안 된다."

이희원이 떠났다. 개성부에서 묵은 나는 다음 날 날이 밝자 덕진당(德津堂)으로 달 려갔다.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고. 얼음 위로 유빙(流氷)이 절반 정도 흐르 고 있어 하류의 선박이 올라올 수 없는 상태였다. 경기 순찰사 권징, 수사 이빈, 장 단부사 한덕원 및 창의추의군 1천여 명이 강 쪽에 모여 있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내가 우봉의 백성들을 불러 가져온 칡을 꼬아 거대한 밧줄 몇 발을 만들게 했는데, 길이가 강을 가로지를 정도였다. 남쪽과 북쪽 강 언덕에 각기 두 기둥을 마주 세우 게 하고 그 안에 가로목을 하나 댔다. 거대한 밧줄 열다섯 조를 가져다가 강 표면 을 가로질러 덮어서 양 끝을 가로목에 묶었다. 멀리 있는 밧줄은 물에 반쯤 잠겨 끌어낼 수가 없었다. 여러 사람들이 인력만 낭비하는 거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명 령하여 각기 두세 자 되는 짧은 가로대를 들고 침 밧줄에 끼어 힘을 다해 몇 바퀴 씩 돌리게 했더니. 줄이 당겨지면서 표면으로 올라와 빗살처럼 펴졌다. 그러자 여 러 밧줄이 탱탱하게 묶여서 아치형으로 높이 일으켜져 어엿한 다리 모양이 되었 다. 가는 버들을 베어다 그 위에 펴고 풀로 두껍게 덮은 다음 흙을 얹었다. 명나라 군사들은 대단히 기뻐했다. 다 채찍을 들고 말을 달려 지나갔다. 대포와 군 장비도 모두 이를 따라 건넸다. 얼마 후 건너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매어 놓은 줄이 아주 느슨해 물 표면에 가까웠지만 대군은 얕은 개울을 통해 건넜으므로 문제가 없었 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 다급하게 준비하느라 칡이 많지 않았던 게 안타깝다. 만약 새 끼줄 서른 조를 얻어 만들었다면 더 단단하여 느슨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남북사(南北史)》라는 책을 보니, 제(齊)나라 군대가 양(梁)나라 군주 규(巋)를 공격할 때 규는 주(周)나라 총관 육등(陸騰)과 함께 적을 막았다. 그때 주나라 사람들이 협곡 입구 남쪽 언덕에 안촉성(安蜀城)을 쌓았다. 강가에 큰 밧줄을 가로질러 걸어서 갈대를 엮어 다리를 만들고 군량을 옮겼다. 이 방법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우연히 생각해냈는데 옛사람들은 이미 사용했구나 생각하며 웃었다. 이 일을 기록하는 것은 다른 날 급한 상황에 대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다.

계사년(1593) 여름, 나는 몸이 좋지 않아 서울 묵사동(墨寺洞) 집에 누워 있었다. 하루는 명나라 장수 낙상지가 거처를 방문해 매우 공손하게 문병하면서 이렇게 말 했다.

"조선은 지금 약한데 적은 아직도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군사를 훈련하여 적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명나라 군대가 아직 돌아가지 않은 이 기회를 타서 군대 훈련법을 익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열 사람을 가르치고, 열 사람이 백 사람을 가르치면 몇 년 사이에 모두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감격한 나는 즉시 행재소로 달려가 임금께 아뢰었다. 그런 다음 금군 한사립(韓士立)을 시켜 도성 안 사람 가운데 70여 명을 선발해 낙상지 처소로 가서가르침을 청하도록 했다. 낙상지는 부하 중에 진법에 밝은 자 장육삼(張六三) 등 16명을 선발하여 교관으로 삼아 밤낮으로 창칼과 낭선(狼筅) 쓰는 기술을 가르쳤다. 얼마 후 내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자 그 일은 더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임금께서는 내가 다시 올린 장계를 보시고 비변사에 명령하여 별도로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선치하라 하셨고 윤두수가 그 일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해 9월, 나는 행재소로 불려 왔다. 해주에서 임금을 마중하여 모시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연안에 이르자 임금께서 내게 훈련도감의 일을 대신 맡으라 하셨다. 당시 서울 백성들은 심하게 굶주리던 때여서 나는 용산 창고에서 쌀 1천 석을 내주십

사 청하였다. 날마다 병사 한 사람당 두 되씩 지급하자 사방에서 응모자가 모여들었다. 그런데 훈련도감의 당상관 조경이 곡식이 적어서 다 지급할 수 없다면서 기준을 만들어 제한을 두자고 했다. 큰 바위를 하나 두고 지원자에게 먼저 바위를 들어보게 하여 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또 한 길 남짓한 흙담을 뛰어넘게 하여서 할수 있는 자만 들어오게 하고 못 하는 자는 막았다. 굶주리고 지쳐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합격한 자가 열 명 중 한두 명이었다. 어떤 사람은 시험장 밖에서 시험을 보려고 기다리다 엎어져 죽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천 명을 모을 수 있었다. 파총(把總), 초관(哨官)을 두어 부대를 나누어 이끌게 했다.

조총법도 가르치고 싶었으나 화약이 없었다. 그때 군기시(軍器寺) 장인(匠人) 중에 대풍손(大豐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적진에 들어가 화약을 많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강화에 가둬두고 죽이려고 했으나, 특별히 그의 죽음을 사면해 주는 대신 초석을 굽게 하여 속죄하도록 하였다. 그는 감격하고 송구하여 힘을 다했다. 하루에 만든 화약 10여 근을 날마다 각 부대에 나누어 주었다. 밤낮으로 쏘는 법을 익히고 잘하는지에 따라 등급을 매겨 상과 벌을 주었다. 한 달 남짓하여 나는 새도 맞히게 되었다. 몇 달 후에 항복한 왜인과 남쪽 지방 조총 잘 쏘는 자들과 비교하였더니 그에 못지않았고, 어떤 이는 더 잘했다. 내가 차자(獅子)를 올려 청하였다. "군량을 조치하고 군사를 더 모집하게 해 주십시오. 1만 명을 채우면 다섯 군영에 두고 각 군영에 2천 명씩 배속시키겠습니다. 해마다 반은 성 중에 남아 교련하고 반은 성 밖으로 내보내 비어 있는 비옥한 토지를 골라 둔전을 갈아 곡식을 비축하게 합니다. 번갈아 교대하면 몇 년 후 군량의 원천이 후해지고 근본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조정에서 그것을 의논하였으나 병조에서 즉시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끝내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뛰어난 말솜씨를 지닌 심유경

심유경은 평양에서부터 적중을 드나드느라 고생이 심했다. 그러나 강화를 명분으로 삼았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좋아하지 않았다. 게다가 적은 부산에 오랫동안 체류하며 바다를 건너지 않았고, 책사 이종성은 도망쳐 돌아가 버렸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곧 심유경을 부사에 임명해 상사 양방형과 함께 왜국으로 보냈으나 끝내중요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등도 돌아와 바닷가에 다시 주둔하였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분분했는데, 모두가 허anf을 심유경에게 돌렸다. 심한 경우 심유경이 적과 함께 모의하여 반역한 정황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승려 송운(松雲)이 서생포에 가서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고 돌아와 왜적이 대명국을 침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전하는 말이 도리에 어긋난 것이라 즉시 명나라 조정에 자세히 아뢰었다. 들은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였다.

심유경은 화가 닥치리라는 것을 알고 근심스럽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곧 김명원에게 글을 보내 사건의 전말을 써서 자신을 변호하였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니 지나간 일이 어제 같소. 옛날 왜적이 귀국의 국경을 쳐들어와 곧바로 평양까지 왔으니 그들의 안중에는 조선 팔도가 없었소. 늙은 내가 황제의 명을 받아 왜의 정세를 탐색하고, 기미를 살펴 제어하였소. 족하와 이원익 체찰사는 난이 일어난 와중에 만났소. 평양 서쪽 일대 백성들이 떠돌며 고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듯했소. 아침에 저녁의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것이 특히 가슴 아팠소이다. 족하께서 몸소 그 일을 겪었으니 이 늙은이가 주절주절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오.

그 당시 나는 고니시 유키나기를 격문(檄文)으로 불러 건복산(乾伏山)에서 만나 서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단속하였소. 명을 듣고 감히 넘어오지 못 한 것이 몇 개월, 대군대가 올 때까지 지연시켜 평양을 되찾을 수 있었소.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만일 그때 내가 오지 않고, 왜적이 조승훈 공을 패배시킨 기세를 타고 의주까지 달려갔다면 알 수 없는 일이오. 평양 일도의 거주민들이 그 고초를 당하지 않은 것은 큰 행운이라 할 것이오.

얼마 후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퇴각하여 서울을 방어하였고, 총병 우키 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에게 딸린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마시타 나가모리(增田長盛) 등 30여 명의 장수가 합병해서 줄지어 진영을 차려 험한 곳과 중요한 곳을 차지하고 굳게 지키니 격파할 수가 없었소. 벽제 전투후에는 더더욱 공격하기가 어려웠소. 그때 판서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개성으로 나를 찾아왔소. 적의 기세가 아직 대단한데 대군이 물러간다면 서울은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소.

"서울은 근본에 해당하는 땅이라 수복하면 각 도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말했소.

"서울만 수복하고 한강 이남의 땅이 없으면 각 도의 형편도 펴지기 어려울 것이오."

이덕형이 말하였소.

"만일 서울을 찾을 수 있다면 실로 바라던 이상입니다. 한강 이남은 얼마 안 되는 땅이니 우리나라 군신들이 지탱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소.

"내 한번 도모해 보겠소. 서울을 찾고 아울러 한강 이남의 여러 도를 수복 하는 데 힘쓰겠소. 곧 왕자와 배신들을 돌아오게 하고 나라를 온전하게 하 겠소."

이덕형이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격해서 말했소.

"서울을 되찾기만 한다면 어르신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공덕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배를 한강에 대었는데, 왕자 임해군(臨海君) 등이 가토 기 요마사의 군영에서 사람을 보내 내게 전했소. "나를 서울로 돌아가게 해 준다면 한강 이남의 어느 땅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나는 이 제안을 거절했소. 그리고 왜장과 약속하였소. 돌려보내고 싶거든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기 싫거든 너희들 뜻대로 죽일 것이지 다른 일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오. 왕자는 귀국의 세자 자리를이을 것인데 나라고 그 귀함을 모르겠소? 이때를 당해서는 차라리 죽이라고 말할지언정 다른 일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오.

왕자 일행이 부산에 도착하자 내 재물을 들여 예를 다하였고 여러 방면으로 왕자에게 곡진히 뜻을 다했소. 전에는 거만하게 굴다가 나중에는 공손하게 대한 것은 때에는 완급이 있고 일에는 경중이 있듯 부득이해서였소. 몇 마디 말에 서울에 있던 왜군이 후퇴하였소. 연로에 있는 진영의 울타리와 남은 곡식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소. 한강 이남의 도를 다 찾았고, 왕자와 배신들이 서울로 돌아왔소. 끝내 봉작 하나 주는 것으로 고삐를 씌웠고, 오랑캐 우두머리들이 부산의 바다 끝 땅에서 손을 모으고 3년 동안 명령을 기다리며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했소. 이어서 조공국으로 봉하는일에 대해 의견이 이루어졌소.

나는 명을 받들어 서울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시 족하와 이덕형을 만났소. 지금 가서 일본을 봉해주어 왜군이 물러난다면 귀국의 사후 대책은 어떠냐고 물었소. 이덕형이 대답하였소.

"뒷날의 일은 우리나라 군신의 책임이니 어르신께서는 괘념치 말라"고 말이오. 나는 처음 그의 말을 듣고서 역량과 식견이 대단하여 우뚝 선 기둥 같다고 훌륭하게 여겼소. 지금 와 사실을 조사해 보니, 문장과 공로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 같소이다. 나는 이 판서 때문에 매우 섭섭하오. 그리고 부산, 죽도의 여러 진영을 즉시 철수시키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겠지만 기장, 서생포 여러 곳은 왜병이 다 바다를 건넜소. 진영의 울짱을 다 태우고 지방관들에게 거짓이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는 서약서를 나누어 주어모두 갖고 있소이다. 어떻게 가토 기요마사가 오자 전투 한 번 했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꺾지 못하였소? 지방관들이 몸을 빼며 사양

한 것은 어째서란 말이오? 한강 이남은 작은 땅이라 스스로 지탱할 수 있다고 말해 놓고 어찌 이미 얻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잃는단 말이오? 또 뒤처리하는 일은 제 나라의 책임이라고 말했으면서 어떻게 큰 계획은 들리지않는 것이오? 고작 궁궐 아래에서 울부짖는 게 계책이란 말이오?

병법에 강한 것에 약한 것이 당할 수 없고 많은 수에 적은 수가 대적하지 못한다고 하였소. 나도 힘든 상황을 귀국 당사자들의 책임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외다. 다만 완화되면 근본을 다스리고 급하면 끝을 다스리는 법이니, 군사를 훈련하여 수비를 닦고 때에 따라 위무하고 제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오. 귀국의 일을 담당한 여러 인재들도 내버려 둘 수 없지만 묻지 않고 있을 뿐이오. 바다를 건너온 이래로 내가 네 번 귀국의 임금을 만났소. 서로 나누는 말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왔고 시의적절한 것이었소. 조금도 거짓이나 잘못이 없었소. 국왕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피차 밝게 비춰 통하였소. 나는 성심으로 말하였소. 동쪽의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다른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뜻밖에도 귀국의 모사가(謀士家)와 책사(策士)들이 모함하고 꾀를 내어 번 갈아 이간질하였소. 안에서는 위험한 말로 명나라 조정을 격분시키고, 조선에서는 나약한 병졸로 일본과 분쟁을 일으켰소. 송운의 말은 특히나 예법에 벗어나는 것이오. 그는 "먼저 대명을 정벌하려 한다"라는 말과 "팔도를 할양하고 국왕이 직접 바다를 건너가 귀의하여 복종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사이에 해댔소. 이런 말들이 국왕의 염려를 일으키고 중국조정을 격분시켜 군대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귀국에 팔도밖에 없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오. 만약 다 허락하고 국왕이 직접 바다를 건너 귀의하여 복종한다면 귀국의 종묘사직과 백성은 모두 일본 것이 될 것이오. 또 두 왕자를 어떻게 데려오겠소? 내 생각에는 삼척동자도 이렇게까지 실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오. 가토 기요마사가 아무리 제 멋대로라지만 이렇게까지 멋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오.

또 우리 대명의 조정이 외번을 통제하는 데에는 큰 원칙이 있고 한 번 은

혜를 베푸는 것과 한 번의 위엄을 보이는 것 역시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았소. 수백 년 동안 관계를 맺은 속국을 모른 척 할 리 없을 것이고 약속을 받들지 않는 역적이 우리 변방의 속국을 노략질하는 것 역시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외다.

내가 일을 아주 잘 살피지 못하지만 내외, 친소의 구별과 반역과 순종의 실정 같은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오. 더구나 여기에 칙명을 삼가 받들고 이 일을 안정시키려는 것을 말해 무엇하겠소?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관계가 가벼운 것이 아닌데 감히 귀국의 일을 업신여기고 정성을 더 하지 않을 리 있겠소이까? 그리고 감히 일본의 방자함을 숨기고 방치했겠소이까?

족하는 큰 원칙을 잘 알고 국사에 밝으니 이 편지를 보내오. 행여 족하가 나의 평소 마음을 이해한다면 즉시 임금께 말씀드려 주시오. 아울러 일을 맡고 있는 여러 신료들에게 까닭을 대강 알게 해 주시오. 우리 명나라 조 정을 우러르는 것만이 만전을 기하는 계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미 말하 였소. 마땅히 명령을 받들고 처분대로 하여서 끝없는 복을 바라야 할 것이 오. 한낱 잘못된 계책으로 날로 피곤해지고 날로 졸렬해져서는 안 될 것이 오.

지극히 당부하는 것이 끝이 없었다. 이 편지를 보면, 서울에 관한 얘기의 앞부분은 딱 들어맞아서 증명할 수 있지만, 부산 얘기 다음은 얼버무리고 숨겨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과 죄는 서로 상쇄시킬 수 없다. 나중에 심유경이라는 사람을 논할 때 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밝혀둔다.

심유경은 유세가이다. 평양 전투 후에 두 번 적중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끝내 말솜씨로 전쟁을 대신해 많은 적을 내몰아 다시 이 수천 리를 수복할 수 있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어긋나면 큰 화를 면할수 없다. 불쌍하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심유경을 가장 믿다니! 그가 서울에 있을때 심유경이 은밀히 말했다.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너희들이 오래 여기에 머무르고 물러나지 않으면 명나라 조정에서 다시 대군을 일으켜 서해를 통해 올 것이다. 그리하면 충청도로 돌아가는 길이 끊길 것이다. 그 때에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평양에 있을 때부터 그대와 정이들었다. 그래서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자 고니시 유키나가는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 일은 심유경이 직접 우의정 김명원에게 말한 것인데 김명원이 나에게 말해 준 것이다.

지은이 소개 | 유성룡 柳成龍 (1542~1607)

경상도 의성(義城) 출생.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이현(而見), 시호는 문충(文忠). 16세에 향시에 급제, 21세에 퇴계 이황의 문하로 들어가 학문을 닦았다. 25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로 관직을 시작했다. 임진왜란 발발시 좌의정으로 병조판서를 겸하고 있었으며, 군무를 총괄하는 도체찰사로서 이순신과 권율 등을 천거했다. 파천(播遷)을 떠난 선조를 호종하다가 개성에 이르러 영의정이 되었으나, 평양에 이르러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했다. 서울 수복 후 다시 영의정에 복직되어 훈련도감을 설치, 군대를 정비했다. 정유재란 이듬해 북인들의 탄핵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저술에 몰두하였는데, 이후 복관되어 조정에서 수차례 불렀으나 일체 응하지 않았다. 주요 저서로 (서애집) (영모록) (징비록) 등이 있다

옮긴이 소개 | 구지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박사. 한시(漢詩)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 한시가 주요한 외교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깨닫고 국제 교류로 관심을 옮겼다. 박사 학위 논문으로 (1763년 계미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를 쓰면서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두 나라 지식인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 특히 일본인들이 (징비록)을 탐독했던 점에 흥미를 갖고 이 책을 번역했다. 주요 논문으로 (필담을 통한 한일 문사교류의 전개양상) (이언진과 일본 문사 교류의 의미) (하버드 대학 소장 〈부상일기〉의 구성과 의미〉 등이 있다.

징비록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5년 11월 1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 · 교열 | 황인정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